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현대불교

원적외선 사찰 난방 전문
-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고정협찬 :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시 공 처 : 통도사 백운암, 변산반도 월명암, 정선 불암사, 철원 장안사, 서울 불광사, 북한산 삼봉사, 포천 장안사, 가평 불광사 법흥사 등
웰빙○코리아 http://www.wbkor.co.kr 전화 02)538-8489, 551-3010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12월 29일(음력11월 18일) 수요일 (주간) 제506호

찾아가는 문화복지가 뜹니다

불교복지 '정신빈곤' '소외지역'으로 확산

타종교 비해 늦은 편… 재정 · 전문가 부족

불교복지의 패러다임이 '앉아서' 맞는 소극적 복지에서 '감동을 안고 찾아가는' 적극적인 문화복지로 바뀌고 있다.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복지가 '정신적 빈곤'에 대한 문제 해결에 미흡했던 불교복지 활동의 방향이 문화와 정서순화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문화복지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정신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복지서비스로, 선진국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이 개념을 도입했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도 1990년을 기점으로 이를 받아들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가 이처럼 문화 개념의 복지서비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방적인 '퍼주기 식' 복지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 이는 물질문명 속에 현대인들이 느끼는 '정신적 궁핍'을 문화적 복지 활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현장의 현실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효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복지가 21세기형 '웰빙복지'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의 정서적인 만족감은 물론, 일부 계층에만 국한됐던 문화의 향유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또 이런 변화는 최근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12월 16일 발족한 '문화복지연대'로 이어져 불교도 문화복지 실천에 합류하게 됐다.

본지가 12월 현재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에 등록된 476곳 시설의 복지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노인복지센터, 삼전복지관 등 전국 40(12%)여 곳의 시설들이 문화복지 서비스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문화복지 서비스 유형은 음악회, 연극공연, 전시회 등 문화영역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공연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늘 푸른 예술단', '풍물동아리', 음악공연은 삼전복지관의 '소리샘', 대구불교사회복지회의 '햇빛촌 달빛촌 축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혜 대상 역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에서 지역주민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은평노인복지관 소속의 '은빛어르신 봉사대'는 인근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전통무용 공연을, '서울 연화복지원'은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마술과 국악 공연 등을 선보이고 있다. 또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늘푸른 예술단'은 인근 병원, 양로원 등을 찾아 부채춤, 검무, 왈츠공연 등의 문화공연을, '풍물동아리'도 인사동 거리 공연, 지역복지관 등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수혜자들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다. 얼마 전 '늘 푸른 예술단'의 한국무용과 스포츠 댄스 등을 관람한 최희영(38 · 전북 전주)씨도 "처음엔 노인들이 하는 공연인데 얼마나 잘하겠느냐는 냉소적인 시각으로 공연을 봤는데 프로에 가까운 실력에 감탄했다"며 "앞으로 이런 공연이 문화사각지대인 지방중소도시에서도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은 복지단체와 문화계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불교문화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의 공유와 상호협조 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종단 차원의 공식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단과 정부가 별도의 문화복지 예산을 편성해 불교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시설을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문화복지에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수급할 수 있으며, 양질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자원봉사자 육성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화복지연대 김종엽 상임대표는 "각계 문화인들과 사회복지사들이 결합한 문화복지연대가 문화복지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주요 사찰들도 일선 복지관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노병철 기자



또 한해가 저무는데… 한 해가 지듯 한 숟가락의 밥이 목구멍을 넘어간다. 힘겹게 넘어가는 한 숟가락의 시름은 종묘공원에서 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무료급식을 하는 노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자비 넘치는 세상이 그리운 세모에 우리는 서 있다. 한해를 훌훌 털어내며, 새해에는 더 많은 자비와 행복의 세상이 오길 염원하며…. 사진=박재완 기자

임제선원 조실 종성 스님 21일 원적

本社에 장서 3만권 기증… '종성문고' 조성

24일 영결 · 다비식 엄수



임제가풍을 이은 당대의 선지식 종성 스님(임제선원 조실 · 사진)이 12월 21일 입적했다. 세수 75세 법랍 37세. 스님은 "기꺼이 몽환의 세상에 노닐다/오늘에 크게 고요히 쉬도다/맑은 바람 건곤에 부는데/해는 서산머리에 떨어지도다(優遊夢幻世/今日大寂休/淸風拂乾坤/日落西山頭)"라는 임종게를 남겼다.

영결식은 24일 오전 서울대병원 영안실에서 열렸으며, 당일 장성 백양사에서 다비식이 엄수됐다.

1930년 전북 부안에서태어나 전주고등학교를 나와 원광대에서 불교학을 전공했던 종성 스님은 1968년 38세의 늦은 나이에 본격적인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

92년 서옹 스님으로부터 "부처님의 정법을 제산장실(濟山丈室 · 제산=종성 스님의 법호)에게 부촉하노라"라는 전법게를 받고 은법 제자가 됐다. 90년대 초부터 봉천동 관악산 기슭에 임제선원을 열어 수행과 재가 불자들의 선 수행 지도에 전념해 왔다.

"어디서든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로 출 · 재가 불자들을 지도해왔던 종성 스님은 "수행은 주어진 여건에서 깨달음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닦으면서 바르게 사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이는 중국조사선을 완성한 임제선사의 '일체시 일체처(一切時 一切處)' 어디에서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고 행동하나하나가 모두 참이 되게 하라는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교학에도 철저했던 종성 스님은 최근 평생 모은 장서 3만여 권을 본사에 기증하기도 했다. <선종전서><선장> 등 방대한 분량의 선학 관련 서적들과 각종 대장경은 물론, 정치 과학 사회 전반의 서적에서 평소 스님의 독서편력을 엿볼 수 있다. 본사는 기증받은 장서들로 '종성문고'를 조성, 독자들에게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조용수 기자

송 년 호 특 집 안 내
본지선정 2004 10대 뉴스 4면
2004 주요 종단 결산 8면
본지선정 올해의 인물 14면

"인터넷 활용 해외포교 활성화 박차"

법장 스님, 간담회서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숭산 스님 원적 이후 해외포교 방안과 관련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해외포교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22일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기공식을 앞두고 공주 마곡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장 스님은 "사람을 불러 모으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 인터넷 포교"라며 이 같이 말하고 "지원센터 내 국제간화선 센터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시킨 뒤 전교사 자격증을 줘 현지에서 포교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장 스님은 또 "동남아권 불교국가 우수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세계 유수 불교학자들에게 직접 장학금을 주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달라이 라마 방한과 관련해 법장 스님은 "달라이 라마가 방한하면 스님들이 산속에서 정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벨평화상도 받을 수 있고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도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곡사=남동우 기자



그림 · 조태호

월운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현대불교'는 지난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함께 불교발전을 일굴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 **영구독자 혜택**
현대불교신문 영구독자에게는 평생 신문을 보내드리며, 자녀에게도 혜택을 양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영구 구독료** 62만5천원(일시불 납부)

■ **구독신청 및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TEL: 직통 (02) 737-0090 / 대표 02-737-8881
FAX: (02) 737-0697

스마트폰 '아이 벗' 무료 증정

올해 12월 말일까지 영구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불자들을 위한 스마트폰(HP rw6100 기종, 시중가 72만6천원) 아이벗(I-BUD)을 무료로 드립니다.

■ **아이벗(I-BUD) 제공조건:** 12개월 의무사용, 가입비 3만원 별도

■ **아이벗(I-BUD):**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며, BUD는 Buddha(부처), Buddy(친구)를 뜻합니다.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전송 :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광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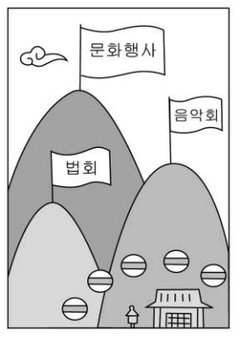


'불교문화' 발전의 틀은?

본란을 꾸준히 읽고 있는 독자로서 느낀 흥미로운 사실은 기고문에서 '문화'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에서 오늘날이 '문화의 시대'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만 '문화적 패러다임'이 사회근간을 이루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최근 불교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문화활동과 관련해 두 가지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문화콘텐츠를 장기적 안목에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여러 사찰에서 축제형식의 문화행사들을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문화'를 통해 중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비슷한 행사들이 단순복제되고 양산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산사음악회'로 각 사찰의 고유 특성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몇몇 유명가수들의 리사이틀장이 되고 있어 본래의 산사음악회가 주는 청량함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콘텐츠 개발
범불교 차원 '인큐베이팅' 필요

문제는 이런 현상이 '산사음악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교계의 다른 문화행사들에서도 나타난다. 수천년 역사와 전통에서 다양한 문화적 스펙트럼과 문화의 원형을 품고 있는 불교계가 이런 현상들을 겪는 내면에는 '기획력의 부족'이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사찰에서 '충분한 기획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장 구경온 사람이 몇 명인가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박하더라도 사찰만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진지한 자세가 요구된다.

둘째, 각 종단 혹은 범불교계 차원에서 양질의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좋은 기획은 충분한 기간과 전문 기획역량, 그리고 재정적 뒷받침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사찰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일선 사찰이 겪는 난제들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주요 문화정책 중 '문화향유권의 증진', '지역문화 활성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활용'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다.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선 사찰들과 연계시켜주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불교문화 활성화의 획기적 계기가 되고 일선 사찰의 부족한 기획역량을 배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불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행사(축제)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육성하는 일도 병행한다면 겉음마단계인 '문화포교' 분야를 질적으로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김유신(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12월22일 공주 마곡사 인근 현장에서 거행된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기공식. 사진=박재완 기자

"21세기 불교문화 여기서 꽃피리"

조계종 전통문화산업지원센터 기공

22일 마곡사 인근

한국불교 미래를 개척해 나갈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기공식이 12월 22일 공주 마곡사 인근 현장에서 봉행됐다.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공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첫 삽을 뜨게 되는 지원센터는 1700년 한국불교 역사에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앞으로 한국불교만의 수행전통을 온 인류에게 알려가는 동시 문화산업 전초기지로서 연수프로그램과 상품개발, 연구활동의 구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도 "1700여년 역사의 한국불교에는 문화산업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있다"며 "불교계와 정부가 협력해 불교문화콘텐츠를 산업화 한다면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불교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축사했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5번지 일대에 건립될 지원센터는 2004~2006년 3년간 국고 122억원, 자부담 122억원 등 총 24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대지 9천여평 건물 4천여평으로 조성된다.

지원센터는 크게 △교육 및 연수시설 △국제간화선 체험센터 등 전통불교 수련시설 △연구시설 △공연시설 △불교문화 정보화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꾸며진다. 여기에서는 조계종 스님 및 신도, 불교단체, 문화예술단체들의 교육과 연수를 개발·유치하게 된다. 또 무형의 유산을 문화산업으로 개발하고, 불교문화 정보화 사업을 담당, 각종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간화선 체험센터 등에서는 한국 선불교사상을 내·외국인들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 가동
기초자료수집 설문조사 등 착수

지난주 본지가 보도한 불교학 박사학위 이수자들의 활용방안과 관련, 동국대 불교대학의 위기의식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가 재단차원의 대안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 영담)는 최근 동국대 교수, 학생, 졸업생 등 불교학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불교대학 발전방안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석림회가 조사한 불교대학 학생들의 의식조사에 이어 졸업후 사회진출문제까지 광범하게 다뤄지고 있다.

불교대학발전위원장 영담 스님은 "2005년 신학기 개강 시점에 맞춰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지도교사 양성이 급한 숙제"
파라미타, 활성화 세미나서 지적

'지도교사 양성' '보다 많은 교육 기회 제공' 등이 파라미타 캠프의 활성화 선결과제다.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된 '파라미타 캠프 활성화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제자 박영동 교법사(명성여고), 김한기 교감(은석초등학교)과 지정토론자 김홍섭(보문고), 권진영 교법사(명성여중), 김인영 양(동국대 불교학전공 3), 김대철 군(동대부고 3) 등은 지도교사 문제 선결이 캠프 활성화에 직결되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영동 교법사는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사전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차별화 등을 지적했다. 김한기 교감은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절한 장소, 전문 지도교사 활용이 캠프 활성화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올 한해 '돈독한 관계' 형성

남북불교 "새해여 오라"

'조선불련무역회사' 설립 등 활기 전망

2004년 금강산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 복원, 용천역 폭발사고 구호활동 등을 통해 돈독한 신뢰관계를 쌓아온 남북불교계가 2005년부터 본격적인 밀월관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와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불교단체인 평불협과 JTS 참여불교운동본부 대표들은 12월 14~18일 중국 북경에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대표들과 각각 회동을 갖고, 내년도 남북 불교교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번 만남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것은 아니지만 양측간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 활성화를 약속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불교계 안팎의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월 황병준 조불련 부위원장이 입적한 이후 남북불교교류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신임 서기장에 임명된 정서정 스님, 조불련 신도회 라영식 회장, 조불련 평양시위원회 서철민 위원 등이 이 자리에 참석, 남북 불교교류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北 성보전시·교차방문
지원사업확대 '의견일치'
용품거래·예술교류도 기대

종단별 사업으로는 조계종이 내년 10월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에 맞춰 북한 성보문화재를 전시하는 것을 조불련과 추진하기로 했다. 정서정 서기장은 "문화재 전시는 문화재보존지도국과 당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북측 성보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남측 불자에게 선보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단협과 진각종, 천태종은 조불련과의 남북불교 대표 서울-평양 교차 방문을 추진키로 했다. 조불련은 종단협 소속 종단 대표자들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을 당국에 적극 건의키로 하는 한편, 남한 불교계는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 북측 대표단을 초청하는 것을 공동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천태종은 현재 추진 중인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를 내년 봄까지 마무리하고 천태종 불자들의 방북을 추진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JTS와 평불협, 참여불교운동본부는 물자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JTS는 나진 선봉지구 개발에 필요한 건설자재, 운송수단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북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나진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JTS는 북한 지원을 북한 개발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조불련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참여불교운동본부는 조불련에 문화교류를 통해 남북 동질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 조불련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은 "조선불련무역회사를 통한 김치와 생활용품 및 불교용품을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을 통해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조선불련무역회사의 설립이다. 이 회사는 앞으로 남북한 불교계의 물자 및 불교물품 교류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북한 타종교단체도 비슷한 성격의 회사를 설립하려다 실패한 점으로 볼 때, 북한 당국이 남북불교 교류에 거는 기대감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강유신 기자

乙酉年 - 우리도 부처님 같이

大韓佛教 曹洞宗 任員

佛紀 2548年(2004年) 12月 9日 第 33次 中央 定期宗會에서 宗團 幹部 스님들의 職責을 公告합니다.

宗 正 尹智明　　副宗正 催諸空

宗正司書室長 釋光慧

僧正院長 : 韓春潭　　僧正委員 : 催圓峰. 蔡龜岩. 安松峰. 鄭戒云. 陳惺雲(無順)

總務院長 朴心月　監 察 院 長 黃德牛
副 院 長 宋德性　中央宗會議長 禹海倫
企劃室長 金統元　教 育 院 長 許雲成
事務總長 金法空　國際文化院長 宋月岩
教務部長 釋光慧　布 教 院 長 許智悳
財務部長 李法蓮　中 央 律 院 長 元雲潭
糾正部長 嚴法華　護 法 院 長 成慧泉
教育部長 張顯空　護法副院長 朴慧法

서울教區 宗務院長 金德龍
京畿教區 宗務院長 趙大法
江原1 教區 宗務院長 李萬慧
江原2 教區 宗務院長 鄭慧緣
忠北教區 宗務院長 金日長
慶北教區 宗務院長 朴雲鶴
慶南中部教區 宗務院長 梁海日
慶南西部教區 宗務院長 黃法光
釜山教區 宗務院長 鄭德正
蔚山教區宗務院長 朴海月

中央宗會議員 (無順)

寓海倫　金統元
李一覺　釋行文
金德龍　趙大法
李萬慧　鄭慧緣
安行悟　朴雲鶴
李慧惺　朴慧法
梁海日　李慧山
安志遠　黃法光
朴海月　鄭德正
李行綠　張行梵

宗團 害宗 行爲者 摅奪度牒 公告

1	前 總務院 副院長	金榮浩	法名 : 日光. 法號 行均 승번 301-047
2	前 中央監察院長	金永守	法名 : 正林. 法號 行正 승번 302-039
3	前 副宗正, 前 素喜門徒會長 前 僧正	姜大龍	法名 : 梵海. 法號 德泉 승번 101-008

大韓佛教 曹洞宗 宗憲 第18條 ④항, 宗憲 僧正院法 第26條 ②항 ④항. 宗憲 第105條 ④항의 ㉠. 宗法中 中央 宗會法 第 16條 ②항 ③항과 第17條 ⑤항에 해당하므로 非常 對策 委員會와 第 33次 定期 中央 宗會에서 滿場一致로 可決 上記 3人을 西紀 2004年 12月 9日字로 摅奪度牒 되었음을 公告합니다.

佛紀 2548年 (西紀 2004年) 12월 14일

大韓佛教 曹洞宗

總務院長 朴心月(德潭)

장애인시설 소쩍새마을 이천으로 이전 확정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소쩍새마을이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승가원은 12월 20일 법인사무국에서 열린 임시이사회를 통해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에 위치한 소쩍새마을을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으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현재 이전 절차는 마무리 단계다. 이천시로부터 토목설계 인 · 허가를 받는 등 시설 이전과 건축에 필요한 실질적 승인 과정은 끝냈다. 13일 경기도청을 방문한 종범 스님은 손학규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설 이전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사를 전달받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1월 15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는 환경검토뿐이다. 이를 끝내고 나면 2005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미신고시설인 소쩍새마을은 그 동안 원주에서 시설 증축을 위해 노력했으나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있어 관련법상 건물확장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승가원은 올해 4월에 3만여 평의 부지를 매입, 꾸준히 시설 이전을 준비해왔다.

김강진 기자

“불사 동참하게 해줘 고맙습니다”

인 터 뷰 신계사 복원불사 2억5천만원 쾌척 송정숙 보살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에 동참하게 해 줘 고맙습니다.”

40여 년 동안 조경일을 하며 모은 2억 5천만 원을 쾌척하고도 ‘불사에 동참하게 해 줘 고맙다’고 연신 절을 하는 보살이 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서 ‘강씨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송정숙(선일행 · 78 · 사진)씨가 그 주인공이다.

송정숙 보살은 12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신계사 복원 불사금 2억 5천만 원을 쾌척했다.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자기를 버릴 줄 아는 분”이라며 “이 분이야 말로 진정한 보살”이라고 칭송했다.

송 보살이 신계사 복원 불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히 신문에서 신계사 대웅전 복원 낙성식을 한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부터다. 20살이었던 1946년, 5남매 중 홀로 서울에 왔다 끝내 고향(당시 강원도 호양군 호양읍)에 갈 수 없는 신세가 된 송 보살에게 그 기사는 예사로울 수 없었다.

지난 11월 신계사 대웅전 낙성식에 참가한 송 보살은 ‘여기가 바로 내가 불사할 곳’이란 생각을 했다.

송 보살의 이런 생각에는 남다른 아픔이 있다. 십여 년 전 큰 아들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당시 남양주 봉선사 운경 스님은 큰 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송 보살에게 산신각 불사를 권유했다. 이 후 이 말은 서원이 됐고 결국 신계사에서 회향을 하게 된 것이다.

송 보살에게 2억 5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40여 년 동안 남자에게도 벅찬 조경일을 하며 노후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108 참회 10년 계획을 세우고 정진했지만 7년 째 다리에 무리가 와 포기할 정도로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송 보살은 “신계사 복원 불사에 노후대책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고마움을 표했다.

송 보살이 좋아하는 경전은 〈반야심경〉. 좋은 기도처 찾아다니며 여러 경전을 외우기보다 가까운 절에서 〈반야심경〉 한번 봉독하고 청소거리 찾는 것이 맘에 편하기 때문이다.

평생토록 귀걸이나 목걸이, 시계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송 보살. “살아있는 동안 이웃들에게 마음의 정이라도 주겠다”는 송 보살의 말에 조경일로 거칠어진 손이 겹쳐진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은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 “아기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이웃종교의 기념일을 축하했다. 사진은 12월 20일 현수막을 걸기전에 조계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현수막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법장 스님, 크리스마스 축하메시지

2004년 예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12월 21일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법장 스님은 축하메시지에서 “예수님 탄생을 우리나라 2천만 불교도는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라며 “이번 성탄절에 우리 불교도는 생명의 평화와 화해가 충만해 지도록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온통 기쁨으로 넘쳐서 인류가 부둥켜안고 감동의 춤을 추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원합시다”라고 밝혔다.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도 21일 천주교대구교구청을 방문, 우정의 표시로 화분을 선물하고 예수님의 탄생 축하메시지를 이문희 대주교 등에게 전달했다.

이문희 대주교는 최영수 보좌주교 등과 함께 지성 스님을 반갑게 맞아 대구교구청의 이모저모를 소개한 후 저녁식사를 하며 환담을 나눴다. 지성 스님과 이문희 주교는 2002년부터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에 서로 방문, 종교화합을 담은 축하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다.

남동우 · 배지선 기자

포항 종교편향 사태 일단락

정장식 시장 “불자 · 시민들께 죄송”

포항 종편위가 ‘홀리클럽 해체’를 결정한 포항 개신교계의 뜻을 받아들임에 따라 정장식 포항시장의 종교편향 사태가 일단락됐다.

포항 종교편향대책위원회(이하 종편위)는 12월 2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 개신교계의 ‘기관장홀리클럽’ 해체가 국민전환용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일이라고 믿으며 지역사회와 종교화합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편위는 이어 “현재까지 정 시장의 사과에 부족한 점도 많지만 포항 개신교계에서 보여준 성의에 감사하는 뜻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 시장은 앞으로 오로지 52만 포항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서 일 해 줄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장식 시장도 이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자님들과 포항시민들께 죄송하며, 기관장 홀리클럽 해체를 대승적 입장에서 받아들인 것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편위는 또 그동안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서도 “불교계에서 물심양면의 피해가 적지 않으나 대자비 정신에 입각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취하할 뜻을 비쳤다.

종편위는 종교간 화합과 교류를 희망하는 뜻에서 ‘2005년 신년하례식’을 종교간 합동으로 개최할 것을 이웃종교계에 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종편위 공동위원장 법은 종문 스님 등은 정장식 시장과 사과와 화해의 악수를 했다. 종편위는 정시장 퇴진운동을 마감하고 공직자 종교편향을 감시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생명나눔 광주전남본부 독거노인 의료지원 나서

소아암 환우 투병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 스님, 이하 생명나눔)가 치매 독거노인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에 나섰다.

생명나눔은 12월 17일 화순 전남대 병원에서 ‘치매독거노인 의료지원을 위한 기금 지원식’을 갖고 지원금 1800만원을 전남대 치매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생명나눔이 모금한 투병지원 기금과 보성건설의 후원으로 조성됐다.

본부장 현장 스님은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급증하고있다”며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의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사업을 전남대 치매센터와 공동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명나눔은 2004년도 투병지원사업으로 6회에 거쳐 총 8200만원의 기금과 헌혈증서 3500매를 소아암, 간암환우와 치매독거노인 등 20여명에게 지원했다.

이준엽 기자

해인사, ‘가야산 환경백서’ 발간

법보종찰 해인사가 사찰환경보존과 수행환경보존을 위한 기본사업의 하나로 12월 20일 <가야산 환경백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가야산 환경백서>는 총 254페이지 분량. 해인사 교구환경위원회(위원장 종본)는 “가야산 해인골프장건설사업과 가야산국립공원 관통도로에 대한 환경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가야산을 지키고,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해 활동한 그간의 결과물들을 정리해 가야산 환경백서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가야산의 환경현황, 가야산 해인사 사찰환경의 현황과 관리, 전통사찰 해인사의 공익가치평가, 가야산 해인사 사찰환경 사례, 종합 평가 및 결론 등 총 5부분으로 구성돼 있는 가야산 환경백서는 해인사의 사찰환경에 대한 종합평가와 관리 지침, 가야산 환경관리를 위한 문제점과 제언들이 조목조목 기술돼 있다.

<가야산 환경백서>에 따르면 가야산 해인사의 환경관리를 위해 △체계적 불사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불사 시행시 환경성 검토 및 평가 △해인사 사찰환경 기본계획 및 해인사환경백서 마련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찰환경의제의 수립 및 실천 △지역단체 및 전문가 그룹의 활용 △사찰내부의 자율적 환경관리시스템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해인사는 12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형불사 논란을 빚고 있는 신행문화도량 건설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인사 불사 계획 수립과 설계를 담당했던 이상해 성균관대 교수와 건축가 조성룡 씨 등은 현대사회의 발달에 따른 대형 불사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하고, 신행문화도량은 최대한 효율적이고 환경을 고려해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형불사의 문제점을 제기한 김동현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주강현 문화재위원,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책실장 등은 단지 친환경적 설계와 기술을 통해 친환경적인 불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운영할 프로그램과 인력이 갖춰져야 대형불사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웅기 씨는 “이번 문제를 통해 불사에 대한 불교계 문화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신 · 배지선 기자

中 내년 3월 종교자유화

관련 조례 개정…포교·단체결성 등 허용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앞둔 중국 정부가 종교 자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11월 30일 중국 내 종교 활동에 관한 ‘제426조 종교사무조례’를 승인하고 2005년 3월 시행토록 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12월 18일 보도했다. 이번 조례는 중국 사회의 급격한 개방과 경제성장에 따라 새로운 종교적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지난 6년 동안 검토된 끝에 제정된 것이다.

이번 조례에 따라 종교모임들은 단체를 결성하고 포교행위를 하며, 종교 관련물의 출판 · 편집은 물론 종교 교육을 하는 등 사실상 종교에 대한 거의 완벽한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종교모임들은 자산 보호와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종교를 강요하거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 통합을 해치거나 종교간 화합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도교의 일종으로 출발한 법륜공은 사교로 규정 돼 활동에 더욱 큰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1994년 제정된 종교 활동 장소 관리 규정은 폐지되지만 외국인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정은 존속된다.

강유신 기자

한국불교 중흥의 門을 활짝 열어라!



▲ 조계사 중창불사 기본계획 조감도

조계사 중창불사 계획

힘들었던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듯이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도 새해부터는 한국불교 중흥의 희망찬 새 역사를 여는 조계사 중창불사를 시작합니다. 한국불교의 상징이자 근현대사의 역사적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 빌딩 숲 사이에 초라하게 자리잡고 있던 조계사. 이제 조계사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불자들에게, 또 서울시민들에게, 더 나아가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기위한 한 발자욱을 내 딛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우리의 자존심. 지금 한국불교의 모든 시선이 조계사로 모이고 있습니다!

1차 불사 : 현재 진행중인 대웅전 보수공사 완료
2차 불사 : 일주문불사 착공, 보제루 건립(신행 및 법회공간), 문화사업관 신축(전시,공연,문화시설) 극락전 해체 복원
3차 불사 : 종각 재정비, 인사동과 조계사를 잇는 보행중심의 동선확보, 종무소 및 신도회관 리모델링
4차 불사 : 만불보전 건립

불사동참안내 : 조계사 기도접수처 (Tel. 02-732-2115)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15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불교적 삶' 관심 집중

본지 선정 2004 10대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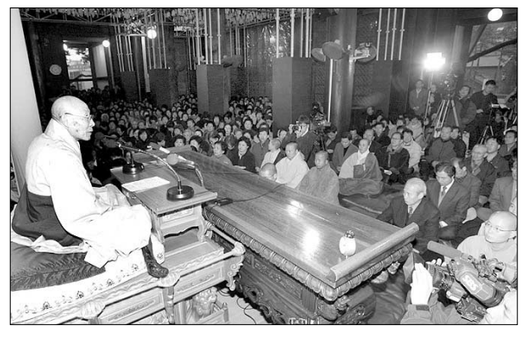
2004년 불교계는 조계사 와 현대불교가 공동 주최한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법회'를 시작으로 선수행 열풍에 휩싸였다. 수행과 교육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교를 바라보는 세인들의 시각이 달라졌다.

웰빙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신문과 방송마다 수행과 명상, 차문화, 템플스테이, 출가 등 불교적 삶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도 흥미롭다. 불황이 계속되면서 불교계 각종단과 단체들의 '나눔운동'도 활기를 띠었다. 오랜 진통 끝에 재가대중을 대표하는 조계종 통합 신도회가 탄생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 정장식 포항시장 등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편향된 종교의식은 종교간 화합을 바라는 국민들과 불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아쉬움을 남겼다.



동체대비 나눔운동 확산 올해 불교계 최대화두는 단연 나눔운동. 장기화된 경제침체와 불황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교계는 동체대비(同體大悲)사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온정의 손길을 펼치며, 자비실천인 '나눔'을 확산시켰다. 올 한해 괄목할만한 나눔운동에는 본지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전개한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과 조계종 '나눔의 하나되는 세상' 태고종 '1사찰 1선행하기 운동'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운동' 진각종 '행복 릴레이 만월회' 생명나눔실천회 '골수기증운동' 등이 계속됐다.



禪 수행 열풍 올해 한국불교계는 전국을 휘감은 '선바람'의 열기 속에 '전통선(禪)'의 진수를 맛보려는 불자들의 수행의지가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조계사에서 시작된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법회'를 필두로, 봉은사 '육조단경법회', 대구 동화사 '담선법회'를 비롯, 보문사, 불광사 등 각 사찰 마다 연중 끊이지 않고 선법회가 열려 '수행붐'을 일으켰다. 또 조계종의 간화선 수행지침서 · 교안 발간 준비, 태고총림의 간화선 중흥조 영정봉안 등 간화선 중흥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하게 진행됐다.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 복원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 복원은 분단이후 민족적 동질성 회복의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북 불교계는 1951년 한국전쟁 중 3층 석탑만을 남기고 모두 불타버린 신계사를 2007년까지 공동으로 복원하기로 하고 지난 2000년 남북간 첫 논의를 시작했다.

남측은 복원에 필요한 목제와 예산 등 85억원을 부담하고 북측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11월 20일, 만 4년 만에 대웅전을 낙성하는 감격을 맛보았다.



조계종 신도회 통합 1994년 창립된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기존의 전국신도회로 양분됐던 조계종 신도조직이 하나로 통합됐다. 5월 7일 조계사에서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는 통합대회를 갖고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로 공식출범했다. 체계적인 신도운동과 재가불자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에 따라 2003년 4월 통합 선언 이후 1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신도회 통합으로 늘 종단의 주변인이면서 객체였던 재가대중이 종헌에 명시된대로 사부대중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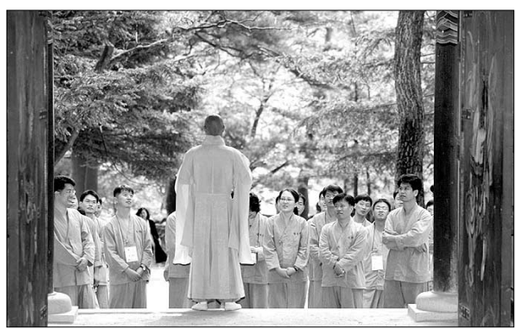


여성불자들 대규모 국제대회 국내외 여성불자들이 한데 모여 학술발표와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한바탕 축제의 장을 펼쳤다. 안양 한마음선원은 올 5월 '한국 비구니의 삶과 수행'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한국 비구니 승단의 역사적 의의와 활약상을 집중 조명했다.

6월에는 전국비구니회 주최로 세계 40여개국 여성불교 지도자들이 중앙승가대학교에 모여 '제8회 세계여성불자대회'를 치렀다. 이 행사는 최대 1500여명이 참가, 불교계 행사 가운데 가장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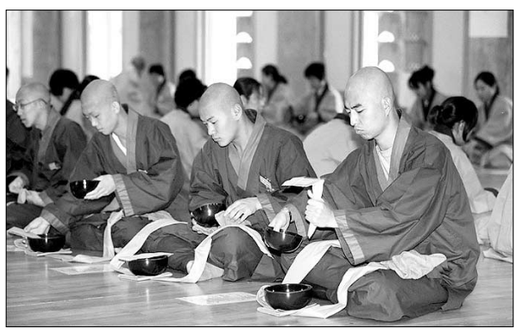


거센 웰빙 바람 올해 한국 최고의 키워드는 '웰빙(well-being · 참살이)'이었다. 물질로써 성장과 안락을 추구하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정신과 신체의 고른 건강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다. 정신의 풍요가 강조되면서 요가 · 명상이 확산됐고, 유기농 제품 · 천연 소재 물품들도 인기를 끌었다. 특히 불교식 삶이 웰빙의 '핵'으로 부각됨에 따라 참선열풍이 거세졌다. 그러나 웰빙이 외형에 집착한 채 상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에는 '웰빙의 정신과 철학을 고민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템플스테이 각계각층서 호응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템플스테이가 기업연수, 대학 정규과목 개설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활짝 꽃을 피웠다. 기업체 연수에서부터 수험생을 위한 템플스테이까지 그 주제와 테마도 다양해졌다.

중앙대 한신대 한국전통문화학교 등은 템플스테이를 정식학점 인정과목의 하나로 개설했다. 문화재청은 직원연수와 통도사 템플스테이로, 구미공단 외국기업CEO 투자설명회를 비롯, 공무원, 기업, 학생, 외국인 등 각계각층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인기 폭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한 달 동안 출가자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해 신행의 새 지표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기출가학교 참가자들은 한 달 동안 1080배, 삭발식, 철야 3000배 용맹정진, 조석예불 등을 통해 정식 출가 못지않은 치열한 구도의 열정을 보였다. 특히 MBC는 창사특집 단기출가학교 1기생들의 사연과 수행모습을 담은 2부작다큐멘터리 '출가'를 방영해 일반인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로 인해 3기 생 모집에 3백여 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 주위를 놀라게 했다.



불교출판문화협회 재창립 장기화된 경제 불황과 출판시장 침체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있던 불교출판사들이 불교 출판문화 진흥과 문서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장경각 대표)'를 발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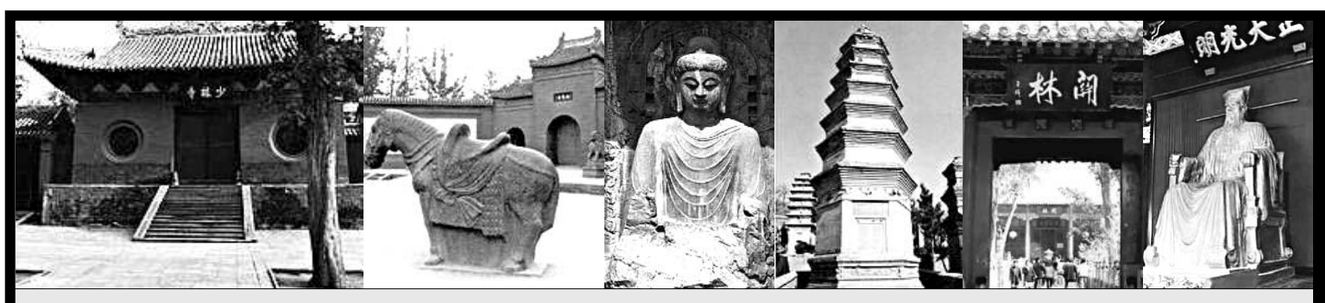
불교출판문화협회는 90년대 초 발족했던 불교출판협의회가 확대, 재편된 것으로 불교계 18개 출판사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사찰에 도서관 마련, 불교 전문필자 공동 개발 및 활용, 공동 유통망 설립, 책읽기 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불교계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다.



기관장 종교편향 발언 물의 이명박 서울시장이 5월 한 개신교 종교대회에서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이웃종교인들의 분노를 산데 이어, 정장식 포항시장은 5월말 '포항성시화' '시 예산 1% 선교사용' 등 의사를 밝혀 물의를 빚었다. 이밖에 목포 시장 등 곳곳에서 기관장들의 종교편향적 행태는 끊이지 않았다.

끝내 12월 15일 종교편향에 분노한 포항 · 경북지역 불자 3만여 명이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기관장 홀리클럽이 해체되고 정장식 시장은 불교계에 사과하면서 기관장들의 종교편향적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중국 하남성 불교사찰 전세기 투어

최초부터 최고의 사찰을 한번에 만날수 있는 기회

● 출발일: 2005년 2월 9일 (4박 5일 투어) ● 요 금 : 599,000원

최고의 소림사 최초의 백마사 중국 3대석굴 용문석굴 포청천의 개봉부 관우의 관림 등

공항세, 출국세, 전쟁보험금 포함 비자수수료 및 가이드 팁 별도

● 주요명소 : 달마대사가 설립한 소림사 / 중국최초 불교사찰 백마사 / 중국 3대석굴 용문석굴 / 판관 포청천의 개봉부 / 삼국지 관우의 묘지 탑림

● 비자 신청 서류
여권 카피 1부 팩스 송부
(유효기간 : 6개월 이상)

◈ 일 정 표 ◈

DATE	CITY	TRANSIT	TIME	LOCAL SERVICE	MEALS
2월 9일	인천 정주	전세기 CZ8090	22/50 23/50	전세기로 서울 출발 / 정주 도착 후 호텔휴식	
				호텔 : 정주 홍산호 호텔(4성급) 또는 동급	
2월 10일	정주 등봉 낙양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등봉. 달마대사가 설립한 소림사, 역대 고승의 부도인 탑림, 소림사 무술 시범단 무술시범 관광, 현지 중식 후 중국 최초의 불교사찰 백마사 관광. 낙양에 도착 후 석식 및 호텔 휴식.	조식 중식 석식
				호텔 : 낙양 모란성 호텔(4성급) 또는 동급	
2월 11일	낙양 정주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중국 3대 석굴인 용문석굴, 백원 관광. 현지 석식 후 삼국지 관우의 묘지인 관림 관광. 개봉으로 향발. 석식 및 호텔 휴식.	조식 중식 석식
				호텔 : 개봉 옥상 호텔 (4성급) 또는 동급	
2월 12일	정주 개봉 정주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명대, 청대에 남방 귀족상인들이 모임을 가졌던 산섬간회관, 포청천의 관저 포공사 관광. 현지 중식 후 판관 포청천의 개봉부, 철탑공원 관광. 정주로 향발 석식 및 호텔 휴식.	조식 중식 석식
				호텔 : 정주 홍산호 호텔(4성급) 또는 동급	
2월 13일	정주 인천	전세기 CZ8089	19/00 21/50	호텔 조식 후 하남성 박물관, 황하 유람구 관광. 현지 중식 후 대하촌 유적 관광. 전세기로 귀국.	조식 중식

MEETING	○	SENDING	○	GUIDE FEE	○	AIRPORT	○	SIGHTSEEING	○
REMARK	불포함사항 : 기사와 가이드 팁, 비자수수료 포함사항 : 현지 가이드, 차량, 식사, 호텔(2인 1실), 입장료, 인천공항세, 전쟁보험금, 출국세 (전체비용 포함) 전세기 인 관계로 출,도착 시간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신청마감 : 2005년1월 24일 ◈계 약 금 : 150,000원 ◈비자수수료 : 18,000원

◈연 락 처 : (주)격린여행사 TEL 02)332-4522, 8922
FAX 02)337-3231, 3858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20억여원 적립

내년 스님 노후복지사업 본격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가운데)이 4월 23일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동참차 종신보험 가입서명을 하고 있다. 왼쪽은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본부장 보정 스님(조계종 재무부장).

조계종은 지난 3월 초 스님 노후복지 및 불교 사회단체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2월 10일 현재 190여개 사찰 및 단체와 490여명의 스님 및 신도님들의 동참으로 총 586건의 자동차 · 화재 · 생명보험 보시계약이 체결돼 20억 9500만원의 보시보험 약정금액이 적립됐습니다. 조계종은 불기 2549년 예산에 스님노후복지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스님 노후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가입 동시 재보시되는 생활보시운동

■ 자비의 보험금 나눔 운동이란?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은 스님들의 복지향상과 불교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생활 보시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스님복지 지원과 불교사회복지 지원으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연인원 1,000여명의 조계종 원로 스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법당과 상담실이 마련된 노스님 수행관을 준비할 것입니다. 조계종의 사회복지 지원제도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봉사 참여 불자 양성이 그 목적입니다.

수행 · 포교 전념 풍토조성은 종단 숙원

■ 추진배경

스님노후복지는 종단의 안정과 스님들께서 안심하고 수행과 포교에 전념을 다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시대적 사명입니다. 조계종은 승려노후복지 기금 조성과 불교사회복지 기금 조성을 중점 종책과제로 선정하고 종단내 자체적인 승려노후복지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참여운동으로 포교 활성화 목적

■ 추진목적

첫째,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은 재보시 실천 운동입니다. 보시금은 승려노후복지 · 불교사회복지 지원 기금으로 활용됩니다.
둘째,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은 종단차원의 새로운 참여 포교 운동입니다. 불교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을 일회성 보시가 아닌 중장기적인 재보시 실천 운동인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에 동참시키고 불교사회복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포교 활성화 방안입니다.

190여 사찰및 단체 · 490여명 동참

■ 동참현황

올해는 본격적인 동참 활동보다 본 운동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주력했으나 그 동안 190여개 사찰 및 단체와 490여명의 스님 및 신도님들의 동참으로 총 586건의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 및 생명보험 보시계약이 체결돼 20억 9500만원의 보시보험 약정금액이 적립됐습니다.

■ 동참방법

첫째, 손해보험 가입을 통한 동참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 화재보험 만기시 별도의 추가 부담 없이 주관사인 **(주)케이비엘피를 통해 가입**하면 됩니다. **둘째, 생명보험금보시 운동을 통한 동참**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 시점에서 보험수익자를 사찰, 복지단체 등으로 직접 지정해 생명보험금 전부 · 일부를 보시하시면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보시운동

■ 보험으로 나눔운동 하는 이유

첫째, 보험은 많은 불자님들을 본 나눔운동에 동참시키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입보험을, 가입 희망 보험회사에 가입 가능합니다. 둘째, 보험은 작은 보시로 큰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매월 2만원씩 현금으로 10년간 보시하면 240만원이지만, 자비보시보험을 가입하면 생명보험금 1천만원 보시가 가능합니다. 셋째, 보험금 나눔운동은 가장 투명한 선진 기부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보험 계약시에 사찰이나 단체를 직접 지정하고 중도변경 가능합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의보험금나눔운동본부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본부 TEL (02)2011-1750 FAX (02)733-8536 www.buddhism.or.kr
후원 :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주간불교신문사, 대한불교신문사, BBS, btn
주관 : (주)케이비엘피 TEL (02)733-5780 FAX (02)733-5785 나눔운동 홈페이지 www.i-nanum.co.kr

〈법공양〉

장애없는 사찰 문턱 신심 두배

통영 미래사 장애인 화장실 · 휠체어 진입로 불사

통영 미래사(주지 여진)가 장애인용 화장실과 법당까지 연결되는 휠체어 진입로를 조성하며 장애인들에게 사찰의 문턱을 없앴다.

미래사는 12월 1일 장애인 편의시설 불사에 들어가 22일 화장실 출입로 공사와 법당 진입로 보완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법당 앞을 가로막는 계단, 불편한 화장실 때문에 절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장애인들에겐 더할 수 없는 희소식. 장애인들은 미래사를 방문, 화장실을 사용해보거나 계단 대신 설치된 경사로를 따라 법당 참배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통영 미래사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휠체어를 타고 법당에 참배할 수 있도록 경사 진입로를 설치했다. 작은 사진은 장애인을 배려한 화장실로 냉난방과 비상벨이 마련돼 있다. 사진=천미희 기자

냉난방 · 비상벨 등 마련 법당 참배 즐거움 배가

미래사 주지 여진 스님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1차 공사 직후, 장애인들이 실제로 화장실과 진입로를 이용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 재공사를 했다. 휠체어 진입로는 잔디 대신, 바퀴가 잘 굴러가는 대리석 재질로 교체됐고,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두꺼운 석재를 골라 사용했다.

휠체어를 탄 채 출입이 가능한 화장실은 냉난방 시설은 물론,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벨, 샤워시설까지 갖췄다. 법당 바로 앞까지 연결된 휠체어 진입로는 장애인들에게 법당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

계단 대신 설치된 경사로를 반기는 이들이 장애인만은 아니다. 관절통으로 계단이 두려운 노보살들이나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젊은 보살들에게도 인기다. 또한 미래사 대중들에게는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생의 도리를 체득하는 장이 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진주 경상대학 병원 법당에서 병고로 고통 받은 이들과 15년 이상 동고동락했던 여진 스님의 이력에서 비롯된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병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한 스님이 주지로 있는 절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네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장애우가 무심히 던진 말이 스님의 결심을 도왔다.

스님은 "미래사 화장실이나 휠체어 진입로는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장애인용 차량을 운행, 더 많은 장애인들이 사찰을 찾을 수 있길 서원하고 있다. (055)645-5324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 삼광사는 동지 전날인 12월 20일, 4만명 분량의 팥죽을 끓여 불자들과 시민들에게 공양했다.

삼광사 4만여명에 동지팥죽 공양

'2005 APEC 성공기원 예술제'

일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지를 하루 앞둔 동지 전야인 12월 20일 삼광사(주지 도원) 지관전에서는 '2005 APEC 성공 기원 삼광사 동지 예술제'의 막이 올랐다. 동지 팥죽을 먹으며 액운을 멸하고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동지의 의미를 되새기며 열린 이날 예술제는 국악, 성악, 트럼펫, 색소폰, 원향북춤 등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교육감 등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예술제에서 운덕 스님은 "모든 이들의 마음이 맑고 아름답게 정화된다면 APEC 성공개최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광사는 4만 명 분량의 팥죽을 대형 가마솥에서 끓여 동지예술제에 참가한 귀빈과 불자들에게 공양했다.

천미희 기자

"무념처에서도 후학들 인도해 주길 …"

월하 스님 입적 1주기 추모법회



부도원에서 열린 월하 스님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하고 있는 장면, 대중들이 합장한 채 지켜보고 있다.

통도사, 20일 부도탑 제막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12월 20일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1주기를 맞아 추모법회, 부도탑 제막식,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월하 스님의 가르침을 기렸다.

20일 설법전에서 봉행된 추모법회는 원로의원 성수, 동춘 스님을 비롯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문도대표 초우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종 5타로 시작됐다.

통도사 선다회와 문도대표 초우 스님의 헌다와 대중 삼배, 추모 입정, 지안 스님의 행장 소개에 이어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법장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일년이 지났지만 곁에 계신 것처럼 그리움과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적정열반의 무념처에서도 대종사님의 크신 덕화와 자비로움으로 저희 후학들을 인도해 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추모법회에 이어 부도원에서 열린 월하 스님 부도탑 제막식은 제막, 조성경과 보고, 주지 현문 스님의 인사말 순서로 진행됐다. 월하 스님의 부도탑은 화강석 재질로 탑신의 사천왕입상의 밑그림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인 단청장 석정 스님이 그렸으며 최하부인 지대석이 정사각형인 것과 최상부 보주가 원형인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팔각으로 조성된 팔각당형이다.

이에 앞선 19일 설법전에서는 '통도사 현대 고승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통도사를 거쳐 간 현대의 대표적 스승 구하, 경봉, 월하 스님을 재조명하는 첫 학술 세미나가 개최됐다.

현문 스님은 세미나에 앞서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도사 현대 고승과 선대 고승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그분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학술적으로 평가 조명함으로써 불조의 혜명을 잇는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동민 수원시 전문위원이 '근대시기 통도사의 변화와 김구하 스님의 활동'이라는 주제발표를 했고, 한형조 박사의 '경봉 스님의 법문과 선풍' 김광식 교수의 '월하 스님의 불교정화운동'이라는 주제발표가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천미희 기자

눈높이 교과 과정 강화

대한불교교사대학 수강생 모집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를 양성하는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의 교과과정이 확 달라진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특수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국내 불교대학기관 제1호인 대한불교교사대학은 어린이 법회에 직접 활용되는 교수 방법, 현장 학습, 실습 등의 기본에 레크리에이션, 구연 동화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켰다. (051)852-0852, www.kbtc.or.kr

천미희 기자

동화사 한 · 몽교류협 설립 신청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한국과 몽골간의 교류가 좀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정비에 나섰다.

동화사는 12월 17일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을 법인 대표로 하는 '사단법인 한.몽 불교 교류협회' 설립 허가 신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달 이사회 때 의결된 사항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동화사는 법인 허가가 날 경우, 다음달 중 사단법인 설립 축하법회를 봉행한 뒤 몽골 불교계와의 교류협력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각원복지재단 독거노인 지원

각원복지재단 바라밀(가칭)은 12월 21일 진북면 독거 노인세대와 지산 동촌 경로당, 이목리 마을회관에 동지 팥죽, 쌀, 밑반찬 등을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각원복지재단 바라밀은 무의탁 장애 노인요양소, 재가 노인복지센터 설치를 목표로 설립 준비 중인 복지 단체로 21일 행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셈이다.

현재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원복지재단 바라밀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광도 스님은 신촌리 각원사 경내 부지에 3층의 목조 신축 건물을 조성중이다. 또한 진북면 소재 기관장, 종교, 사회단체 인사로 구성된 '진북면 복지패밀리협의회' 회장으로 지역 사회복지활동과 지역의 복지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광도 스님은 "동지의 팥죽 공양을 시작으로 지역 내 어려운 세대에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펼치고 독거 어르신들에게는 쌀, 밑반찬, 생필품 등을 정성껏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천미희 기자

대불어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2일 동안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제38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정여 스님, 前 대불어 회장 덕진 스님, 좋은 벗 풍경소리 회장 성행 스님을 비롯, 운문사와 동학사 학인스님, 전국 어린이법회 지도 교사 18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회에서는 어린이 지도자상 시상식이 함께 열려 마산 정인사 곽인철 지도자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진 연수회에서는 사찰예절과 찬불가, 율동 등 기본 프로그램 외에도 구연동화, 레크리에이션를 비롯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과학놀이 등의 내용들이 교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천미희 기자

청도 적천사 화재, 요사채 전소

12월 20일 밤 8시 50분경 전통사찰인 경북 청도군 적천사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대웅전 옆 10여평 규모의 요사채 1채를 완전히 태우고 두시간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적천사에는 스님과 신도 60여명이 동지 법회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또 신도들의 힘으로 소방차 3대가 2.5Km가 넘는 산길을 올라올 동안 대웅전과 산으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요사채 천정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전기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청도 적천사는 신라시대 원효 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천연기념물 은행나무가 유명하다. 배지선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얼골' 발간

"형, 누나들과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욕심도 부리고 인사도 못해서 미안해. 퀴즈도 하고 과자도 먹고 같이 놀고 참 재미있었어. 사랑해.(연꽃마을 정훈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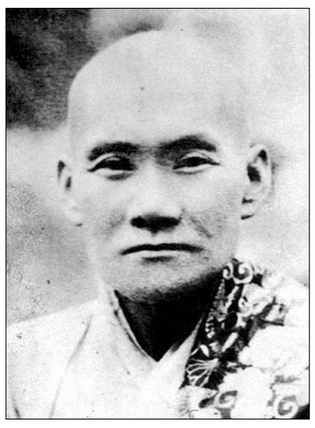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 11대 학생회(회장 황의모)가 지난 1년간 활동상을 담은 회지 <얼골>을 발간해 대구 경북지역 사찰에 전달하고 그동안 활동을 도와준데 대한 감사함을 표했다.

34페이지 분량의 회지 <얼골>은 불교문화대학생회가 지난 여름 연꽃마을 어린이들을 초청한 2박3일간의 연꽃마을 여름캠프를 마치고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 엮은 것.

불교문화대 학생회는 '얼골'을 통해 불교문화대의 여러 학과를 소개하고 봉축주간 행사 '보시는 향기를 남기고', 연꽃마을 어린이 초청 여름캠프, 불대인 한마당, 백상체전 등 1년간 학생들의 활동과 느꼈던 단상들을 사진과 함께 정리했다. 배지선 기자

한암 스님 사상 조명한다

월정사, 내년 10월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한암 스님(사진) 생애와 사상을 집중 조명하는 세미나를 내년 가을에 개최한다.

월정사 교구종회는 12월 14~5일 덕구온천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정기종회에서 2005년 주요 사업으로 '한암대종사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0월 경 열릴 학술세미나에서는 국내 학자 뿐 아니라 외국 학자들이 한암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집중 조명해 우리시대의 바람직한 수행자상이란 무엇인가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월정사측은 한암 스님과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중이다. 한암 스님은 이야기 남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일발록(一鉢錄)〉한 권을 남겼는데 그마저 1947년 봄, 상원사에 불이 났을 때 타고 말았다. 이 후 95년 당시 월정사 주지 현해 스님이 문도들의 뜻을 모아 〈한암일발록(漢岩一鉢錄)〉을 간행하기도 했다.

월정사는 이 외에도 화천군과 함께 한암 스님 생가복원 및 기념관을 조성한다. 화천군은 지난 9월 기본설계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2008년까지 총 94억원을 투입,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586번지 일대 외 4개 지역에 한암 스님 생가 및 기념관, 수련관, 계성사지 복원 사업

생가복원 및 기념관 조성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암 스님 재조명 작업은 월정사와 한암문도회, 한암사상선양회(가칭)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월정사 박재현 기획차장은 "한암 스님은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승가 5칙'을 제정하는 등 근세 한국불교 최고의 선승이었다"며 "우리시대의 바른 승가상을 찾기 위해 한암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한다"고 밝혔다.

경허 · 만공 · 수월 스님과 함께 근세에 선풍을 중흥시켰던 한암당 중원(漢岩堂 重遠) 대종사는 현 조계종 전신인 조선불교 조계종 1대 종정 등을 역임하고 한국전쟁 때 온몸으로 상원사를 지켜내는 등 수행자의 귀감이 되다 1951년 좌탈(坐脫)에 들었다.

남동우 기자

성금모아 불우이웃에 쌀 전달



옥천 종합상가 지역에서 탁발을 하고 있는 옥천사암련 스님들.

충북 옥천사암연합회(회장 지원)는 연말 연시를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자는 취지로 12월 20일 옥천읍을 돌며 '자비의 탁발' 행사를 봉행했다.

옥천사암련 '자비의탁발' 행사

옥천군청에서 출발해 종합상가-옥천역-옥천경찰서-옥천읍사무소까지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옥천사암련 회장 지원 스님(대림선원 주지)과 부회장 명안 스님(대약사사 주지)을 비롯해 총무 혜철 스님(대성사 주지) · 재무 우담 스님(혜안사 주지) · 감사 의당 정사(도탑심인당) 등 사암련 집행부와 지역 사찰 주지 14명이 동참했다.

옥천사암련은 이날 행사를 통해 모금한 328만원으로 쌀을 사서 27일 옥천군에 전달했다. 옥천사암련은 4년 전부터 해마다 자비의 탁발 행사를 봉행해왔다. 한명우 기자

부처님같이 지역민 대하길…

광주시청불자회 창립 1주년

광주시청불자회(회장 이호준)는 12월 18일 창립1주년을 맞아 시청 회의실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대종사 천운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광주사암연합회장 혜향 스님을 비롯한 지역 사암스님과 박광태 광주시장, 불자회원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이호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자회가 창립하고 청사를 옮기는 바쁜 일정에서도 공부를 꾸준히 이어와 회원들이 많이 늘어났다"며 "각 구청 불자회의 창립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합창단이 특별출연해 음성공양을 펼쳤다.

한편 시청불자회는 이달부터 3개월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세미나실에서 기초교리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전등사 해넘이·신년맞이 행사

강화 전등사(주지 계성)는 12월 31일 해넘이 행사 및 신년맞이 타종식 행사를 개최한다.

저녁 9시 법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이날 행사는 L.M.B 합창단, 국악인, 인기가수 등이 참석해 공연 한마당을 펼친다.

이어 자정에는 계성 스님, 각급 기관장, 학생 대표,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제야의 종 타종식을 갖는다. 계성 스님은 "하루를 한 해처럼, 한 해를 하루처럼 변함없이 가꾸어 가는 마음을 갖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032)937-0125

한명우 기자

강화 선원사 스케이트장 개장

팔만대장경 판각성지인 인천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가 조만간 썰매 · 스케이트장을 개장한다.

성탄절을 기념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개설되는 썰매 · 스케이트장은 5천여 평 규모의 선원사 연꽃연못에 마련된다.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은 "겨울철에 연꽃연못을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다가 청소년들을 위한 썰매 · 스케이트장을 생각하게 됐다"며 "현재 연꽃연못에 물을 대놓았기 때문에 얼음이 어는 대로 곧 개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032)933-8234

한명우 기자

'원효' 촬영장 법주사 인근에

보은군은 법주사에서 500m 가량 떨어진 내속리면 사내리 청소년야영장에 영화 '원효대사' 세트장을 조성키로 영화제작사인 (주)더존필름과 구두합의하고 이달 중 계약서를 작성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원효대사의 일대기를 그리게 되는 이 영화는 내년 3월 촬영에 들어가 2006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해 개봉할 예정이며, 총제작비 85억원이 투입된다.

법주사를 비롯한 보은군 사찰들은 영화 촬영장이 조성되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침체된 지역불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대동' 광주공장 준공법회

불자기업인 유한회사 대동(회장 노주하) 광주공장 준공을 기념하는 법회가 12월 17일 광주 하남공단 현지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스님, 광주사암연 회장 혜향 스님을 비롯한 지역사암 스님들과 공장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광주공장의 발전을 기원했다.

법회에서 천운 스님은 "모든 직원이 마음을 합해 정진해 나가면 다른 기업의 귀감이 되는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다"며 "대동 광주공장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공주 영평사

문화포교 · 신행활성화 앞장



지난 10월 영평사에서 열린 청소년 세시풍속 놀이마당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새끼를 꼬며 즐거워하고 있다.

겨울 영평사는 한가롭다. 넓은 대웅전 앞마당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하다. 대웅전 옆의 거대한 아미타불은 부드러운 미소로 세상을 내려다본다. 끊임없이 이어지던 사람들의 발길은 이맘때면 겨울잠을 잔다. 세상사를 모두 잊을만한 여유로움. 영평사의 겨울은 그렇게 또 다른 '맛'이 있다.

영평사는 구절초 축제로 유명하다. 매년 10월 한 달간은 연인원 3~4만명이 영평사를 찾는다. 산사음악회와 각종 예술품 전시회 및 시낭송회가 구절초와 어우러져 한바탕 신명나는 잔치가 벌어진다.

소년문화의 집에서는 다도, 서예, 예절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 정도면 전국 최고의 '문화도량'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총신도회인 '영평공덕회' 아래 염불수행을 하는 백련회, 자원봉사단, 장학회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영평식품'은 영평사만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사찰의 경제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영평식품은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장류와 죽염 등 토종식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단오제 · 구절초 축제 등 사시사철 잔치 한마당

최근 영평불교대학 개설, 신도 수준 업그레이드

물론 가을에만 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봄에는 진달래 철쭉 금낭화 제비꽃 등이 영평사를 수놓고, 여름에는 옥잠화 수국 백련 등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청량하게 해준다. 겨울만 빼면 영평사는 늘 꽃동산이다.

가지가지 꽃만큼이나 다양한 행사도 많다. 템플스테이는 사시사철 계속된다. 음력 5월 단오절에는 창포물에 머리감기, 떡치기 등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단오제를 개최한다. 여름에는 어린이 불교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강탐사가 열린다. 구절초 축제가 열리는 10월에는 공주시민, 학생, 교사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세시풍속 놀이마당도 펼쳐진다. 이밖에도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이 운영하는 청

12월 초에는 영평불교대학을 개설하고 신행활성화에 나섰다. 봉사활동, 수행을 위주로 한 교육을 통해 신도들의 수준과 신심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영평사 인근 땅 한 평 사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근래 들어 대웅전 뒷산의 소유주가 나무를 베는 등 사찰환경을 훼손하자 신도회에서 이를 막기 위해 시작한 일이다.

주지 환성 스님은 불교대학 강의를 직접 하면서 내년 한 해 계획을 세우느라 올 겨울도 바쁘다. 영원히 평화롭다는 의미의 영평사(永平寺). 모든 이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영평사는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다. (041)857-1854 글 · 사진/공주=한명우 기자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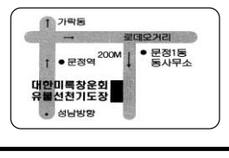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나눔 저금통 · 스티커 신청자

●경기도 안양시 한마음선원 본원(저금통- 600개 스티커- 700장) ●경기도 가평군 은해사(저금통- 5개 스티커- 10장)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보현정사(저금통- 100개 스티커- 100장) ●충북 청주시 수곡동 관음손(저금통- 100개 스티커- 100장) ●충북 음성군 금왕읍 광명선원(저금통- 50개 스티커- 100장)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한마음선원(저금통- 20개 스티커- 100장)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한마음선원(저금통- 50개 스티커- 100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한마음선원(저금통- 50개 스티커- 100장) ●경남 통영시 도천동 한마음선원(저금통-100개 스티커-100장)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한마음선원(저금통- 30개 스티커- 100장) ●충남 공주시 유구읍 약천사(저금통- 5개 스티커- 10장) ●청주시 영동 한마음선원(저금통-30개 스티커-100장) ●서울시 홍은3동 길상사(저금통-30개 스티커- 50장)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토지음식점(저금통- 10개 스티커- 10장) ●경남 창원시 중앙동 친구노래방(저금통- 10개 스티커-20장) ●경기도 광명시 소하2동 동아콘센트(저금통-10개 스티커-30장)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3동 반여3동 어린이집 (저금통- 330개 스티커 - 300장) ●부산시 동구 범일 2동 현대불교 부산지사(저금통-170개 스티커- 200장) ●경북 영주시 휴천1동 현대불교 영주지국(저금통-50개 스티커-100개) ●전북 전주시 진북1동 현대불교사(저금통- 20개 스티커-50개) ●광주시 서구 치평동 현대불교 광주지사(저금통- 250개 스티커- 100개)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마음선원(저금통- 250개 스티커- 200장) ●전남 목포시 한마음선원(저금통-50개 스티커-30장) ●충북 청주시 용담동 광덕사(저금통- 20개 스티커- 50개) ●대구시 수성구 중동 현대불교 대구지사(저금통-100개 스티커- 100개) ●경남 진해시 충무동 현대불교 경남동부지사 (저금통- 20개 스티커- 50개) ●울산광역시 천곡동 한마음선원(저금통- 200개 스티커- 200장) ●경남 밀양시 용정사(저금통- 20개 스티커- 50장) ●대전시 갈마1동 현대불교 대전지사(저금통-20개 스티커-50장) ●인천시 문학동 수미정사(저금통- 100개 스티커- 200장) ●강원도 삼척시 조개사(저금통- 50개 스티커- 100장) ●충남 공주시 법륜사(저금통- 50개 스티커- 50장) ●경기도 성남시 혜성 스님 (저금통- 5개 스티커- 10장) ●인천시 산곡2동 무념회(저금통- 30개 스티커- 30장) ●경기도 가평군 은혜사 (저금통- 10개 스티커- 10장)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손혜숙(저금통- 5개 스티커- 10장) ●충남 천안시 백석동 백석주공열쇠(저금통- 5개 스티커- 10장) ●서울 생명나눔실천회(저금통- 20개 스티커- 50장) ●서울 후암동 대원정사 (저금통-100개 스티커 100장) ●서울 남창동 올림피아스포츠건강식품(저금통- 10개 스티커- 20장) ●경기도 남양주시 극락사(저금통-30개 스티커-100장) ●충북 청원군 탄공정사(저금통- 50개 스티커- 50장) ●경북 경산시 법성사(저금통-10개 스티커 -20장) ●충남 보령시 투다리 이수현(저금통-10개 스티커- 10장) ●경기도 용인시 성지관음회(저금통- 50개 스티커- 100장) ●경기도 안성시 금정사(스티커- 200장) ●경기도 광주시 장심사 (스티커- 50장) ●충북 단양군 연화사(스티커- 200장) ●충북 음성군 법화사(스티커- 100장) ●경기도 수원시 선만암(스티커- 15장) ●인천시 학익1동 김연숙(스티커 100장)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청담정보통신고(저금통-30개 스티커- 50장) ●경북 경산시 와촌면 법성사 주지 선덕 스님(저금통-20개 스티커 -30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김종환(스티커 10장) ●서울 노원구 월계동 나상호(스티커 20장) ●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성지민(스티커- 20장) ●서울 양평구 신월동 용기사(저금통- 200개 스티커- 200장) ●경남 사천시 축동면 법륜사(저금통- 10개 스티커- 200장) ●경기도 용인시 남동 용담사 선재어린이(저금통- 140개 스티커- 200장) ●충남 천안시 성정1동 부루나 데이케어 어린이집(저금통- 90개 스티커- 100장)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정순(저금통- 10개스티커- 20장) ●대전시 용운동 박동렬씨(저금통- 10개 스티커- 10장) ●대전시 유성구 추곡동 국군군의학교 충의사(저금통- 10개 스티커- 500장) ●충남 공주시 노종윤(스티커- 50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동 반야사포교원(저금통- 150개 스티커- 150장) ●경남 거창읍 이옥희(저금통- 10개 스티커- 10장) ●서울 광진구 중곡 3동 샛별어린이집(저금통- 120개 스티커- 120장)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신일미용실(저금통- 5개) ●충북 충주시 교현1동 정명석(스티커- 10장) ●전남 순천시 서면 송암사(스티커- 100장)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옛날어씨네(저금통- 5개 스티커- 50장) ●경남 밀양시 내2동 해인불교사(저금통- 5개 스티커- 50장) ●인천시 학일1동 김영주(저금통- 5개 스티커- 5장) ●서울 관악구 봉천6동 우선주(저금통- 10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정광희(저금통- 15개 스티커- 15장) ●경북 포항시 동빈2가동 이화불교용품(저금통- 20개 스티커- 50장) ●부산시 북구 구포3동 문수선원(저금통-5개 스티커- 10장)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정성환(스티커- 50장) ● 김원우 (저금통-20개 스티커- 100장) ●남동우 (저금통-20개 스티커- 100장) ●박봉영 (저금통-30개 스티커- 100장) ●권형진 (저금통-15개 스티커- 100장) ●김철우 (저금통-30개 스티커- 100장) ●김은경 (저금통-15개 스티커- 100장) ●오유진 (저금통-15개 스티커- 100장) ●김재경 (저금통-20개 스티커- 100장) ●김주일 (저금통-15개 스티커- 100장) ●김두식 (저금통-15개 스티커- 100장) ●여수령 (저금통-20개 스티커- 100장) ●강신재 (저금통- 15개 스티커- 100장) ●한상희 (저금통- 15개 스티커- 100장) ●케이비엘피 (저금통- 30개 스티커- 100장) ●부다피아 (저금통- 60개 스티커- 100장) ●김현철 (저금통- 15개 스티커- 100장) ●최정근 (저금통- 15개 스티커- 100장) ●이동격 (저금통- 20개 스티커- 100장) ●김정태 (저금통- 15개 스티커-100장) ●홍영승 (저금통- 15개 스티커- 100장) ●이승철 (저금통- 15개 스티커- 100장) ●천미희 김종렬 (저금통- 120개 스티커- 100장) ●이준엽 (저금통- 60개 스티커-100장) ●배지선 (저금통- 120개 스티커- 100장) ●본지 신규 구독신청자 및 구독 확장 대상자(스티커- 5만여장) ●본지 주최 행사용(스티커- 1만여장) ●본지 11개 지사(스티커- 1천여장) ●전남 여수시 둔덕동 여수청년회 한경규(저금통- 50개 스티커- 50장)

'나눔 가게' 참가 업소

●서울 청량리 사거리 남녕약국 ●공평동 전통찻집 솔밭 ●견지동 불교용품점 길상원 ●견지동 가사야 승복점 ●충정로 음식점 우물뚝배기 ●견지동 수정 한정식점 ●청진동 그린포토 사진관 ●성내동 소중한이 치과 ●인사동 각종 보험문의 (주)케이비엘피 ●논현동 신장치료전문 제일침 한의원 ●견지동 식료품 판매 길광상회 ●상일동 DM발송 지산기획 ●청진동 중화요리 대성각 ●견지동 목조각 전시관 대불광 ●부산 범일동 여성양장지 전문도매상 대양상회 ●온천1동 약품 조제판매 럭키약국 ●광주 방림동 여성전문 병의원 그린산부인과 ●계림동 불교서적 전문 불교서원 ●대구 백안동 음식점 백산가든 ●전주 효자동 각종 볼서 도소매점 책읽는 마을 ●팔복동 각종귀금속 판매 팔복금방 ●창원 중앙동 평화상가 친구노래방 ●용인 기흥읍 부부 한의원 ●의정부 호원동 회룡한의원 ●고양 주엽동 차수권 바둑도장 ●주엽동 연세소아과 ●충남 보령시 동대동 꼬치음식점 투다리 ●강릉 금학동 골프의류 도소매 임페리얼 강릉점 **(총 31곳)**

'나눔 성금' 보내주신 분

●부산 이제권- 5만원 ●광주 김명자- 10만원 ●홍성 이정화- 5천원 ●최재순- 3만원 ●김청룡- 1120원 ●한마음선원 중부 경남지원- 1백5만 6120원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1차접수- 52만150원 ●변복희, 최철환, 홍제길, 오병희, 이필자, 이갑희, 조용준, 임영자, 김증여, 김두식, 박연향, 우병례, 김계임, 이봉순, 신정자, 김차해, 전우증,길상원, 회룡한의원 이상- 31만 3200원 ●이순자- 3천원 ●한경복- 10만원 ●광주직할시 한마음선원 신도일동- 2백52만1250원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장지원 보살- 22만원 ●대구 정안농산 3만6천원 ●부산 이제권 5만원 ●서울 임채양- 1280원 ●천안 윤석길- 2만7130원 ●남양주시 화도읍 극락사- 22만원 ●천안시 백석동 백석주공열쇠- 2만7130원 ●최재순 - 3만원 ●서울 서대문 길상사- 5만2520원 ●대구 한마음선원- 44만 8330원 ●박연향, 우병례, 김계임, 이봉순, 신정자, 김차해- 44만5910원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장지원 보살- 21만원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9만 5420원 ●최재순 보살- 3만원 ●이제권 거사- 5만원 ●이현이 학생- 5만원 ●박연향 우병례 김계임 이봉순 신정자 김차해- 44만5천910원 ●의정부 광동여고- 34만원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8만340원 ●울산 성길만- 5만8600원 ●울산시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19만9780원 ●서울시 전통찻집 솔밭, 여영주, 김금순, 이순덕, 박화숙 보살, 김학표 거사- 29만6660원 ●대구시 봉덕동 김태오거사- 6만2천580원 ●한마음선원 대전지원, 이경호 오용근 박정란씨- 23만190원 ●부산 이제권- 5만원 ●부산 이현이- 5만원 ●김영란 국유덕 정석현 이아리- 31만9960원 ●하와이 장지원- 21만원 ●최재순- 3만원 ●허성국 이규만 성재영 김동조 정필수 정창진 김정호 박문혁- 11만2410원 ●수지 보현정사- 1백37만2천원 ●강문선- 58만3천830원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19만3500원 ●박기정- 10만원 ●구길자- 4만8630원 ●정지윤- 1만원 ●익명의 불자- 1백만원 ●부산 이제권 -5만원 ●부산 이현이- 5만원 ●김준성 장윤희 -4만8900원 ●호놀룰루 장지원 보살- 21만원 ●청주 광덕사 일봉스님- 33만8890원 ●전남 장성 (주)삼보기술공사- 5만원 ●김인태 강봉식 강신재 강병도 강병재 조명희 장정자 최은경 하동규님- 33만7210원 ●오병진 윤남주 유병훈 성득경 이강석 김영미님- 36만6050원 ●용인시 용담사 선재어린이집- 67만1280원 ●서울시 변인택- 4만원 ●한마음선원 강릉지원- 1백32만4940원 ●하와이 호놀룰루시 장지원 보살- 21만원 ●부산시 이제권- 5만원 ●부산시 이현이- 5만원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60만6380원 ●단청장 김윤오- 30만원 ●강문선- 21만6880원 ●진영숙 이선자 김기영 그린포토 지산기획- 21만3360원 ●부산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45만8190원 ●김제철 최성영 박상욱씨등- 42만9900원 ●원주 단청나라 -5만8천원 ●대구 손문철- 6만원 ●서울 윤선애- 1만원 ●하와이 장지원- 19만원 ●충주 광덕사 밀양 용정사 김선문 강병도 김원우 -27만3410원 ●이현이- 5만원 ● 이제권- 5만원 ●원혜경- 2만원 ●광명불교학생회- 33만7840원 ●한마음선원 거사합창단 테너2팀(팀장 류석권) 일동- 50만원 ●무명의 스님- 10만원 ●대원정사 신도회 -1천만원 ●한마음선원 강릉지원- 37만5350원 ●서대문 길상사- 10만7650원 ●허성국 이규만 성재영 김동조 정필수 정창진 김정호 박문혁씨등 불교출판인 일동- 25만8640원 ●장순덕- 1만원 ●윤선애- 1만원 **(총 29,665,140원)**

나눔의손잡기 캠페인은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동체대비 정신 교계에 확산

2004 본사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결산

본사가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아 2월부터 10개월간 전개한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은 7500개의 나눔 저금통과 7만3000장의 나눔 스티커를 전국에 배포해 3천122만6338원의 성금을 모았다. 또 책 1250권, 옷 2020벌, 헌혈증 200장, 찬불동요 CD 200세트를 전달하는 등 나누면 커지는 보시의 정신을 실천했다.

나눔성금은 1차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서울 경기지역 종립학교학생 7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옷은 한국제이티에스, 헌혈증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책은 군부대 교도소 불교단체, 찬불동요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해외 및 전국 어린이 법회 개최 사찰에 전달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보시자들을 연결한 본사의 나눔의 손잡기 운동은 사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동체대비(同體大悲)'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운동을 교계에 확산 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나눔의 손잡기운동은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혜총)가 복지사업의 발전과 대국민 홍보에 기여한 언론사에 시상하는 '2004 사회복지언론인상'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로 부터 표창장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편집자 주>

저금통 7500개 · 스티커 7만3천장 전국배포

나눔의 저금통과 스티커를 분양 신청한 사찰과 단체, 유치원 등의 시설, 개인은 모두 105곳에 이르렀다. 또 저금통을 연중 비치하는 나눔의 가게는 31곳이나 됐다. 현재 저금통 7500개, 스티커 7만3000장이 전국에 배포됐다.

성금 2966만5140원 · ARS 156만1198원 모금

매달 200달러를 보내온 미국 하와이주 호롤룰루에 거주하는 장지원 보살을 비롯 전북 전주시 이영옥 보살, 광주시 김모 보살, 경남 양산 정익규 거사, 홍성시 이정화 보살, 윤선애 최재순 보살이 매달 성금을 보내왔다. 특히 부산에 살고 있는 한 불자는 아들(이제권)과 딸(이현희) 명의로 매달 생명나눔실천본부와 본지에 각 10만원씩 기부하고 있다. 전화 한통화로 3000원을 기부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서도 156만1198원이 모금됐다.

풍경소리와 함께한 찬불동요 CD 나누기

좋은 벗 풍경소리와 함께 어린이 청소년법회에 창작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본사와 좋은벗 풍경소리(대표 성행, 의왕 청계사 주지)는 4월 20일 조계종 포교원을 시작으로 12월 16일 천태종까지 총 6회에 걸쳐 200세트를 전달했다.

이웃을 위한 등달기, 봄꽃축제 등 열려

본사는 서울 후암동 대원정사, 우리는 선우와 함께 남산 순환도로와 장충단공원에 나눔의 연등 6천개를 매달았다. 대원정사(상임법사 김범준)는 연등값 1000여만원을 전액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성금으로 기탁했다. (사)우리는 선우(회장 성태용)도 장충단공원에서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을 펼쳐 9월 19일 어린이 대공원에 장애우 100명을 초청해 나들이 행사를 열었다. 또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과 4월 18일 서울시립노인요양원에서 봄꽃축제를 열어 도봉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에게 본지의 나눔운동을 알리고 서울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장기기증 신청 · 헌혈증 200장 전달

서울 잠원동 박옥정 보살이 헌혈증을 본사에 기증한 것을 시발로 강원도 강릉시 권남후 보살이 장기기증을 신청했다. 특히 부산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전직원 95명이 헌혈한 증서를 비롯





법련사가 기증한 불서를 6포병여단에 전달했다(위).
전등사에서 산사체험을 한 종립학교 학생들이 나눔장학금을 받고 즐겁게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있다(아래).



나눔의 저금통은 전국 사찰과 단체, 유치원, 개인등에 배포됐다. 사진은 부산 금화사 초등불교학교 학생들이 꽉 채운 저금통을 들고 활짝 웃는 모습.

해 파주 전차대대등 군부대와 대전 용화선원등 사찰, 불자들이 헌혈증 200여장을 보내와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달했다.

군법당 등에 책보시 1250권

책보시도 줄을 이었다. 법련사가 1000권, 홍천 천지사 100권, 권오남씨 100권, 김배윤씨가 50권을 기증했다. 서울 서초동 권오남 보살과 김배윤씨가 내놓은 세계문화전집 세계명작전집 100권이 새로 만들어진 불교상담개발원 도서관으로 전달됐으며, 법련사와 천지사가 전달한 불서는 6포병여단 법음사, 공군교육사령부 성불사, 중앙경찰학교 적보사, 원주교도소 법당을 비롯 공주교도소등 10여곳의 교도소에 보내졌다.

옷 2020벌 JTS에

동대문 신평화상가 1천여벌, 남대문상가 한양니트 1천여벌, 개인과 단체 20여벌등 총 2020벌이 모아졌다. 옷은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돕고 있는 한국제이티에스(JTS)에 기탁했다.

김창배 화백, 그림 30점 보시

담원(潭園) 김창배(49 · 담원갤러리 관장)화백이 12월 7일 본지 '나눔의 손잡기'에 선묵화 30여점을 기증했다. 차와 선에 심취하여 10여 년 전부터 선묵화를 그려온 김화백은 "차와 불교는 나눔으로 귀결 된다"며 "30년 그림인생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2005년도에는 나눔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소년소녀가장 10여가족 결연

경기도 고양시 김성권 거사와 손혜숙 보살이 3월 22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추천으로 후원가족을 만난데 이어 10여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결연을 신청했다. 또 서울 영등포 탑사포교원(주지 무량)이 소년소녀가장 37가족의 후원자가 됐으며 서울 광진구 구의동 조미란씨,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나병희 거사가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연했다.

미얀마선원 산디마스님 돕기 3010만원

8월부터 진행된 본지 나눔의 손잡기 '미얀마선원 산디마돕기' 캠페인에는 부산 여여선원 원장 정여 스님이 1억5000만원을 들여 법당을 임대해준 것을 비롯 당진 보덕사등 4개 사찰과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한법회등 3개 모임, 정안 스님등 12명의 스님, 83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총 3천1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10월 초 서울 가회동 한옥으로 이사 온 미얀마선원은 12월 25일 개원했다.

수술비 없는 환자 16명 소개

2월에 소개된 뇌종양 초등생 주희부터 12월 소개된 여고생 새봄이까지 총 16명이 소개됐다. 뇌종양 투병 어린이 조주희(월정분교 5년), 백혈병이 재발됐지만 치료비가 없어 애태우는 청년 불자 신영재 군, 백혈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서울 사는 세 살배기 김주황 어린이의 사연이 소개돼 후원금이 답지했다. 또 슬하에 자녀와 형제자매 없이 혼자 사는 서울 성북동에서 사는 김용순 할머니, 발목이 다쳐 4남매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은 부산의 김막자씨의 사연을 들은 불자들도 성금을 전달해 재활을 도왔다.

자원봉사 신청 및 쌀등 물품후원

2곳의 단체및 사찰과 10여명의 불자들이 자신의 특기를 살린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서울 장안사가 쌀 2가마,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포교당에서 쌀 2가마등을 비롯해 서울 견지동 조계사앞 길광상회는 소쩍새 마을에 매달 라면 2박스를 전달하고 있다.

대불련 총동문회가 나눔의 손잡기와 공동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5월 15일 잠실 롯데 민속박물관에서 소아암 어린이돕기 연등달기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매달 한차례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12월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회를 열었다.

서울 영등포 탑사포교원은 자원봉사단을 창립하고, 시설봉사에 나섰다. 용인 수지 '부처를 닮은사람들'도 본사 나눔의 손잡기 동참단체로 가입해 노인당을 돌며, 노인잔치를 열었다.

충북 음성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백광현 법사는 혼자서 연주하는 사물놀이 연주기를 직접 만들어 전국사찰과 축제의 행사장에서 나눔의 손잡기 후원기금 봉사를 했다. 경남 양산 불광사 주지 경보 스님과 경북 영주 김명자 보살이 기공치료 및 수련지도 봉사를, 경기도 분당의 향명성 보살이 병원과 복지관 봉사를 신청했다.

김원우 · 박봉영 · 김은경 기자

2004 주요종단 결산

조계종은 정체성 확립과 교육제도 개선 등 내적 역량 축적에 힘쓰면서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고, 태고종은 코스닥기업 인수, 불교위성방송 채널인가 등 굵직한 뉴스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천태종은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로 바쁜 한 해를 보낸 반면 진각종은 밀교학과 종학 연구에 치중하며 정체성 확립에 주력했다.총본산 묘각사 불사를 낙성한 관음종과 종조 '원정 기념관'을 개관한 총지종은 종단 역량결집에 나섰다.

조계종 안정 태고종 약진 진각종 관음·총지종 내실



2004년 조계종의 두드러진 활약은 사회복지분야였다. 사진은 '1사찰 1가정 결연사업' 일환으로 지난 6월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이 종로구청 내 소년소녀가장, 저소득가정 청소년 20명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2004년 조계종 **총무원**의 가장 큰 화두는 '나눔'이었다. 총무원은 올해 '불교자원봉사활동 공모전' '제1회 불교자원봉사박람회' '제1회 불교자원봉사 대축제' '북한장애우에게 휠체어 보내기 운동' '소년소녀가장 돕기 1사찰 1가정 후원' '외국인 상담지원' 등을 통해 자원봉사 및 후원문화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스님노후복지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해 현재 10개 교구본사에서 실비노후복지시설 건립 사업을 신청, 정부 예산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 노후복지시설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자비의 보험금 나눔 운동'을 펼쳐 20억원 가량의 보시 약정도 받아냈다.

나눔은 바다도 건넜다. 조계종은 지난 4월 스리랑카 라투나푸라 지역에서 '조계종 마을' 준공식을 봉행했다.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눈 것이다.

조계종은 종단 정체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종조 다례재를 봉행했으며, 부처님오신날 황우석 교수와 박세리 선수에게 불자대상을 시상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 합천 해인사에서 대종사 법계 품서식을 봉행해 종단 위계질서 확립을 꾀하기도 했으며, 12월 공주 마곡사 인근에서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기공식을 개최해 불교 대중화 세계화의 터전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응 · 정일 · 석주 · 숭산 스님 등 종단 원로스님들이 원적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또 부산 선암사 문제 등으로 각종 소송에 시달린 한해이기도 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각 계파(종책모임)간 이해관계가 심화되면서 종회 내부에서조차 "이대로는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시점에서 효율적 종단운영을 기치로 내건 승가모임 화엄회가 창립됐지만 생산적인 종회를 기대하는 불자들의 여망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전반적으로는 예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원은 승가교육제도 개선이 올해 최고의 화두였다.

연초 교육원장이 사실상 공석인 상태로 출발했던 교육원은 4월1일 청화 스님이 제5대 교육원장에 취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청화 스님의 취임 이후 '선교육 후득도' 중심의 승가교육제도 개선, 간화선 수행체계 정립, 출가연령제한 논란 등 굵직한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7월 1일 출범한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전통 승가교육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교육의 장점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우선 기초(행자)과정 2년과 기본(강원, 기본선원)과정 2년에 전문(대학원)과정 2년의 6년제 구족계 수계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두 번의 실무회의는 승가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승가 구성원들의 합의는 쉽지 않은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40세 출가연령제한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올해 26 · 27기 행자교육원 입교자는 310명으로 예년에 비해 40% 가량 감소했다. 전국선원수좌회와 불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간화선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됐다.

포교원이 2004년 가장 주력한 사업은 별원 10주년을 맞는 2005년에 대비해 10개년 계획 100대 과제 수립과 포교방향 설정이다. 이를 위해 포교연찬회를 6차례 개최하고 12월 공청회와 좌담회를 열어 포교원이 나아갈 길과 포교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계종 신도에게 맞는 간화선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교안을 만든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현재 교안은 과학자 자문회의를 거쳐 수정작업 중이며 선원장 스님들의 감수가 끝나는 내년 2월경 발간될 예정이다. 전문교육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도교육교재 시리즈를 완간해 신도교육의 기초를 잡았다. 기본교육설문, 신도수행 현황 등 각종 현황조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15개의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큰 성과다.

5월에는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가 조계종 중앙신도회로 통합, 신도조직의 단일화를 이루어냈다. 파라미타는 서울시로부터 자원봉사 활동터전을 인증받는등 우수단체로 선정돼 청소년 포교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한 한 해였다. 향후 포교방향 설정 등에 대해서는 포교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내년도 예산 축소로 국제포교사 양성 교육 등 산하단체 사업지원비가 대폭 줄어들어 각종 지원사업 위축이 예상된다.

강지연 · 남동우 · 조용수 기자

조계종

자원봉사·후원문화 활성화에 박차 간화선 수행법·신도교육 교재 정리

태고종

기업인수·위성방송 채널 확보

지난해 내실 다지기에 주력했던 태고종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불사의 첫 삽(사진)을 뜬 것은 물론 동방대학원대학교 개교인가 획득, 코스닥기업 인수, 불교위성방송 채널 확보 등 종단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이뤘다.

태고종은 연초부터 기업 인수라는 획기적인 카드를 빼들었다. 이 회사에 기존의 녹색장묘사업을 진행토록 맡김으로써 불교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방송위원회로부터 불교위성



방송 채널인가를 받아냈다. 이에 따라 태고종은 내년 중 불교위성방송 개국을 준비하고 있어 불교채널의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태고종의 종로시대 개막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한국불교전승관은 총공사비 120여억원을 들여 짓는 불교종합문화센터로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불사가 진행된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9월 개교인가를 받은 동방대학원대학교는 내년 3월 태고종 최초의 정식 종립대학으로 문을 연다.

종단 내적으로는 지난 10월 혜초 스님을 제17세 종정으로 추대하고 선교육 후득도 제도 시행, 수계체계 확립 등을 통해 종단 안정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지 선출을 앞두고 일었던 태고총림 선암사 일부 재적승들의 반발과 조계종과의 소유권 문제로 발생한 완주 봉서사 소송건 등은 풀어야할 과제로 남았다.

박봉영 기자

천태종

北 영통사 지원·국제교류 확대

올해 천태종의 최대 성과로는 개성 영통사 복원 지원과 국제교류 확대가 꼽힌다.

지난해 통일부로부터 대북사업 교류협력자로 승인 받아 영통사 지원에 나섰던 천태종은 올해에도 영통사 복원불사를 위해 총 12차례에 걸쳐 기와와 단청재료, 건설장비, 건설부자재 등 25억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했다.

이 사업을 위해 북한에 다녀온 인원만도 연인원 400여명에 달했다. 천태종은 영통



사 복원 지원을 통해 남북불교간 교류채널을 다양화하고 남한 불교계의 대북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여기에 천태종에 있어 올해는 국제교류의 폭을 넓히는 의미 있는 해였다. 캐나다 토론토 지부는 신축불사에 돌입해 완공단계에 접어들었고, 몽골 포교당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다. 또한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미얀마, 이란 등의 나라에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국제교류를 확대하기도 했다.

지역별 포교거점 역할을 할 사찰불사도 눈에 띈다. 수년동안 건축불사에 전념하며 교세 확장에 힘써온 천태종은 올해에도 인천 황룡사, 서울 삼룡사(사진), 청주 명장사, 광주 금광사, 원주 성문사, 통영 서광사 등의 20여 사찰불사에 진력해 6곳의 불사를 마무리했다.

박봉영 기자

진각종

밀교학·진각종학 정립 주력

진각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신 밀교학 및 진각종학 정립에 주력해 내실을 다졌다.

혜일 총인을 비롯해 효암 통리원장 등 종단지도자들은 올해 네차례에 걸쳐 인도 북부와 중국 서부, 몽골 등지의 밀교사찰을 방문하며 한국밀교의 원류찾기에 주력했다. 방문을 통해 진각종은 밀교가 티베트에서 몽골을 거쳐 한반도로 유입됐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아울러 티베트밀교를 간직하고 있는 인도 북부 따보승원과의 교류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사진).

일본 고야산대학, 금강봉사 등지에서 양국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학술교류대회



와 밀교문화행사를 개최하며 일본 밀교종단과의 교류물꼬를 트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진각종은 한때 중단 위기를 겪기도 했던 회당문화축제를 울릉도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축제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로 4회째 열린 회당문화축제는 봉사와 축제, 신앙이 어우러져 '울릉도 대표축제'로 자리잡았다.

종립 위덕대는 '지역' '복지' '환동해권'을 특성화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음 · 총지종

종단 역량 결집 나서

지난해 죽산 스님을 종정으로 추대, 종단안정을 기했던 관음종은 올해 개산조 태허 대종사 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했다. 총본산 묘각사 낙성과 창종연혁비 제막, 탄신 다례,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등을 통해 종단역량 결집에 나섰다.

총지종은 3월 입적한 수성 종령의 뒤를 효강 대종사가 추대되면서 '교화활성화'를 화두로 던졌다. 이를 위해 불단장엄을 비롯해 의식 · 의궤 개편, 불구 사용, 종합수행타운 건립 등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총지종의 올해 가장 큰 수확은 종조 '원정기념관'을 개관해 종단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반을 다진 점이다.

박봉영 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www.njutcm.co.kr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대학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2월 31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부산 · 경남 접수처 : 한국한의원(☎ 051)501-0025)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다 가져야 잘 사는가요?”

부처를닮은사람들, ‘자광원’ 송년 봉사하던 날

“배 아퍼. 배 아퍼. 약줘….”

최필예 할머니가 걸레질을 하는 김현순(40 · 수정도) 보살의 손을 자꾸 잡아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할머니에게 다가가 배를 쓸어보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물어보지만, 최필예 할머니는 아프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잡은 두 손을 놓지 않는다.

‘어디가 정말 많이 편찮으신 것은 아닐까.’ 걱정과 불안감에 두리번거리며 복지사를 찾는 김 보살에게 퉁명스런 말 한 마디가 들려온다. “관심을 끌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봉사자들의 눈이 한번이라도 더 머물러 주니까….”

12월 19일 일요일. 신행봉사팀 ‘부처를닮은사람들(대표 의선 · 수지포교원 주지)’이 자광원 어르신들을 찾았다. 연말이라 송년모임이니 여행이니 다들 제 한해 마무리하기에 바쁘지만 부처를 닮은 사람들은 무의탁 및 치매, 중풍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요양시설인 자광원을 찾아 봉사에 나섰다. 아이들에게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는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마당에서 폴짝거리며 뛰어오는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와 반가운 외침이 울려 퍼진다. 바로 어르신들의 손자손녀, 부처를닮은사람들의 꼬마악동(?)들.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달려와 어르신들의 손과 발에 매달려 얼굴을 부비는 녀석들은 영락없는 개구쟁이들이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가며, 그동안 잘 계셨는지, 어디 몸이 불편한 곳은 없는지를 묻는 아이들의 모습은 더없이 늠름하고 어른스러워 보였다. 어르신들 역시 가누기 힘든 몸을 지팡이와 휠체어에 의지해 일으키는 것으로 반가움을 대신했다.

“봉사 올 때, 몇 번 따라오더니 오늘은 말을 안했는데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빨리 가자고 보채더라구요.” 강미경(45 · 원행심)

매달 한두차례 자광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이는 부처를닮은사람들. 이날은 요양원 봉사팀 팀원 5명과 함께 주니어팀원 8명이 자광원 어르신들을 찾았다.

어르신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중고등학생인 지환이와 정환이 형제와 친구들과 함께 어르신들의 목욕을 돕고, 동갑내기 초등학생 지숙이와 민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안마와 계단청소를 도왔다. 그리고 어머니 보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방 청소와 부엌일 보조역할을 맡았다.

쓱쓱싹싹~! 쓱쓱싹싹~! “할아버지 시원하세요?”

“응. 시원햐~!”

“여기 여기, 팔을 조금만 더 내밀어 보세요.”

본인 덩치보다 훨씬 큰 어르신들을 붙잡고 목욕을 시키는 정환이의 얼굴은 어느새 땀방울로 범벅이 됐다. 하지만 힘드냐는 질문에는 수줍은 미소를 띤 채 아직 4분밖에 목욕을 못 도와드려 서둘러야 한다며 목욕수건을 움켜쥐었다.

어리다는 이유로 공동욕실에서 쫓겨난 민규는 잠시 툴툴대더니 어느새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할아버지 할머니 방청소를 거들었다.

“서러워. 서러워…. 내가 죽어야해.”

민규가 방안에 들어오자 박술희 할머니가 서럽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쏟아냈다. 늙고 병들어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픔, 그리고 지난 세월의 통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할머니의 눈물. 할머니의 눈물은 이곳 자광원 어르신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듯 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목맨 민규의 한마디에 잠시 눈물이 멈춘 박술희 할머니는 욕실청소를 마치고 나온 김연희(36 · 법연지) 보살을 보자 또 다시 눈물을 흘렸다.

“치매어르신들도 힘드시지만, 정신이 온전한 분들은 이곳 생활에 안정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많이 자학하고 위축받으세요. 보릿고개를 넘어가며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을 텐데, 이렇게 약해진 상태로 버려진 모습을 보면 모두 저희 젊은이들의 잘못 같아서 죄송스러워요.”

부처를닮은사람들은 이곳 자광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공동체 ‘한사랑 마을’ 등 각종 기관에 봉사활동을 다닌다. 또한 의정부교도소화 여주교도소, 안양교도소 등을 찾아다니며 재소자들의 교화 · 교정활동을 돕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누고 싶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함께 사는 세상,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한 불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4~5명씩 짝을 지어 봉사팀을 구성하고, 노력봉사는 물론 물품지원들의 활동을 하고 있다.

대가? 대가를 바란 적은 없다. 때론 힘들고 고되기도 하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과 뿌듯함이 활동에 힘을 더해준다. 자주 집을 비우고 활동을 하는 엄마를 원망치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려는 아이들. 그리고 며느리의 활동을 뒤에서 밀어주는 시어머니와 가족들. 이제는 안다. 이게 바로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어느새 정해진 봉사시간이 끝나고 부처를닮은사람들은 새해를 기약하며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렸다. 순간 치매와 청각장애로 시종일관 무표정이었던 박종인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그 모습에 내내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거동을 도왔던 지숙이가 울먹인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UN기구에서 일을 할 거에요. 그곳에서 병들고 아픈, 그리고 각 종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거예요. 나눌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져야 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말고사를 끝내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기위해 자광원을 찾은 부처를닮은사람들의 주니어팀원들. 이날 주니어팀원들은 목욕봉사와 안마봉사로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목욕하고 머리깎고 할아버지 할머니 신나서 눈물이…





4~5명씩 팀 구성 장애인 공동체·교도소 등 방문 물품지원과 노력봉사 “불황일수록 많이 나눠야죠”



① 점심공양 후, 전통공연을 보며 즐거워하는 어르신들.
② 주니어팀원들이 할아버지 목욕을 도와드리고 있다.
③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의 팔, 다리를 주무르는 모습.

연말이다. 장기화된 경제불황으로 정기적인 봉사 및 후원은 물론 연말에 반짝하던 홍보성 후원조차 찾아보기 힘든 요즘이다. 각박한 인심.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남을 위한 마음부터 내려놓는다. 하지만 부처를닮은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날 오후 어르신들께 무료공연을 선보인 전통공연단 ‘춤소리 한마당(대표 오희연)’ 단원들까지.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에 열심인 사람들이 아직 우리 곁에는 많다.

이들이 세상을 향해 외친다. “힘들수록 함께 나눠요. 더불어 살아야 행복하답니다.” 글=김은경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자 국악인 오희연 단장이 이끄는 전통공연단 ‘춤소리 한마당’이 자광원 어르신들에게 신명나는 우리가락과 전통 춤사위를 선보였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686 CZ3962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산사 순례 및 대련 관광/정주로 이동
2 일	전용버스	개봉-용정, 철탑, 포공사 관광
3 일	전용버스	소림사, 탑림, 백마사 순례
4 일	CZ3961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5 일	CZ685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 (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옹화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천불동, 영암사, 잠산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 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3 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 일	전용버스	심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5 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일터불자들이 걸어온 2004년

경기 침체 … 불심 '活活'



정각회 · 농협 · 여객 불자회 등 '판' 키워 새 출발 … 신행활동 다양화 돋보여

힘든 한해였다. 장기화된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IMF때보다 악화된 시장경제는 수많은 중산층 가정을 무너뜨렸다. 직장인들 역시 겉잡을 수 없이 불어오는 조기퇴직과 감봉 등으로 고된 한파를 격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황 속에서도 일터불심만큼은 꺼질 줄 모르고 활활 타올랐다. 국회 정각회, 전국농협불자회, 대한민국 여객연합불자회 등이 잇따라 창립하며 사회 곳곳의 일터불심을 일으켰고, 직장불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행방법들이 시도돼 직장불교의 미래를 밝게 했다.

올 한해 동안 직장 · 직능불자회가 얼마큼 늘었고 신행패턴들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없는지 살펴봤다.

 # 사회 각 분야에서 일터불심 꿈틀

지난해까지 직장불교를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와 대한민국경찰불교회(이하 경불회) 양대 산맥이 이끌어 왔다면, 올해는 보다 다채로운 일터불심들이 직장불교에 힘을 더한 한해였다. 지난 11월 제17대 국회 정각회가 6여년간의 공백을 딛고 불교외호를 위해 재창립한데 이어, 농협불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 산재한 농협불자회를 중심으로 전국 조직을 가동 새로운 도약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고속버스, 관광버스 운전기사 불자연합회인 대한민국 여객연합불자회와 민항기 조종사 불자회가 창립해 '불심안전, 안전운행'을 기지로 창립해 하늘과 땅위의 포교활동에 나섰으며,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황우석 교수를 중심으로 서울대 통합교수불자회가 창립돼 전공에 따른 불교연구 장려와 불자교수 발굴 등을 통해 불교연구영역의 외연을 점차 넓혀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고리원자력발전소 불자 직원 부인들의 모임인 고리반야부인회 등이 창립해 일터불심을 후방지원하고 있다.

공불련과 경불회 역시 올 한해 경기도 제2청사와 부여군청, 천안시청 그리고 인천지방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장흥경찰서, 김포경찰서, 보령경찰서 등지에 불자회를 창립시키며 일터불심을 확산시켰다. 특히 인천해양경찰서 창립은 지금까지 경찰포교의 사각지대로 불렸던 해양경찰청에 불풍(佛風)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맞춤형 신행으로 신심 재무장

기존 법회중심의 경전읽기와 염불수행으로 한정됐던 직장불자들의 신행패턴이 새벽걷기명상부터 사이버법회, 퇴근 후 경전공부, 멘토링에 이르기까지 훨씬 다양해졌다. 경불회 문영찬 총무를 비롯해 이재상 우리은행 불자회 홍보부장 등 많은 불자들이 이른 새벽 인근 사찰을 찾아 새벽예불과 함께 걷기명상 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춘천시청 도반회와 안양시청불자회는 퇴근 후 인근 불교대학을 찾아 불교공부에 열심이다. 국회직원불교신도회와 한국은행 불자회 역시 점심시간마다 사내 법당에 모여 <법화경>과 <불교경전입문> <금강경> 등을 자체적으로 공부하며 일터 속 불교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신행정보와 불교지식을 제공하고 얻는 직장불자들이 크게 증가한 점도 두드러진 변화이다. 이른 아침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 하는 직장불자들이 사찰이나 불교대학을 찾아다니며 신행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 올 한해 다양한 직장불교사이트 등이 개설되며 불교기본 상식에서부터 경전해설, 불교사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인터넷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40대 직장불자들 사이에서는 사이버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가상 성지순례를 떠나는 일이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자연스러운 신행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밖에도 작년부터 시작된 가족법회, 가족 동반 성지순례 등은 주5일제 근무제 정착과 더불어 직장불심을 가정으로 확산시키며, 회원 개개인의 신심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동료직원을 위한 선배들의 멘토링(대화형식의 상담)과 성경공부를 통해 불교를 새롭게 인식하는 작업들은 새로운 신행의 장을 열어주기에 충분했다.

 # 봉사 · 포교 등 활동영역 확산

더 이상 회원 개개인의 신행과 직장 내 불자회원들의 친목단체로 만족할 수 없다.

올 한해 일터불심은 포교와 봉사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와 포항교사불자회 등은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위해 '청소년 동반 환경 등반대회'와 '청소년문화재교실'을 열며 차세대 불교주역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고, 대한불자가수회와 한국국방연구원 · 국방품질관리소 홍릉법우회, 서울 구로구청 불자회 등은 군 포교 현장에서 신심을 불태웠다. 또한 여주교소도, 안동교도소 불자회 등 전국 교정인연합회는 업무의 특성을 살려 재소자 상담은 물론 불우한 재소자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해 가며, 부처님 가르침으로 교도소 포교에 일익을 담당했다.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을 강조하며 온정의 손길을 베푼 직장불자들도 많았다. 바쁜 직장생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 이들. 공불련과 구로승무사무소법우회 등은 봉사활동의 날과 달을 제정해 독거어르신 및 장애아동들을 위한 노력봉사활동에 나섰으며, 우리은행 서울불자회, 성북구청불자회, 경북지방경찰청불자회 등 대부분의 불자회들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노력봉사활동과 생활용품 지원활동을 펼쳤다.

또한 선재마을의료회와 경희의료원불자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등은 의료시설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자비의술'을 펼쳤다.

 # 올해 못 다 푼 숙제는?

가장 큰 문제는 직장불자회의 내실화다. 현재 직장불자회는 조직 확대와 직장 내 불자발굴하기에만 치중해 신행의 질적인 면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장불자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노령화현상과, 재정빈곤, 지도법사 부재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불자회들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사찰과 특정 스님에게만 의지하는 운영방식을 버리고 자체 법요집을 제작, 포교사를 법회에 활용하는 등 신행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주5일제 근무와 웰빙 등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신행여건이 다른 직장 · 직무상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신행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생활 속에서 불교를 밀접히 접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이밖에도 연합회 차원의 법회를 정례화하고 직종간 합동법회, 지역사암연합회와 연계한 사찰순례법회 등을 통해 '직장불자 인드라망' 구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원주경찰서 법우회

회원 개개인의 신행생활은 물론, 국민들의 편이와 안위를 위해 힘차게 뛰는 불자회. 안녕하세요, 원주경찰서 법우회입니다.

우리 불자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특별한 불교공부와 신행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신심을 돈독히 다지고 지역포교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끌고 활동하는 법회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회방식 때문인지 법회가 있는 날이면, 특별한 공지가 없어도 삼삼오오 법당을 향하는 회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우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이 있거나 불자이지만 미가입한 동료들을 이끌며, 신행생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불자회는 시청불자회와 교도소불심회 등 지역 직장직능단체들과 연합법회를 보며 지역불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주지역 내 공공기관 중 제일 큰 법당을 가졌다 자랑해도 될 만큼, 경찰서 내 법당이 훌륭하게 조성되어 있어 법당이 없어 법회를 못 보거나 신행활동에 불편을 겪는 직장불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암연합회 행사와 대한민국경찰불교회 행사 등에 빠짐없이 참석하려 노력합니다.


원주경찰서 법우회원들이 12월 5일 영월 법흥사와 단양 구인사로 동계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정기법회 · 성지순례 50여 회원 신심결집
시청 · 교도소 등 지역 불자회와 연합 활동

우리 불자회는 지난 2001년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과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의 도움을 받아 14명의 회원으로 공식출범했습니다. 한때 경찰서 내 경승실 마련과 불상봉안을 두고 개신교 신자들과 대치를 벌이며,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50여명의 회원이 '신행위주의 법우회'라는 창립기지를 되 세기며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 정기법회과 분기별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회시간에는 지도스님인 현각 스님과 경해 스님(성문사 주지)의 지도 하에 불교교리와 예절 등을 공부하며 불법에 대한 목마름을 해갈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스님이 부재할 시에는 법우회 내 포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는 회원들과 함께 불교교리와 개개인의 신행답을 바탕으로 올바른 신행생활과 불자로서의 역할 등을 토론하기도 합니다. 수동적인 법회보다는 회원들

우리 불자회는 앞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을 통해 알려나가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봉사활동이 회원 몇몇이 소쩍새 마을 등을 찾아 빨래를 하고 부서진 곳을 고치는 노력봉사에 그쳤다면, 내년부터는 불자회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봉사활동과 나눔운동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우리 불자회는 원주불심을 대표할 수 있는 직장불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연구 회장(생활안전과장)

연대불교신문사 창간 10주년 독자 사은 大행사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이며, BUD는 Buddy(친구)를 뜻합니다

NESPOT swing

이번 주,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 법회 이벤트



1. 가고 싶은 사찰은 **네비게이션**을 보며 빠르고 정확히 찾아갈 것!
2. 수백 권의 경전을 **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바로바로 예습할 것!
3. 큰스님의 중요 법문은 **음성녹음**과 다운받은 **동영상**으로 다시 볼 것!
4. 큰스님과 친견을 원할 때에는 **화상통화**로 간단히 해결할 것!

단한번의 기회!

평생가족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i-Bud를 드립니다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아이벗 무료제공, 가입비 3만원 별도, 영구독자료 일시납, 12개월 의무사용

MP3 · 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 '아이벗'

전용네비게이션 I-NAVI+아이벗 8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Let's KT

현대불교신문사가 드리는 HP rw6100 최저가 특별보급 2가지

1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HP rw6100 스마트폰을 무료로 드립니다. (평생구독료 62만5천원)

2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에게는 초기수납금 55,000원에 24개월 의무사용 조건으로 HP rw6100 스마트폰의 혜택과 다양한 주변기기를 드립니다.(월 평균 할부금 24,291원)

구입문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벗(I-BUD)사업단 전 화 : 02)735-3034, 737-8881 / 팩스 : 02)738-3034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가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본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채 요가지도자 용

- 지원자격 : 1. 2004년도 4년제 대학 졸업자 or 2005년도 졸업예정자로서 요가 수련 경험이 없어도 심신이 건강한자 지원가능 2. 대구 지역 근무 가능한자
- 제출서류 :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주민등록등본 4. 재적 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 접수기간 : 2004. 12. 10일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인통보 면접

※ 이메일접수 : albong99@hanmail.net

휘트니스 요가원 대구시 중구 포정동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神 비법 강의
초종파 불문하고 무조건 찾아오세요. 이곳에 선지식 한분 계시니 속지 않을 겁니다. 우주법계가 자신속에 있지만 모르면 道 아니다. 배우고 나면 누구나 훌륭한 道人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해용사 법경 합장 ※ 빙의치유세미나
※좋은인연이란 주고받는 거래일뿐이다. 그게바로 福
055-573-7832 / 010-3189-3525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330번지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비구니스님이 만든 야생오미자차
高山에서 자생하는 오미자
기관지,천식,간장병,신장병
쉽게 피로하며 잘 붓는 사람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슈잔드린 함유
055)345-6667

육임역학 비법 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1)245-8575
053)551-1356(011-1763-3567)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70만원/카루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신축 사찰 창건하실 주지스님 모십니다
강원 인제
011-9109-3660
(24시간 상담)

토굴에 있는 스님입니다
자동차 보시해주실분
연락바랍니다
승합차,화물차도 상관없음
043)832-1945

화주보살 구함
또는 사찰운영이 어려운 곳이나 불사를 원하는 사찰. 환자전문
011-832-8766

부전스님 모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1분씩 평생사실분
모십니다
011-576-2737

신심있는 공양주 모십니다 (급구)
02)386-0926

행 자 모 심
(스님이 되실분,50세이하)
경북 칠곡군 지천면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황 용 사
종무실 054)972-3174
종무실장 011-9942-2472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북포항
천년 관음도량 자장암
011-584-0888
054)285-012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65세
법비내리는 동해사
033)672-2900
033)671-7753
017-554-0737

법납 30년된 50대초반 승려로서 포교 및 사찰운영관리 책임지고 평생 머물곳을 찾습니다
▷부산 경남지역 원함
051)553-574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환영)
정릉02)917-3363

삼존불 보시받습니다
(아미타,관음지장)
후불탱화, 신중탱화
▷공주시 계룡면 양하리 금강암 비구스님
041)855-6936

역학 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현대과학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없고 병명이 나오지 않는것을 밝혀내고 약사부처님의 신통의 약손으로 신병을 만져서 고침
약왕사 031)746-6795
017-257-6795(칠광)

조계종 스님 설립 부산전지역의 중심지이자 전철 교통중심지에 90평 2층 빌딩(전세임). 산승은 평생 산중환경에 익숙하나 도시환경에는 맞지 않아 포교에 관심있고 인수 받을 능력있는 스님을 찾고있음. 그리고 40~50대의 사원을 운영관리할 비구, 비구니스님을 찾고있음
부산설법원 051)441-1430
경북내원암 054)653-11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숙식가능자.40~50대)
▷경기 파주
010-4634-7796

부전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011-9020-7199

직 인 무 효 공 고
- 사찰명: 약사암 • 법명: 일여(장영순)
- 주소: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44

상기 사찰의 주지 직인은 2004년 12월20일부터 개인 하였으므로 이후부터사용된 직인은 무효로 공고함
- 공고인 사찰명: 약사암 • 법명: 자안(태순희)
- 주소: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44

2004년 12월 20일

탈 종 공 고
● 사찰명: 약사암 ● 법명: 자안(태순희) ● 승려번호: 08-20
● 주소: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44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이에 탈종을 공고 합니다
2004년 12월 20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달마도 무료 보시합니다.
액운소멸, 수맥차단 달마도
불자님들의 은혜에 보답코자 천운사를 방문하시는 모든 불자님께(음력, 12월 31일까지) 무료 보시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207번지
031-764-3399 천운사 구암 합장

운세 10초내에 맞추면 수강신청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똑같은 사주라도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조상의 흐름을 찾으세요.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당뇨
- 혈당조절 물질
- 콜레스테롤 조절성분
- 혈액순환 촉진성분
- 기타 천연성분,미네랄

특수영양식품
당화혈색소 관리가 합병증 예방에 필수조건입니다.
평소에는 혈당측정, 2개월후에 당화혈색소(HbA1c)를 측정해보면 혈당관리용 제품의 품질을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제 조 : 미국의 세계적 특허기술 처방제품
판매원: 눈밝은 세상 (02) 2237-8004
일본 수출중!

요사채 건축공사 및 내부시설공사 전문
1.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
2. 증축 확장 개보수 공사
3. 보일러 설비 및 위생배관 공사
4. 전기 공사
5. 샷시 창호 공사
6. 미장 방수 공사

불심으로 봉사하는 여일 종합 건축 공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12-22 대표 윤재만
TEL. 02)476-8139 H P. 011-9720-1443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3월 22일(화), 24일(목) 개강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 체계적인 교육
▶주 · 야간반 선착순
출가 학교 및 행자 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 3월 22일(화)-주간반, 24일(목)
- 주 · 야간반 각 요일 선택, 주 1회
- 불교 TV 금강경강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큰스님들의 특별 법문
- 인터넷방송국,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문의-대구큰절: (053)474-8228, 경산도량: 811-0337, 칠곡도량: 312-8221
인터넷 홈페이지 : www.TVbuddha.co.kr

이십팔숙 특별지도
● 역술과 이십팔숙의 특수비법을 쉽게 설명
불설 28숙은 모든 역술을 총괄하는 비법이며 이것을 모르고는 역술을 논할 수 없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지도 : 대주스님
☎ 02)926-1259 / 011-741-0867

학인모집 www.walyoung.com
● 역학, 연수과정(기초 ~ 전문까지)
● 3개월 이수 후 불교대학 등록시 연수과정 산입
● 불교대학 월 1회 2년간 본교 수업
● 오후반 : 2시, 4시 저녁반 : 7시 9시 강의
● 원정스님 직접 강의(원정의 경력 및 저서 홈페이지 참조)
042)222-5786,042)211-4287,011-9429-5786
만대교학대학원 대전교육장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봉은 불교 미술원
탱화. 벽화 전문
※ 천불탱 괘불탱 팔상탱 후불탱 칠성탱 신중탱 관음탱(천수천안) 지장탱 감로탱 지옥탱 팔금강탱 나한탱(오백나한) 산신, 용왕, 독성탱
※ 먹탱화 홍탱화 ※ 무속종합탱(각종족자)
041)541-3545.3547 / 016-751-3545
홈페이지 : www.bongen.pe.kr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1구 493
(불모 오재택의 작품 사진 300여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모 오 재 택


퇴마승

영험도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짓은 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등등이 마음에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 합니다.

영 가	빙의현상 (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유산,자연)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오랜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시고 찾아오십시요. 빙의현상, 가정우환, 기타 깨끗이 치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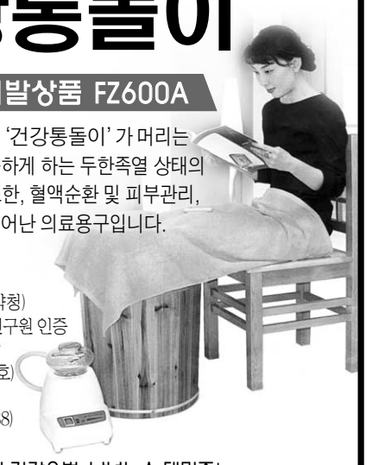
해 원 사 초하루, 18일 지장재일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족욕 · 반신욕 효과의 혁명 의료용 증기욕조!

건강통돌이

국내최초 개발상품 FZ600A

의료용 증기욕조기 '건강통돌이'가 머리는 차게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두한족열 상태의 건강욕법입니다. 또한, 혈액순환 및 피부관리, 건강관리에 아주 뛰어난 의료용구입니다.



* 의료용구 인증 (식약청)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인증
* 실용신안출원 (제2004-0014856호)
* 특허출원 (10-2004-0038188)

- 수증기를 이용한 건강요법, 남녀노소 대만족!
- 사무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가능, 리모콘 온도조절로 편리
- 욕조없이 간편하게 족욕, 반신욕의 효과, 피로회복에 탁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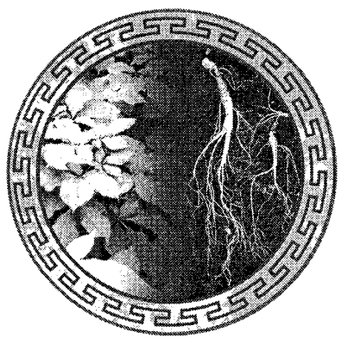


웰빙산업을 주도하는 건강기업
C&H 씨앤에치
대표전화 02-482-6511
담 당 010-3130-9492

광주대학교 식물유확연구소 ·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 2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현풍F&B HYUN PUNG F&B CO., LTD.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서울 강북구
- 법당 요사 : 60평
- 임대료 : 480/50
- 시설비 : 2000만원

- 위치 : 경남
- 법당 : 1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400평
- 가액 : 1억3천만원

- 위치: 강원
- 임법당 : 30평
- 부지 : 1300평외
- 임대사용 : 2000평
- 가액 : 3500만원
- 공부하는 스님 조용한 기도처 필요한분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 부지 : 610평(대지200평포함)
- 법당,용왕,산신각,요사채 화장실,창고,기타(심야전기2)
- 가액 : 2억 5천만원(조정가능)
- 표근하고 아늑함. 기도,참선도량

019-428-5440
011-9840-9138

사찰안내
- 서울 : 2억5천, 3억, 4억, 4억3천, 4억5천, 5억, 10억, 12억
- 경기 : 1억4천, 3억, 9억, 11억, 14억
- 충청 : 1억, 1억5천, 2억, 5억, 6억

※ 사찰터 多, 공양주 연결
양도 운영 하실분 상담환영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구합니다
- 장소 : 부산, 대구, 서울 을 제외한 지역은 전화 사절

011-9338-2993

사찰 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천평
- 법당 : 10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5천

- 위치 : 경남
- 부지 : 만평
- 법당 : 10평
- 요사 : 35평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 약 40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 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400만원
- 덕산온천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018-601-3389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평수 : 대지 48평
- 건물 : 법당 1동,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 가액: 4천5백만원

041)841-3090
017-337-4168

사찰안내
- 위치 : 포항 죽장 상하옥
- 대지 : 200평
- 전 500평, 국요지 300평
- 신축요사 법당
- 경치좋은곳
- 가액 : 1억 3천만원

054)262-6673

사찰터 안내
- 위치 : 신행정 수도권역(명산자락)
- 용도 : 사찰, 별장, 농장, 최대요지
- 대지 738, 전 3,187 답 1,958(우량농지조성)
- 지상물 : 신가옥(원목 고건축 한옥 1동 2004년말 준공) 구옥 1동 비닐하우스100 (현대식)

011-409-9243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사 찰 안 내
전 세 / 포교당
- 위치 : 서울시내 산밑
- 부지 : 3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50평
- 보증금 : 7천만원.월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위치 : 서울대 지하철역
- 법당 : 30평
- 요사 : 방1개
- 보증금 : 1천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3천만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산면
- 대지 : 약 1000평
- 건물 : 요사채, 삼성각
- 법당 : 20평(삼존불, 단청)
- 특징 : 마산-통영간 국도변
- 가액 : 5억

055)931-9633
011-9521-963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 법당 : 40평
- 특징 : 옥상시설 사용 13평, 판넬
- 보증금 : 1천만원 월 40만원

053)957-9551
011-398-980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시내지역
- 대지 : 350평
- 시설 : 집기 일체 양도함
- 특징 : 시내가 한눈에 보임
- 가액 : 1억 2천만원 (융자안고 양도可)

010-7275-9816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수성구 범물동
- 3층 건물 중 1층(35평)
- 법당, 공양간, 화장실 (뒤뜰사용 10평)
- 주변 주차시설 편리, 도시가스, 에어컨시설
- 보증금 :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천 5백만원

010-3139-6630

좋은 인연 찾음
- 백두대간 지리산 동하 뒤 천황산자락. 무량산. 남 앞으로 천왕봉, 장군봉 좌천룡우백호의 봉황포란형
- 종교부지 300여평 기타 1000여평 태백산 赤松 원통전 30평 요사채 30평 기타 지음
- 자연경관 300여만평의 숲에 쌓임. 숲속산길 일품
- 선방 및 기도처 휴양공간으로 최적. 등산로 옹달샘
- 여러조건 10억 → 지금 5억(불경기 및 급히 인도 요양)

010-8019-4862 고성(경남)

사 찰 안 내
<전원주택>
- 위치 : 의령
- 부지 : 1300평
- 건물 : 50평
- 가액 : 1억 5천
- 한적한 외딴 벽돌집

- 위치: 밀양
- 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2억 5천
- 전통한옥 개조한 토굴

- 위치 : 부산근교
- 부지 : 3,00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50평
- 가액 : 4억 8천
- 교통양호한 숲속암자

부산,영남지방 풍수전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5)383-0023 /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dongmuen.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안내
- 위치 : 목포시 항동
- 대지 : 104평
- 건물 : 35평 인법당 외 방3개
- 시설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인등
- 가액 : 5천7백만원
-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곳

011-806-486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중동 신흥전철역 부근 2층건물 중 2층
- 평수 : 18평. 도시가스
- 시설 : 지장보살, 상단탱화
- 가액 : 1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포함)
- 철학관, 불교미술원 적합

011-806-4867

포교당 안내
- 위치 : 후암시장 입구 2층건물 중 2층
- 평수 : 12평
- 가액 : 전세 500만원에 월 30만원(시설비 약간)
- 즉시법회 가능
- 철학관 적지
- 땅은 있고 법당 보시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02)771-190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소재 (시내 5분거리)
- 부지 : 200평, 주차장완비
- 법당,산신,요사,별채,용왕당
- 가액 : 2억 9천만원
- 특징 : 석불7m 조성 (융자 3천 5백만원)

010-4547-3020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7-3, 7-5번지
- 면적 임야 27,000평
- 특징 : 여름이면 얼음바람이 나오고 굽이치는 낙동강을 우측에 낀 천하절경
- 교통편 : 대구에서 20분거리 (88고속도로 성산 나들목에서 감)
- 가액 : 1억 5천만원 (주인 직접. 가격절충)

011-828-2112

사찰(급)안내
- 위치 : 팔공산 자락
- 전체 : 3000평(대지 200평)
- 시설 : 요사채,방8개, 실내화장실 별도
- 법당 : 임법당(20평),산신각
- 특징 : 유실수(매실)1000평, 산세가 수려하며, 생활이 편리 타용도 사용가능

054)335-3217
011-502-7880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부산10분거리
- 대지 : 179평
- 법당1동, 산신각1동, 요사채2동 (방5개)
- 가액 : 전세 4천만원 월세는 2천만원에 월 20만원
- 즉시법회가능
- ※ 철학 가능한 스님 환영

055)335-3644

포교원안내
- 위치: 수원시 장안구
- 3층건물 중 3층. 70평
- 내부시설 A급
- 가액: 1천만원 월11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10-6304-0036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201평, 전 : 33평, 법당 : 20평
- 법당내 108소불,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지장, 탱화 등 영가단 설치 최고시설(즉시법회가능)
- 요사채 : 1동, 40평 - 방 3개, 주방, 화장실내 2개, 옥외화장실 3개, 창고1개, 대형주차완비, 정남향, 교통편리
- 가액 :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11-817-4027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중심지 포교 최적지
- 2층 건물 중 2층(40평)
- 법당 : 20평(방2개)
- 특징 :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 보증금 2천2백만원 월 40만원(시설비 포함)

016-640-8133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500만원

011-9238-996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2층건물 중 2층
- 약 35평
-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절충

02)6497-0967

고창터 안내
- 위치 : 함양군 법화산 관리지역
- 독립된 청정계곡 야생차밭
- 임야 5333평, 전답 1880평 16필지 총 7213평
- 가액 : 1억3천만원

011-9393-4965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동 264-5 주안전철역 2분거리
- 건물 7층 중 4층 90평, 5층 90평
- 전세 8천만원. 6층 건물 45평
- 전세 1천 5백만원. 월100만원

011-734-7918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망우 4거리 2층 30평
- 탱화, 삼불부처님,산신,후불 가전제품 일체. 화장실, 주방, 방1개, 도시가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700만원

011-9064-333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읍내
- 대지 : 192평
- 법당 : 28평
- 요사채 : 28평
- 산신각 : 각 10평(2층)
- 가액 : 1억 2천만원

019-292-7025
052)294-7025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상리면 도천리 소백산(800고지)
- 상태 : 목조 및 블럭조 이동 21평
- 주방시설완비-기름보일러 (전기,전화 집기일체)
- 가액 : 1,500만원

063)851-0033
016-605-9626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광명 대로변
- 5층건물 5층 약 70평
- 법당, 요사채 완전분리. 시설 완벽
- 스님 병안 중으로 '급'
- 보증금 :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 답사후 절충
- 유동 인구 많고 철학관으로도 최적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2)2683-6340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소재
- 대지 : 150평
- 대웅전 20평(목조건물) 신도방 13평, 요사채 13평
- 청통 와촌 IC에서 10분거리 영천시내에서 10분거리 경산하양에서 15분거리
- 가액 : 1억4천만원
- ※스님해외연수관계로 급 안내

016)857-1126
054-337-5016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주택 중심가
- 대지 : 203평
- 현거래 시가 250만원정도
- 평당170만원(3억4천5백만원)
- 법당30평,요사채25평
- 7층탑,5층탑
- 100년이상된 고목 2그루
- 화장실,수세식4칸
- 주차 7~8대가능
- 주인직접 ● 사정상 급

010-3133-0018

사찰안내
- 위치: 중랑구 면목 3동 사가정 전철역 5분거리
- 건물 1층 15~20평정도
- 법당, 방 2개, 주방, 화장실
- 보증금,시설비포함 1300만원월 70만원

02)434-3362
016-9511-0840

사찰(급)안내
016-9771-2736

신도시 주거 상업지역
- 500평, 1000평
- 평당 15만원~ 30만원사이

017-346-8149

사찰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역세권
- 크기 : 2층 약 50평
- 삼존불, 후불탱화 3점, 지장전, 법당 18평, 큰방 2개, 주방, 화장실 따로. 시설완비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결정

016-261-206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북구(경북대 후문) 대로변
- 평수 : 신축 건물 130평,주차장 완비 (5층 중 4 ~ 5층)엘리베이터
-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40평
- 시설 : 삼존불, 각단 및 사천왕 탱화 500옥불 인등, 방7개, 화장실 5개, 일제 시스템 에어콘, 무선앰프, 집기류 일체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190만원 시설비 1억4천만원

※ 최적의 포교중심지. 몸만 오시면 됨
053)959-0490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55)323-2858
011-9542-57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덕포 초등학교 앞
- 평수 : 50평
- 삼존불,지장전 모두 갖추어져 있음
- 집기 일체 포함, 법회 즉시 가능함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51)303-7477
011-9338-7477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법화 정법회.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정부 · 지자체, 성보박물관 예산지원 마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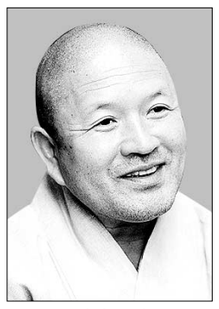
범하 스님 재정난 타개 전제요건 지적
"문화재 관람료 본래 목적에 활용해야"

"성보박물관의 문화재는 공공의 재산인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지원을 해야 하며, 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 성보박물관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

통도사 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종교박물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박물관협회(회장 김종규) 주최로 구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 성보박물관의 고질적인 재정난 타개를 위한 전제요건으로 정부 · 지자체 · 사찰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보박물관이 박물관법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박물관 운영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트숍 등 부수입원 또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사찰 또는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성보박물관이 건립단계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지만 개관 후에는 예산지원이 없다보니 성보박물관을 만들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면서 "성보문화재는 어느 개인이나 사찰의 소유가 아닌 국민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하 스님

범하 스님은 사찰 측의 책임도 강조했다. "성보박물관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닌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시청각 포교의 장이므로 성보 보존이 수행이며 신앙의 한 방법임을 인정해야한다"며 "종단 종법을 개정해 관리 책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 "문화재 관람료의 원래 목적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알리는 데 사용돼야 하는 것이다"며 "사찰의 고정 수입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문화재 보존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보박물관 운영 전략과 관련 "각 사찰은 창건 연기에 따라 예배 대상이 달라지고 규모와 구조가 달라진다"며 "천편일률적인 불교문화재 전시를 지양하고 특성화된 박물관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성보박물관을 짓기 전에 소장유물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규모와 운영방향이 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하다보니 박물관을 개관하더라도 운영경비를 감당할 수 없어 박물관 기능의 수행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범하 스님은 통도사박물관(불교회화), 직지사박물관(금석문), 수덕사근역성보관(전적류) 등을 특성화 성공의 예로 제시했다.

성보박물관이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로 범하 스님은 스님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다. "스님들은 보시 개념이 강해 박물관의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절의 일을 도와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 이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며 "이 같은 스님들의 잘못된 인식이 전문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성보박물관은 향후 기존의 유물 전시나 보존 등의 역할을 넘어서 사찰별로 진행되고 있는 불사를 감독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불사가 종교적 교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예술미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고 범하 스님은 덧붙였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한지와 소창으로 포장된 종을 무진동 저상차량에 싣고 있다.

보물 2호 보신각종 용산 '새집'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10만여점 이전 완료

보물 제2호 보신각종이 12월 20일 경복궁 종각 터를 떠나 용산 새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보신각종은 높이 372cm, 직경 273cm에 무게는 24톤으로 18.9톤인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을 능가하는, 단일문화재로는 국내 최대규모.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의 보신각종 이전 행사는 고유제(告由祭)로 시작됐다. 이건무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삼배(三拜)를 올리며 종의 안전한 이전을 기원했다.

이어 화학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중성지(한지)와 순면 소창으로 포장된 종은 대형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져 무진동 저상차량(low bed trailer)에 실렸다.

종을 실은 차량은 서울교통경찰대의 호위 속에 세종로에서 용산에 이르는 길을 시속 5~20km로 달려 약 한 시간만에 새 박물관 종각터에 도착했다. 종각은 종을 먼저 자리에 놓은 후에, 2005년 날이 풀리는 대로 새로 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균열이 워낙 심해 걸지는 못하고 종각 안에 괴어놓게 된다.

조선시대 세조 14년(1468)에 만들어져 정릉사에 걸려 있다가 원각사, 보신각으로 옮겨졌으며, 광복 이후 1985년 '제야의 종' 타종을 끝으로 경복궁에 보관되던 이 종은 평탄치 않은 세월을 뒤로 하고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쉬게 됐다.

이로써 10만여 점에 달하는 소장품 이전이 마무리돼 야외 석조문화재만 남게 됐다. 이들 석조문화재는 내년 3월부터 옮길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내년 세계박물관 문화박람회 고양서

7월 1일~8월 21일, 50여개국 참가 예정

'2005 세계박물관 문화박람회(2005 World Museum Culture Expo)'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일보가 주최로 내년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열린다.

'세계로 미래로 하나로'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에는 민속관 자연사관 과학관 기업관 종교관 등 8개 전시관과 이벤트로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50여개국 400여 개 박물관 및 미술관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에는 진귀한 원시 코끼리 화석인 스테고돈, 고생대 식물 화석, 러시아 버섯 화석, 타보 공룡알 화석,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원석, 투탕카멘 등과 고암 이응로 화백의 유작, 도예가 이강세 작품, 독일 신표현주의 거장인 바젤리츠, 임멘도로프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국내 최초의 세계 광물화석 전시회인 제1회 서울 포실리스 쇼를 비롯해 이집트 파라오의 땅, 공룡탐험관, 세계 줄인형극 등의 행사도 계획돼있다. www.wmce.or.kr, (031)911-4577

도굴 문화재 '선의취득' 법적 보호 없애야

문화재청 세미나서 신의기 씨 주장

"도굴된 문화재라 해도 취득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취득했다고 주장하면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민법상의 선의취득제도를 문화재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문화재보호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 주최로 12월 21일(구)국립중앙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열린 '문화재 도난 · 도굴 방지대책 세미나'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연구위원은 "문화재범죄는 대부분 영리목적이므로 타인에 대한 매매를 어렵게 해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선의취득제도를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인 문화재 수요를 차단하는 것만이 도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선의취득이란 민법 제24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이다.

신 연구위원은 "선의취득제도를 두는 이유는 원소유자의 소유권 보호라는 이익보다 거래의 원활한 유통이라는 사회적 이익이 크다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며 "다른 재화와 달리 유통을 촉진하거나 거래를 원활히 할 필요성이 없는 문화재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도굴 · 도난 방지를 위해 학계 · 박물관계 전문가들과 검사가 머리를 맞댔다.

이와 관련 신 연구위원은 "정확한 문화재 실태조사에 근거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문화재 도난시 동일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감정을 바탕으로 한 경매제도를 활성화해 문화재 유통을 양성화함으로써 선의 취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굴 문제와 관련 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동산문화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매장문화재는 90% 이상을 도굴범이 발굴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다"며 도굴의 심각성을 제기한 뒤, "문화재 매장 가능 지역 조사와 체계적인 발굴 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정필 세종대 박물관장은 "밀거래 방지에 대한 국제박물관협회(ICOM) 윤리강령을 박물관인 자발적으로 수용해 유물대장 없는 유물은 구매하지 말자"고 말했고, 이해준 공주대 교수는 이해준 공주대 교수는 "총무원에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발간한 이후 불화 유통이 어려워져 불화 절도가 급감했다"며 "문화재 등급조정과 지정확대를 통해 문화재 보호범위를 넓힘으로써 문화재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경주 남산의 세계' 강좌
강우방 교수 1월 5일부터

강우방 이화여대 초빙교수(미술사학과)는 일향 한국미술사연구원에서 경주 남산의 불교유적에 대한 강좌를 갖는다. 2005년 1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이번 강좌를 통해 강교수는 평지가람과 산지가람의 성격을 밝히고, 불상 · 탑 그리고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수강 신청은 1월 5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kangwoobang.or.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문화재안내판 품평회 개최
문화재청 2월 15일까지

문화재청은 전국의 문화재안내판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품질을 평가하는 '국민이 뽑는 문화재안내판 품평회'를 개최한다. 문화재안내판 개선과 문화유산에 대한 애호심 증진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품평회는 안내문안 분야와 안내판 분야로 구분해, 각각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접수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안내판 개선은 유홍준 청장이 취임 초기부터 천명해온 것으로 문화재청 홈페이지(www.ocp.go.kr)에서 접수 가능하며, 기간은 2005년 2월 15일까지다.

佛心에 원력이 깊으신 투자자를 모십니다 국내최초 불교병원

방부불교병원은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자비실천운동을 펼치는 불교종합병원입니다.

"
병자를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만일 병든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돌보지 않으면 법률로서
다스리리라.
이것이 내가 내린 명령이니라.
〈증일아함경〉
"

제일은행 725-10-022949(예금주 방부의료법인)

투자문의 062-221-3204
011-655-1406 / 011-613-9050

불교세가 약하다는 호남의 중심 광주 한복판에 '불교'의 이름을 걸고 佛法 수호는 물론 부처님의 慧命을 받들고자 신명을 다해 250여 병상을 갖춘 '방부불교병원'을 개원해 1년여를 운영해 왔습니다.
오로지 빛고을 광주에 佛心을 일으키고, 열악한 불교 의료환경에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마음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마음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영 미숙으로 상당한 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부처님 전 눈물로 기도에 매달리지만 현실의 냉정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국 제방의 대덕스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佛心에 원력이 깊으신 佛子 여러분에게 투자해주시기를 읍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전 애원하면서 중생 환우들을 구하실 法友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약사여래불

갑신년 10월 관음재일에
병원장 홍기표 합장



현대불교신문 465호(2004.3.17) 게재

진한감동, 따뜻한 병원
방부불교병원 BANGBU BUDDHISM HOSPITAL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88-14
Tel. 062)221-3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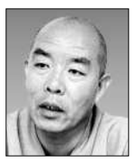
• 가정의학과 Ⅰ · Ⅱ · Ⅲ • 내과 Ⅰ · Ⅱ • 일반외과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비뇨기과 • 마취통증의학과 • 영상진단의학과 • 예진실 • 종합건강증진센터 • 응급실 등

일주문



은해사 교구종회 열어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은 12월 29일 오후2시 승가대학원 강당에서 2005년 사업계획 심의를 위한 교구종회를 개최한다.



동대 불교최고위과정 2기 수료식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보광 스님은 12월 23일 동국대 학술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제2기 불교지도자최고위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신심명' 등 선문학 특강

한국선문화연구원 원장 성본 스님은 12월 18일부터 2달간 서울 성북동 연구원 법당에서 <신심명> 등을 주제로 선문학 특강을 실시한다.(02)765-6539



목동청소년수련관 겨울맞이 축제

서울시립 목동청소년수련관 관장 경륜 스님은 12월 28~29일 청각 · 시각장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2004 Winter WaWa 청소년 축제'를 개최한다. (02)2646-6815



빈그릇운동 감사패 전달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12월 2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빈그릇운동 기금 전달식을 열고 탤런트 김미숙, 배종옥, 김수미씨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민주평통 기여 대통령 표창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법혜 스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12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전국 우수단체 표창을 받았다.



경북불교대학 불광인의 밤 개최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학장 돈관 스님은 12월 22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불광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불광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땅 사람 생명' 주제 사진전

불자사진작가 조문호씨가 '땅 사람 생명'을 주제로 하는 사진전을 12월 22~28일 서울 인사동 덕원 갤러리에서 열었다.



은평복지관 장수어르신 송년잔치

서울 은평노인종합사회복지관 고재욱 관장은 12월 16일 관내 90세이상 고령노인들을 대상으로 '장수 어르신 송년잔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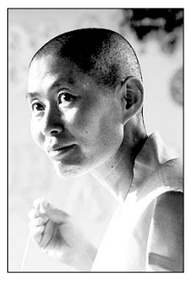


광주전남 포교사단의 밤 개최

광주전남 포교사단 김인수 단장은 12월 18일 광주 마이웨딩 4층 연회실에서 '2004 광주전남 포교사단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 — 본지 선정 올해의 인물 — 인간배아복제 성공 황우석 교수

올 한해만 단식 124일 도롱뇽 소송 꿋꿋이 진행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사진)은 2001년 천성산 살리기 운동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도롱뇽 등 천성산의 뭇 생명들을 구하기 위한 2차례 단식과 100일 동안의 삼천배 정진, 부산에서 천성산까지 삼보일배 등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그리고 2004년 스님은 '도롱뇽 소송'을 제기하고 100일간의 천성산 공사 현장 농성과 6월 30일부터의 58일간 단식, 10월 27일부터 12월 22일 현재까지 57일째의 생명을 내건 제4차 단식 정진을 하며 자연과 인간의 부조화한 삶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율 스님의 단식 정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정진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부터 '이제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까지. 그러나 지율 스님은 "원칙과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항의해야 하고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지난 11월 29일 부산고법은 '도롱뇽의 친구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고속철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법 원리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지만 아직은 자연과 약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재판부도 지적했다시피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지난 수십년간 진행됐던 졸속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앞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환경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없애자는 공감대를 형성시켰다는 점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세계적 과학 업적 3위 뽑혀 불자답게 윤리적 소신 지켜

올해 초 인간배아 복제실험에 성공했다는 황우석 교수(사진) 연구팀의 발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황 교수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사람 난자로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해 당뇨 · 파킨스씨병 등 불치병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이 기적 같은 소식은 국내외 통신과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됐다.

세계적 권위의 과학잡지 <사이언스>誌는 최근 황 교수의 연구 업적을 올해의 의미 있는 10대 과학적 발견 가운데 3위로 평가 했다.

황우석 신드롬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올한 해 동안 황 교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화제가 됐다. 그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진정한 '올해의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불자들은 그가 '심산'이라는 법명을 가진 불교인이라는 사실에 더욱 뿌듯함을 느꼈다.



일부에서는 황 교수의 연구가 생명윤리를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연구가 "이제 겨우 숲이 아니라 겨우 나무를 보는 정도며 중생을 위한 불치병 치료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10월 6일 동국대 불교대학원 최고위과정 특강에서 황 교수는 자신이 줄기 세포연구에 매달리게 된 배경, 고비마다 불심에 의지해 역경을 이겨냈던 사연, 그리고 불자이면서 과학자로써 겪는 윤리적 갈등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혀 불자들을 감동시키기도 했다. 이날 황 교수는 강의 끝 무렵 "능엄경에 나오는 불교의 생명관이 제가 평소 생각해온 생명관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며 다시 한번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작가 윤청광 씨 '賞福'

행원 · 대원 · 보리방송문화상 등



40여 년간 방송작가 겸 불교전문문학 작가로 활동해온 윤청광씨(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 사진)가 올 한해 불교계에서 주는 큰 상을 잇달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윤씨는 문학과 방송활동을 통해 대중포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지난 9월 24일 제13회 행원문화상 문학상, 11월 19일 제2회 대원상 특별상, 11월 23일 제12회 보리방송문화상 총무원장 상 등 잇달아 굵직한 상을 수상했다.

한국불교를 이끈 24명 고승의 구도행적을 집대성한 <고승열전> 시리즈를 완간하기도 했던 윤씨는 <불경과 성경X오발탄>등의 작품을 통해 대중포교에도 크게 기여했다.

조용수 기자

대불련 새 회장 김홍현 씨



"대불련의 변화와 희망은 언제까지나 계속됩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대불련을 만들겠습니다."

12월 19일 동국대에서 열린 총회에서 43년차 신임회장에 선출된 김홍현 씨(시립인천대 · 사진)는 이렇게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 회장이 대불련 43년차의 3대 핵심 사업으로 내세운 것은 '변화' '배움' '포교'. 대불련이 '변화'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의식과 불교계 환경에서 중심으로 자리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데이터베이스, 파일링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불련 자료를 전국적으로 공유시킬 계획이다. 김 회장은 "전국 모임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집단으로 대불련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인도철학회 새 회장 법산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사진)이 12월 20일 인도철학회 정기 이사회에서 임기 2년의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부산외대 등의 관련 학회들과의 교류 활성화 등 학회의 외연을 넓히는데 노력할 것"이라는 법산 스님은 "회원 자격강화 등 학회의 질적 향상 방안들을 마련해 인도철학회의 위상을 높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대목장 고택영 옹 별세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기능 보유자 고택영 씨(사진)가 12월 19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고택영 대목장은 조계사, 무위사, 북한산성, 전남 도각사 해탈문, 경복궁, 화엄사, 해인사 팔만대장경, 전북 금산사 등을 보수했으며, 1997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받았다.

JSA 군법당 통일기원 영수사 개원



남북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군법당 '통일기원 영수사'(법사 박래석)가 12월 18일 개원됐다.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과 국군불교 총신도회장 권영기 중장, 군종실장 김말환 법사, 불상조각가 허길량 씨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동화사 대구불교대학의 밤



대구 동화사 대구불교대학(학장 지성)은 12월 17일 대구 전자관 웨딩프라자에서 '대구불교대학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교학처장 혜경, 원일, 일경 스님과 대구불교대학 동문과 재학생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선관무 등 전통무예 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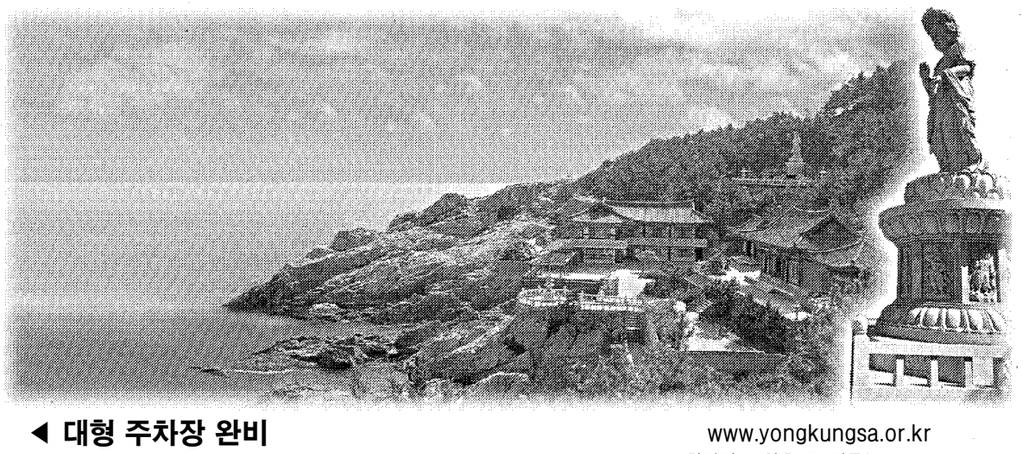


(사)국민생활체육 서울시전통무예연합회(회장 원욱)는 12월 11일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에서 제3회 국민생활전통무예대회를 개최하고 수벽치기, 선관무 등 전통무예를 시연했다. 이날 행사는 5개 체육관 어린이들의 태권무 경연도 함께 열렸다.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乙酉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HAE DONG YONG KUNG TEMPLE
전화: 051) 722-7744,7755

불교의식(범음범패)수련생 모집

● 불교의식반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20기)**
-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화요일 · 금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① 송주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 · 조석예불 · 각단예불 · 향수해례 · 사성례 · 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 **교육방법 : 2005년 1월 7일 (금) 오후 2시** (목탁, 필기구 지참)

● 재의식편 특별교육

- **교육내용 :** 49재 · 천도재에서 꼭 필요한 작법을 집중 지도 (태징, 북, 바라 포함)
- **개강일시 : 2005년 1월 6일 (목) 오후 2시**

문의 전화 02)720-1836 733-1959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불자 세상보기

구 승 회
동국대 교수 · 윤리학

연말에 '정산' 할 것들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 또 연말정산을 할 때다. 해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다진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은 소시민의 어려운 살림살이, 청년 실업 등 '이곳의 작은 정의'가 아니라, 국보법 폐지, 과거사 규명, 사학 민주화 등 자고 새도록 '저곳의 큰 정의'를 위한 싸움에만 매진하였다.

시부모 모시는 논쟁에서 모든 남편은 모든 아내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듯이, 혹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검(寶劍)을 지닌 생명 · 의료윤리학자는 복제기술자보다 언제나 유리한 논쟁의 입지점을 가지듯이, 지난 한 해 우리는 공정성, 민주, 진보, 개혁이라는 고상한 이름의 '저 크고 강한 로고스'에 짓눌리며 살아왔다. 압도적인 다수이면서도 헤겔 풍으로 '현실적인 것은 정의이고, 정의로운 것은 현실'이라고 항변하지도 못한 채 말이다.

정치는 현실이기에, '현실 정치'는 사실을 지향해야 하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은 일년 내내 꿈을 지향해 왔다. 저러한 소수의 유토피아적 정의론자들 앞에 서면 우리는 늘 타협에 익숙한 비겁한 현실주의자로 한없이 작아진다.

대의(大義)와 소견(小見)의 갈등을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소극적인 회피 전략을 쓴다는 점에서 나는 비겁한 현실주의자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는 소견으로 사는 현명한 길임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돌아보는 삶은 아름답지 않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이 원칙에 근거하여 동문회를 비롯한 일년을 회고하는 각종 송년 모임에 나가지 말자. 왜 안 오느냐고 물으면, 1년이든 10년이든 인생 전부든 한 게 없어 차마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는 공식적인 불참이유를 대면 된다.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후회도 반성도 필요 없고, 긍정과 부정을 넘어 가치중립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한 번의 판단 착오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오직 그 순간에만 유효한 판단만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누구의 시처럼, 바람보다 먼저 판단하고, 바람보다 먼저 결정하는 이런 원칙은 결정과 판단의 오류가능성을 누구보다도 많이 짊어져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오류가능성이 큰 결정은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원칙은 자기 파괴적이라 비판할 것이다. 그래서 '남보다 먼저 포기하라'는 제1 보충 원칙이 필요하다.

이는 매사에 '지는 게임'을 하자는 것인데, 처절한 생존 게임에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태도만큼 든든한 배후는 없다. 그것은 수없는 '패배'를 통해 확인된 철저한 경험법칙이다.

이로부터 '인생을 계획하지 마라'는 제2 보충 원칙이 나온다. 모든 인생계획은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는 수립할 수 없다. 계획을 세우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계획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나는 삶을 자신의 계획 하에 둘 수 있다고 믿거나,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그것은 내가 신념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뜻을 세우기에는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대원칙과 두 개의 보충 원칙은 종도 다양하지 않고 개체수도 적은, 그러나 고고한 1급수 어종에 해당하는 유토피아적 정의론자들의 눈엔 타락한 기회주의자, 무책임한 쾌락주의자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붕어처럼 3급수 탁류에서 행복해지고 싶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희망의 원리'일지도 모른다. 이 원칙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내년 1월에는 '찰나적이고, 아슬아슬한 임기응변이 주는 즐거움'을 추가로 환급받을 것이다.

※小見 한자는 필자가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것임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사랑의 온도'가 지금 60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지난 1일부터 펼치고 있는 연말 '2005 이웃사랑 캠페인'의 '사랑의 체감온도 탑'이 가리키는 현재 한국인들의 이웃사랑에 대한 체온이다.

경기 불황으로 얼마간의 소비조차 주저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인으로서는 의외로 따뜻한 체온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이웃의 손길에서 소외된 불우이웃이 적지 않다. 이웃돕기 캠페인이 한시적 아닌 연중행사로 바뀌면서 매체마다 불우이웃 찾기와 이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이어주고 있으나 아직 도움의 사각지대에서 끼니조차 때우기 힘든 불우한 이웃이 많다.

네 살짜리 장애아가 굶어죽자 이에 당황한, 역시 정신지체 장애인인 어머니가 시신을 이틀 동안 장롱 속에 넣어두었다가 한 종교기관에 '먹을 것이 없으니 도와 달라' 호소했다는

추운가? 주변을 둘러 보라

소식은 우리 사회의 극빈자 구호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부의 하루 일자리도 찾기 어려워 한달에 일주일 정도는 통째로 굶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 가족은 극빈층에다 장애인 가족이었음에도 국민기초생활 급여나 장애급여대상에서 빠져있었다. 극빈자 구호체계에 구멍이 많다는 증거가 아닌가.

어디 이들뿐이겠는가. 저소득층의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요즘, 구호업무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올해 '사랑의 온도'에서 보듯 한국인의 마음은 따뜻하고 불우이웃을 돌보아야 한다는 마음도 크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불자들에게 육바라밀 최고 덕목인 보시바라밀 실천을 돕고 있는 본지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서도 우리는 그 따뜻한 마음들을 보고 있다. 아무리 경제여건이 나쁘더라도 우리에게 불우이웃을 도울 경제력과 능력은 있다. 그리고 자비와 사랑, 보시에 대한 인식 역시 확산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희망일 것이다.

네 살짜리 장애아의 죽음을 보며 극빈자 구호에 책임 있는 정부가 나서 우리 사회, 도움의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정상화시켜 줄 것을 당부한다. ■ 김징자(칼럼니스트)

자원봉사 현장에서

대학병원 '놀이방' 문닫은 까닭은?



이 희명화
(신수회장 · 조계종 포교사)

장난감 소독 한번 안 해주는 병원 야속

생색내는 일만 찾는 봉사자 의식도 문제

특별한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는 자원봉사활동이 있다. 그저 누구나 갖고있는 아름다운 마음만 꺼내쓰면 되니까…. 그 맑은 마음은 퍼내고 퍼내도 마를 날이 없기 때문에 마냥 행복한 물건이다.

이 세상에는 그늘지고 소외된 삶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면 눈물만 흘러내리기도 한다. 힘들고 그늘진 곳에서 나를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갔고, 그곳이 차츰 세간에 소문이 나서 찾아오는 봉사자들이 많이 생길 때면 언제라도 산뜻하게 떠나버리는 것이 지금껏 해온 나의 봉사방법이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시작했다가 몇달 안되어 문을 닫은 병원 놀이방 봉사는 힘든 경우였기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호스피스활동을 시작한지 2년째가 되었다. 요즘 가정경제가 어려워지자 병동의 입원환자들은 차츰 가정간호로 돌아가고 있다. 호스피스 대상자들이 줄어들게 되자 봉사자 인력은 남아돌게 됐다. 어느날, 병원직원에게서 봉사자가 없어서 3년째 비워둔 병원 놀이방을 운영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평소 어린이를 좋아하고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기에 쾌히 승낙을 하였고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몇몇 법우들과 놀이방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본관 13층에 있는 무료놀이방은 소아과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되었다. 처음 놀이방 문을 열어보니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병원측에서는 그저 공간만 제공해 주었을 뿐 일체의 보조는 없었다. 놀이방 이용자는 대부분이 입원어린이와 외래진료를 받으러 온 아이, 엄마가 진료를 받는동안 아이를 맡기기도 하는 다양한 공간으로 제공되었다. 간병인과 보호자들도 따끈한 차 라도 한잔 하면서 잠깐씩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우리 봉사자들은 배려를 해주었다.

병원내에는 교회가 아주 번듯하게 세워져 있고 천주교에는 원목실과 집회할 수 있는 대강당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불자를 위한 법당은 없다.

임종이 가까운 환자들중에는 스님의 손이나 장삼자락이라도 잡고자 간절히 원하는 이들이 있다. 소아과병동에서는 어린아이가 고열로 입원하고 있을 때나 큰 수술을 받을때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법당을 찾고자 하는 부모들을 볼 수 있다. 불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스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든가? 그래서 놀이방이 비록 불상은 모시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며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꾸려왔다. 그렇게 운영해 오던 놀이방을 병원측 무성의에 반발하여 문을 닫게 되었다.

하루에 20여명이 다녀가는 놀이방을 6개월동안 장난감 소독조차 한번 해주지 않았고, 손 씻을 종이타월도 마련해 주지 않아서 봉사자들이 빨아대는 수건으로 환아들의 손을 씻어주었다. 주말을 쉬고 월요일에 출근해 보면 놀이방이 난장판이 되어있었다. 또한 우리가 붙여놓은 무료놀이방 홍보물 포스터도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병원측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물어보면 "누가 문을 열어주었을까? 우리는 교대근무를 해서 잘 모르겠네요…." 하며 말꼬리를 흐리고 만다.

그렇게 무성의한 병원측에 실망한 봉사자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며 마음이 떠나갔다.

입원해 있는 동안 놀이방을 자주 놀러오던 아이가 퇴원하는 날이면 봉사자들은 색종이로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 선물로 건네기도 하고 연꽃 컵등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몸이 아파서 짜증을 내는 어린아이를 달래주려고 함께 색종이접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서 벽에 붙여 놓기도 했다.

어린이들이 많이 모인 날에는 비디오를 틀어주거나 손가락인형을 갖고서 구연동화를 들려주기도 했다. 놀이방을 찾아오는 환아 부모들과 방문객들은 우리 봉사자들에게 너무 좋은일을 한다며 무척 고마워했다.

구의동 우리집에서 휘경동의 그 의료원까지 가려면 하루에 8번씩 차편을 갈아타야만 했지만 어린이들을 위하고 또한 한명의 불자라도 만나기 위하여 나는 힘들어도 힘든줄 모르고 날마다 그 길을 다녔다. 병원측의 무관심과 무성의에 화가난 법우들은 병원봉사를 포기하고 떠나기 시작했다.

나는 다급해져서 봉사자들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찾아 다녔고 곳곳을 두드리며 봉사자를 한 두명 이라도 보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모 스님은 내가 어리석어 보인다는 듯이 "보살! 공연히 힘빼지말고 그만둬. 지네들이 부처님 보고 싶으면 법당으로 오면 되잖아. 스님들 그렇게 힘든일 하기 싫어하니까 복잡한 일 만들지 말고." 하신다.

친분이 있는 불자들은 "어느 스님이 운영하는거야? 무슨 단체에서 하는데? 우리 스님은 다른데 가서 봉사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셔서 안돼…." 하며 명분이 있고 알려진 일이 아니면 선뜻 나서주지를 않았다. 혼자서 애닯은 시간을 보낸지 얼마안되서 놀이방의 문을 닫고 말았던 것이다.

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그들에게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병원내 작은 법당이 꼭 생기기를 발원한다.

퇴원을 하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떼지 말라고 약속하던 아이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늘상 함께해준 법우들에게 마음고생만 시킨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어찌보면 부질없는 짓이겠지만 혹시라도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서 원력 큰 불자가 나타나 그 병원에 맑은 옹달샘 같은 법당이 자리하기를 기대해본다.

'현대' 만평

심 민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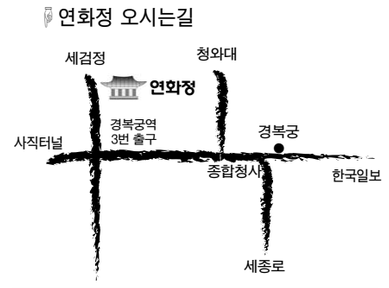
연화정은 선과 차문화 공간 입니다.
연화정사를 건립하기 위한 원력도량 입니다.

차향 가득 ~
蓮華井茗茶



*몽황단총 *대홍포
*무이수선 *철관음
*야생고정(천상유수) *고정차(일엽차)
*장뇌삼씨앗차 *보이산차
*보이차 - 1967~1970년 초, 대엽청병,야생교목,노교목청병
*화(花) 차 - 다양한 화차(꽃차)

연화정 오시는길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150m 통의동 우체국 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92번지 연화정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 통의동 우체국 뒤) / Tel : 02)739-1811 / Fax : 02)739-1812

불교TV를 사랑해 주시는 불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Btn 불교TV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아름다운가게에서 만난 불자들

"이 스웨터는 얼마예요?"

"2천원입니다. 며칠 전 한 아주머니가 기증한 옷인데, 무척 아끼던 것이었다고 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 장난감에서부터 옷과 식기, 책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는 이곳은 '아름다운 가게'다. 누군가가 사용했던 '사연 있는 물건'을 기증받아 깨끗이 수리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가게는 지난 2002년 '나눔과 순환'을 화두로 삼아 서울 안국동에 1호점을 개장한 이후 불과 2년 만에 전국적으로 34개 지점이 문을 열었다.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상생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가게의 이념은 불교사상과도 맞닿아 있다. 그래서인지, 가게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무보수로 도맡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불자들도 많다. 아름다운 가게 삼선교점의 점장 맹행일, 봉은사점 명예점장 김경남, 시계 및 귀금속 수리 봉사를 하는 강용배씨가 바로 그들이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만난 불자 봉사자들은 한결같이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며 살다보면, 어느새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글=이은비 기자 · 사진=고영배 · 박재완 기자



맹행일(삼선교점 점장)

아름다운 가게 2호점인 삼선교점의 점장 맹행일(63)씨는 석유화학 기업체 임원으로 일하다 2002년 퇴직한 후 봉사활동으로 삶을 회향하는 불자다. 참여연대에서도 봉사를 하던 맹씨가 아름다운 가게의 점포를 도맡게 된 것은 평소 그가 고민해 오던 환경문제의 해결점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는 필요가 없지만 쓸 만한 물건을 기증하는 것은 환경파괴와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돕는 보시이기도 합니다. 자원도 아끼고 남도 도울 수 있으니 모든 행위가 곧 선업을 쌓게끔 연결되어 있는 셈이지요."

'아끼고 돕는 일' 건강한 삶의 키워드

맹씨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게에서 말하는 '그물코 사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물코 사상'이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며 <화엄경>에 나오는 '제석천의 인드라망' 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맹씨와 함께 삼선교점에서 일하는 불자 자원봉사자 오정자(53)씨는 "요즘 멀쩡한 물건도 마구 버려지는데,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버려질 물건들이 새 인연을 만나는 것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아름다운 가게 삼선교점 불자 봉사자들.(오른쪽 부터 점장 맹행일, 오정자, 이정희, 권민경씨).

나눔, 이 아름다운 순환에 동참하세요!



김경남(봉은사점 명예점장)

사찰로서는 부천 석왕사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연 봉은사점은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차원을 넘어 수익금을 불우 청소년 장학금으로 이용한다. 봉은사 점의 명예점장 김경남(50)씨의 '법보시가 보시 중의 제일'이라는 평소 신념 덕분이다.

서산 · 사명장학회 회장이기도 한 김씨는 아름다운 가게가 봉은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금을 장학사업에 쓰도록 제안한 장본인이다. 그중 일부는 봉은사에서 운영하는 서산 · 사명장학회에도 분배된다. "더 많은 기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한 명이라도 더 장학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김씨는 "그러기 위해선 기증품이 지금보더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봉은사점은 하루에도 사찰신도 200~300명이 들를 뿐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기증품이 들어온다. 하지만 정작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물품은 5~6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익 장학금으로… "모든 것 쓰일 곳 있어"

"'이런 것도 기증품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부처님이 낡은 가사를 걸레로도 쓰고 나중에는 흙과 함께 섞어서 벽으로 바르는 데까지 썼듯이, 아무리 하찮고 낡은 물건이라도 모두 쓰일 곳이 있습니다. 주위를 한 번 둘러보면 나에게는 소용이 닿지 않지만 쓸만한 물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증품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품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다듬는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거쳐 아름다운 가게의 진열장 위에 오른다. 물품을 수거하여 분리하는 자원봉사자부터 구두수선 봉사자, 세탁 봉사자, 기계 점검을 맡은 봉사자 등 아름다운 가게를 돕는 손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강용배(아름다운 가게 시계 수리)

아름다운 가게의 시계와 귀금속을 수리하는 '시계 의사' 강용배(50)씨는 드러나진 않지만 묵묵히 봉사를 하고 있는 불자다. 그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2급 지체장애인이다. 1992년 장애인 전국 기능대회 시계수리 부문 금상을 수상했고 시계회사에서 8년간 책임자로 근무했던 시계 베테랑. 강씨의 손을 거치면 아무리 망가진 고철 시계라도 말끔히 되살아난다.

17일 강씨가 운영하는 암사동 시계점 '보석당'을 찾았을 때 한 구석에는 고장난 손목시계들이 보따리 가득 쌓여 있었다. 강씨의 손을 통해 고쳐지는 시계들은 한 달에만 줄잡아 백여 개.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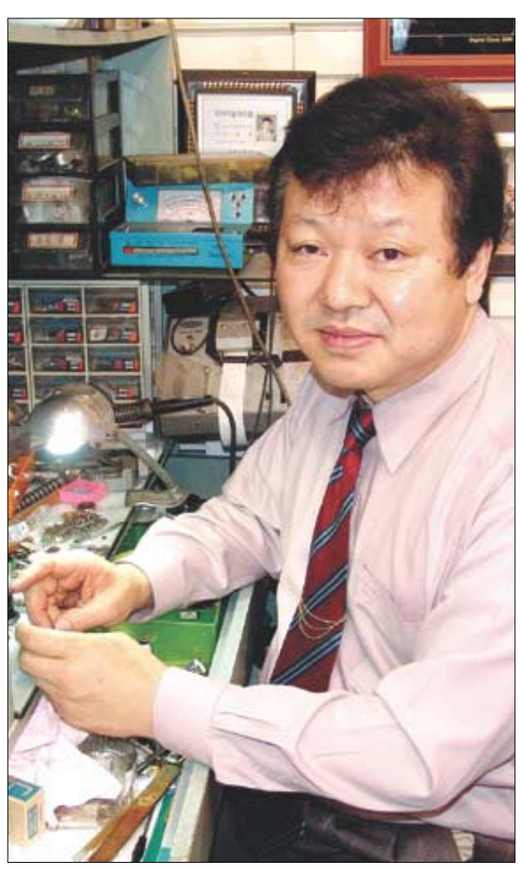
"누구나 도움 받고 살아…나누는 것 당연"

그는 아름다운 가게로부터 부품비용조차 받지 않는다.

"올해 초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나 아니면 누가 아름다운 가게에 들어오는 시계들을 고치나'란 생각에 병원으로도 시계를 가져가 고쳤다"는 강씨는 최근에는 아예 2시간 일찍 출근하고 일과 후 밤 11시까지 기증된 시계들을 고치고 있다. "비록 내 몸이 불편하지만 내가 살면서 주변에서 도움 받아온 걸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술로 보탬이 된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 어느 종교보다 보시와 자원재활용에 앞장서야 할 불자들이 낡은 물건 사기를 꺼리거나 기증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평생 탁발을 하고 시체 싼 옷으로 가사를 해 입으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제가 있는 '禪' 이야기

선어삼백칙 (禪語三百則)

'선어삼백칙 – 주제가 있는 선 이야기 삼백 가지'는 역대 선지식들의 수행담과 득도를 향한 열정이 담긴 핵심적인 어록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스스로 불성을 지니고 있다', '문득 깨달아 부처가 된다', '한 올도 걸리지 않는다' 등 주제별로 선수행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 무조건 '어렵다' 고만 느껴온 선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자, 이것이 바로 너의 보배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조금의 흠결이나 부족함이 없다.
자유자재로 사용하는데 어찌 바깥에 의지하여 찾는가.나는 홍인화상의 처소에서 한 번 듣자 바로 크게 깨달았다. 문득 진여본성을 보았다. 찰나 사이에 망령스러운 생각이 함께 없어지니 바로 스스로 진정한 선지식인 것이다. 한 번 깨달으면 바로 부처임을 안다. 모름지기 알라.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남을 따라서 얻을 수 없으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계급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만일 이 사람을 안다면 일생 동안 공부하는 일이 끝날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부처를 찾으면 이 사람은 부처를 잃어버릴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도를 찾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도를 잃어버릴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조사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조사를 잃어버릴 것이다. 설사 백 권의 경전과 논서를 깨우쳤다 하더라도 아무 것도 일없는 스승만은 못하다.

신국판 / 420쪽 / 차차석 譯解 / 값 10,000원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여시아문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
<16 · 끝>



관불삼매

<관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량수불의 몸은 100천만억 야마천의 염부단 금색과 같다. 부처님 몸의 크기는 60만억 나유타 항하사유순이며, 미간의 백호는 오른쪽으로 아름답게 휘어 감아져 다섯 봉우리 수미산과 같다. 부처님의 눈은 네 개의 큰 바다와 같은데 청색과 백색이 분명하다.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는 광명을 솟아내는데 수미산과 같다. 저 무량수불의 원광(圓光)은 100억 삼천대천세계와 같다. 원광 가운데는 100만억 나유타 항하사의 화신불이 있다. 하나하나 화신불 가운데 역시 헤아릴 수 없는 화신의 보살들이 모시고 있다. 무량수불은 8만4천의 모습(相)이 있다. 하나하나 모습 가운데 각기 8만4천의 훌륭한 호(好)가 있다. 호 가운데 다시 8만4천의 광명이 있어, 시방세계 염불중생을 두루 비추어 섭취하고 버리지 않는다.

그 광명과 상호와 화신불은 말로 다할 수가 없다. 다만 마땅히 생각하여 마음의 눈으로 볼 뿐이다. 이러한 경계를 보는 자는 곧 시방의 일체 부처님을 볼 것이다. 모든 부처님을 보기 때문에 관불삼매라 이름 한다. 이 관을 지으면 일체 부처님의 몸을 관함이라고 이름 할 것이다. 부처님의 몸을 관하기 때문에 역시 부처님의 마음을 본다. 부처님의 마음은 대자비이니 무연(無緣)의 자비로써 모든 중생을 섭수하신다. 이 관을 지으면 몸을 버리고 다른 세상에서 모든 부처님 앞에서 무생인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마음을 모아 무량수불을 자세히 관하라. 무량수불을 관하는 자는 하나의 상호로부터 들어가되, 단지 미간의 백호를 관하여 지극히 또렷하게 하여라. 미간의 백호상을 보면 8만4천의 상호가 자연히 나타날 것이다. 무량수불을 보는 자는 곧 시방의 무량한 모든 부처님을 볼 것이다. 무량한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얻을 것이다. 이것을 변관일체색신상(遍觀一切色身相)이라 하고 제9관이라 이름 한다. 이 관을 짓는 것을 정관(正觀)이라 하고, 만약 다른 관을 지으면 사관(邪觀)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신관(眞身觀)이란 무엇인가? 법신은 모습이 없어 중생의 눈으로 볼 수가 없으나, 그 덕상(德相)은 수승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理)를 바탕으로 경계(事)를 관(觀)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무량한 자비광명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도록 합니다.

마음모아 무량수불 관하면
시방의 무량한 모든 부처 볼 것

관상염불에서 진신관은 무량한 상호, 무량한 덕상, 무량한 광명인 보신의 경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을 심화하여 산란한 마음을 쉬고 법을 받아드려 마음과 경계가 일치되면, 밝은 거울과 같이 무심하고 무량한 광명으로 충만한 심적 상태를 체험하는데 이것을 관불삼매라고 부릅니다. 이 관불삼매로써 아미타불의 진신인 진실상을 보고 무생법인을 얻으면, 정각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일체 경계는 일심인 지혜를 증득해야 합니다.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면 자연히 동체대비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체 중생이 부처요, 한 생명임을 깨달아 보살의 광대한 원행을 구현하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효가 역설하는 염불선이요, 수행의 완성인 일심광명입니다. 법인 '아미타'와 자신이 하나 되는 일심광명을 성취하면 종교마저도 초월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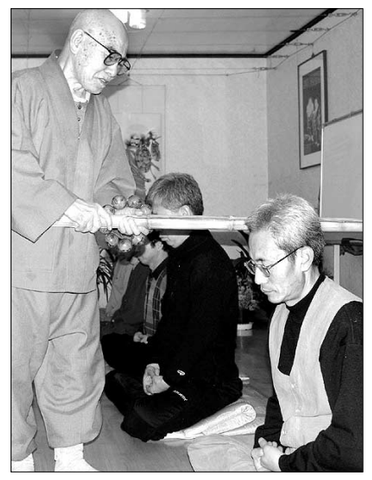
■ 양산 정토원 원장

"육신 굴리는 법신이 나 임을 보라"

정릉 보림선원, 주말 철야참선 현장



서울 정릉 보림선원 재가불자들이 12월18일 선원에서 열린 철야참선에서 정진하고 있다.



경책하고 있는 보림선원장 묵산 스님.

묵산스님 지도…30년 넘게 매주 토요일 철야참선
'무상법신은 허공으로서의 나' 새말귀 화두로 정진

죽비소리가 침묵을 깬다. 2시간 좌선 끝에 10분간의 포행. 선방을 돈다. 두 손을 배 밑에 포개 대고, 굳은 어깨를 추슬러 본다. 하지만 화두는 놓지 않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놈은 무엇인가'를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 그리고 다시 좌복에 침묵이 내려앉는다.

12월 18일 자정 서울 정릉 보림선원(선원장 묵산). 20여 재가 선객들이 '나를 깨닫는' 철야 참선정진에 여념이 없다. 10년 이상의 구참 선객들은 화두 참구에 몰두하느라 꿈쩍도 하지 않지만, 신참자들은 화두는커녕 저린 다리 바꾸기도 바쁘다.

재가자 1천여명 거쳐가

묵산 스님은 철야참선 정진에 앞서 화두를 하나 던졌다. "부처에게 속지 말어. 종노릇 할 생각 말고, 부처와 조사를 두들겨 패. 그러려면 몸뚱아리의 주인이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지."

30년 넘게 주말 철야 참선정진이 열리고 있는 도심 속의 보림선원. 이곳은 '거사풍(居士風)'의 설법과 좌선법을 지도했던 백봉 김기추 거사의 도반 묵산 스님과 제자들이 '이 몸을 쓰고 있는 무상법신을 보고 듣고 알아차려야 한다'는 의미의 '새말귀' 화두를 공부하고 있는 재가불자 참선도량이다. 그간 이 선원을 거쳐 간 재가자들만 1천여 명이 넘고, 재가불교 운동의 동량도 키워냈다. 불교법조인회장 전창열 변호사를 비롯해 우리는선우 대표 성태용 교수(건국대 교수), 대불련 총동문회 명예회장 명호근 쌍용양회 부회장, 국민대 김문환 총장, 춘천지검 김진태 강릉지청장 등이 이곳에서 참선공부를 했다.

백봉 거사가 제시한 이 '새말귀' 화두는 세 포 덩어리인 몸에 의지하지 말고, 찰나찰나 보고 듣고 맛보는 무상법신을 '허공으로서의 나'로 인식하라는 참구법이다. 즉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 육신을 굴리는 법신으로 바로 들어가 보라는 것이다.

남편 전근홍(53 · 청봉)씨와 20년 넘게 새말귀 화두를 실참하고 있는 이언희(50 · 묘련화)씨는 "밥 먹을 때 법신으로서 먹고, 걸어갈 때 법신으로서 걸어간다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이 공부의 핵심"이라며 "결국 내가 법신이라는 것을 직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매주 부천에서 3시간 넘게 이곳으로 출근(?)한다는 문대웅(52 · 문공)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법신을 잘 굴리자, 점심때에는 법신을 잘 굴린다, 저녁에는 법신을 잘 굴렸나'를 항상 점검한다"며 "주말 철야 참선정진은 새말귀 화두를 통해 법신이 육신을 잘 관리했는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자기 수행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주5일 근무제로 철야참선 큰 호응

보림선원의 이 같은 주말 철야참선정진은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시민선원이나 재가 수행단체의 기존 철야정진과 함께 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러한 '토요일 밤의 참선열기'는 바쁜 일과로 인해 수행의 고삐를 잡기 힘든 직장인 등의 재가불자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불자들은 철야 참선이나 1080배, 3000배, 108참회정진 등을 통해 1주일간 챙기지 못한 수행을 집중적으로 하고 한 주를 활기차게 열고 있다.

매주 철야참선의 전통을 이어온 사찰은 서울 보림선원을 비롯해 서울 화계사, 부산 해운정사, 대전 학림사 등이 대표적이다.

화계사 선우회는 26년째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까지 주말 철야참선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부산 해운정사는 10여 년째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주지 스님의 지도 하에 법문 및 참선, 1080배 등을 하고 있다. 1997년 개원한 학림사 오등시민선원은 매주 토요일 조실 대원스님의 증도가 법문에 이어 철야참선을 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1주일간 특별정진주간을 정해 철야정진을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다. 부산 삼광사와 서울 관문사는 기도 기간 중 매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3시 30분까지 철야정진을 하고 있으며, 참여 불자는 하루 평균 1000여 명에 달한다.

매달 한번씩 정기 철야정진을 하는 사찰은 더욱 많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철야정진기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선학원 중앙선원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선정회 주관으로 철야참선을 하고 있다. 양평 법왕정사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3333배 철야정진기도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주말 철야참선 하는 곳

서울	화계사 선우회	매주 토 (02)900-4326
	보림회	매주 토 914-6187
	수선회	매주 토 517-3108
	우곡선원	매월 첫째 토 2055-3111
	선학원 선정회	매월 셋째 토 732-3327
	법련사	매월 마지막 토 733-5322
	미타사	매주 토 662-4736
	길상사	매주 토 741-4698
경기	장안사	매월 마지막 토 (031)703-7766
	봉인사	매주 토 574-5585
부산	해운정사	매주 토 (051)746-4812
	범어사	매월 첫째 토 508-3122
	통도사 부산포교원	매주 토 816-2241
경남	부석사	매월 마지막 토 (054)633-3464
	통도사 극락암	매주 토 382-7083
	해인사 백련암	매월 넷째 토 932-7300
	해인사 원당암	매월 첫 · 셋째 토 963-9551
대전 충청	학림사 오등선원	매주 토 (042)825-0515
	대전구도회	매월 셋째 토 527-0559
	공림사	매월 셋째 토 (043)833-1029
	법륜사	매월 둘째 토 878-6122
대구 경북	대구구도회	매월 마지막 토 (053)654-8533
	축서사	매주 토 (054)672-7579
전라	홍련암	매월 첫 · 셋째 토 (063)263-6072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5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등
· 작 법 반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4년 12월 29일까지
◆ 개강일시 : 2004년 12월 30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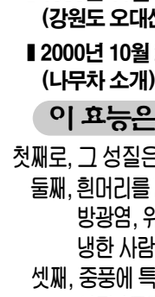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자수 대진 합장

사랑·책임감이 '지도 원칙'

엄마·아빠·딸 모두 요가지도자
박윤정씨네 요가교육 이야기

서양에서 붐을 이룬 동양의 문화가 다시 동양으로 역수입되는 현상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고 있는 요가열풍도 마찬가지다. 아헹가 요가, 아쉬탕가 요가, 스바루빠 요가 등 서양 요기들에 의해 재창조된 하타요가(Hatha Yoga • 몸의 요가)는 서양에서 한 차례 중흥기를 맞은 후 최근 한국 사회로 재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스바루빠 요가는 '정통 아사나에 가장 가까운 하타요가'라고 알려져 있다. 척추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며 심신의 평안을 유도하는 '스바루빠 요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급하기 시작한, '조금은 특별한 요가지도자 그룹'을 만났다.

美서 배운 스바루빠 요가 국내 첫 보급
'승인된 자세'만 지도하며 가풍 유지해



'파완 묵파사나 자세'를 취하면 왼쪽 엉덩이뼈에 실려야할 힘이 척추로 쏠린다. 블럭과 요가담요 등으로 좌골을 지지해주면 척추가 편안해진다.

대구에서 '아난다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박윤정씨 가족은 2000년부터 4년 동안 한반도와 미대륙을 오가며 요가 지도자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요가협회 인증 요가지도자 자격증(RYT: Registered Yoga Teacher)을 받았다.

또한 요가 지도자 과정 가운데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스바루빠 요가 지도자 자격(CSYT: Certified Svaroopa Yoga Teacher)을 취득했다. 3개월간 돈내고 시간만 때우면 지도자 자격증을 무리없이 취득할 수 있는 한국 요가계와는 달리, 최소 2년동안 매진해야만 성취할 수 있는 결과물이었다.

"처음부터 요가 강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잠시 머무르던 곳이 스바루빠 요가 본산 근처에 있어서, 처음에는 건강이나 챙길 요량으로 찾아간 거죠, 그런데 막상 배우기 시작하니 더없이 깊은 세계에 매료되고 말았어요. 10년간 영혼의 스승을 찾아헤맸는데 그제서야 무언가 내게 맞는 수행법을 찾은 듯하더라구요."

전세계 500여명의 스바루빠 요가지도자 가운데서도 탁월한 기량과 수련시간을 자랑하는 박윤정(41)씨는 남편 구본석(41)씨와 아이들에게도 요가를 소개했다. 평소 가족들이 다같이 단학, 아봐타 등의 수련을 비롯해 <금강경> 사경까지 꾸준히 이어오던 터라 새로운 수행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특히 딸 구지연(13)양은 미국요가협회가 인정한 최연소 요가지도자가 되면서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막내 원모(13)군 역시 지도자 과정 도전을 위해 꾸준히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요가 강좌를 시작하면서 가족끼리 처음에는 엄청 싸웠어요. 서로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비판의 날을 세우니 감정 상하는 날도 많았죠. 그런데 지적된 내용을 곱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넷이 함께 성장하게 되더군요."

4인의 공조체계(?) 덕분일까. 지난 8월 이들의 요가스튜디오를 찾은 스바루빠 요가의 창시자 라마 버치(Rama Berch · 미국요가협회 전 회장) 여사는 이들의 수업을 지켜본 뒤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안주하지 않았다. 5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ATT(Advanced Teacher Training)을 시작하기 위해 또다시 태평양을 건넜다. 학생들을 깊은 단계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더 깊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몸과 척추관계를 설명하는 박윤정씨.

"우리는 '승인된 자세'만 가르칩니다. 스승들의 연구와 고증을 거친 지도내용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지요. 지도자 교육 당시 받은 자료에는 특정 자세에 대한 조언과 주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어요. 물론 수업을 오래 하다보면 나름의 요령이 생기게 되지만, 임의대로 지도내용을 변형시키는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라마 버치 여사 역시 지도자 교육 과정 지도에 앞서 그의 스승 스와미 묵타난다를 찾아 '인가'를 받았다고 하지요."

박씨 가족의 스승 라마 버치 여사가 요가의 자세를 '칼'에 비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베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요가라는 것. 그래서 라마 버치 여사는 전세계에서 스바루빠 요가를 지도하고 있는 제자들과 끊임없이 E-Mail 교류를 하며 지도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매년 지속적인 재교육이나 고급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RYT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이들 단체의 특징이다.

박윤정씨 가족은 내년 1월 또다시 스바루빠 요가 본산으로 다시 떠난다. 몸의 준비가 된 학생들을 본격적인 명상으로 안내하기 위한 MTT(Meditation Teacher Training)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다. 1000시간이 넘는 지도자 교육 과정을 이수했지만, "내 자신의 명상의 깊이와는 별도로, '명상을 가르치는 법' 역시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그들이다.

"요가의 근본정신을 전하는 '책임있는 매체'가 되고자 합니다. 올바른 요가가 우리의 몸을 타고 흘러 '요가적 삶'이 충만해진 사회를 맞이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글 · 사진/대구=강신재 기자

스바루빠 요가란?

'자신의 참모습(實相)'을 뜻하는 하타요가(Hatha Yoga · 몸의 요가) 스타일의 하나다. 미국의 라마 버치 여사가 창시한 스바루빠 요가(Svaroopa Yoga)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감정을 다루어가는 섬세하고 온화한 요가수행법으로 알려져 있다.

선별된 동작을 통해 척추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것이 핵심. 척추 근육의 이완은 전통적인 요가동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보통 척추 근육이 경직돼 있어 요가 동작의 효과를 경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요가담요, 블록, 의자 등 다양한 보조도구를 사용해 척추근육을 이완시키고 요가의 효과를 오롯이 경험하게끔 한다.

스바루빠 요가에서는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치유는 물론 깨달음에도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Avatar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선의 세계 71 · 끝

돈수(頓修)와 점수(漸修)-6

원시종교라든가 고대종교와 비교되는 고전종교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시하며 추구하는 가치를 그대로 궁극적인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 거리로 본다는 데 있다. 표현하는 말은 다 다르지만 이를테면 세속에 파묻혀 살며 그게 다인 줄로만 알고 더 큰 안목으로 세상과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큰 진상을 알지 못하고 소아(小我)를 붙들고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본다.

유태-기독교 전통에서는 세상 모든 것을 만든 주인이 따로 있고 자신도 피조물인 줄 모른 채 창조주를 배반하고 주인노릇을 하며 살려는 것이 문제요, 유교나 도교 등 중국의 고전종교에서는 세상의 궁극적인 이치인 도(道)를 모르고 소인배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모두가 무아(無我)이고 무상(無常)한 연기적(緣起的)인 존재임을 모르고 아집(我執)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내가 이미 부처이고 중생이 모두 부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로 살라

세상의 궁극적인 진상에 입각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고전종교의 이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며 당연시하는 삶의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큰 차이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이다. 불교의 용어를 쓰자면 세간적(世間的)인 삶과 출세간적(出世間的)인 삶의 차이이다. 우리는 출세간적인 진상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받들며 살고자 하여도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 쉽게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다.

고전종교들이 제시하고 지향하는 거룩한 삶의 이상은 가히 절대적이다. 내 존재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 것을 요구한다. 모든 시간과 관심과 행동을 그것으로 수렴시키기를 요구한다. 심지어, 개인에게는 절대적인 목숨까지도 그 이상 앞에서는 절대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고전종교에는 순교(殉敎)라는 현상이 있다.

물론,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모든 시간과 관심과 행동을 그 이상(理想)으로 수렴시킨다는 것만도 해내기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 세상에 한 개별 생명체로 태어나 꾸려나가는 살림살이의 현실이 그것을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종교에서는 원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이상과 현실 사이의 적당한 타협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실을 변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또 타협 없이 궁극적인 이상을 들이민다. 그러니, 이상에 충실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매 순간이 고통스러운 참회거리여야 한다.

어느 스님과 얘기하는 가운데, 돈오돈수론이건 돈오점수론이건 한마디로 하자면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섬기라는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 '내가 이미 부처님'이고 '중생이 모두 부처님'이라는데, 바로 지금 당장 부처님으로서 살지 못하고 중생을 부처님으로 모시며 살고 있지 못하다면 정직하게 참회하며 괴로워해야 한다. 돈오돈수론은 바로 그런 질책이다. 이런저런 군소리 변명 늘어놓지 말고, 내가, 중생이 모두 부처님이라는 명제의 비수로 지금 당장 목을 찌르라는 질책이다. 한편 돈오점수론은 그나마 현실을 좀 감안하면서 격려해주는 분위기이다.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되겠지만 사실상 마음먹기에 달렸을 뿐이니 물러서지 말고 노력하면 된다고 부추기고 다독인다. 분위기가 좀 친절하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라는 대목은 역시 날카로운 칼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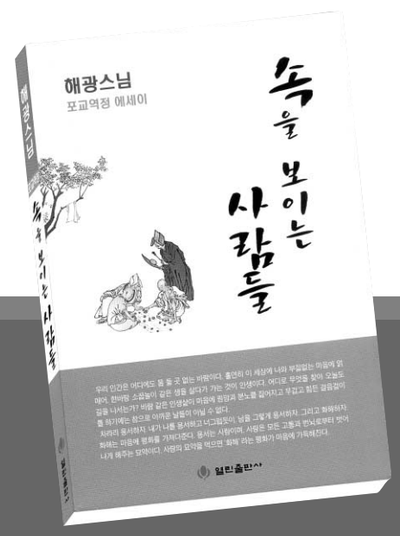
선(禪)은 그처럼 지금 당장 부처님으로서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섬기며 살라는 가르침을 절대절명의 비수로 우리의 목 줄기에 들이댄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금강선원 해광(海光)스님 포교역정 생활불교 에세이]

속을 보이는 사람들

해탈이란 마음의 해탈이다.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해탈이다. 이것과 저것을 가르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르는 분별심을 버리고 마음 깊숙이 들어 앉은 내면의 소리를 끄집어내는 그것이 해탈이다.
"저를 해탈하게 하소서."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승찬 대사의 해탈법문을 듣는 순간 온갖 번뇌와 미혹, 망상과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를 얻은 구도자는 훗날 제4대조가 된 도신 대사이다.
본문 해탈이란 무엇인가?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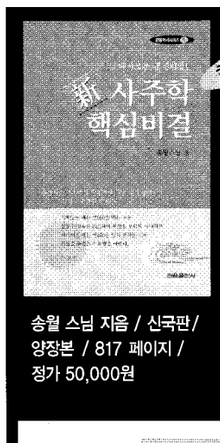


사랑의 묘약을 먹으면, '화해'라는 평화가 가득해진다.
우리인간은 어디에도 몸 둘 곳 없는 바람이다. 홀연히 이 세상에 나와 부질없는 마음에 얽매어, 한바탕 소꿉놀이 같은 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어디로 무엇을 찾아 오늘도 길을 나서는가? 바람 같은 인생살이 마음에 원망과 분노를 짊어지고 무겁고 힘든 걸음걸이를 하기에는 참으로 아까운 날들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용서하자. 내가 나를 용서하고 너그럽듯이, 남을 그렇게 용서하자. 그리고 화해하자. 화해는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준다. 용서는 사랑이며, 사랑은 모든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묘약이다. 사랑의 묘약을 먹으면, '화해'라는 평화가 가득해진다.

해광(海光)스님 저 서 — 불교비전의숲서 「불가비의」 / 실용 역학서 「운명비결」 / 최초의 소설식 불교교리서 「왕 초보 절에 가다」 집필 중.

해광스님 / 열린출판사 / 값 9,000원 금강선원 032-665-8472
열린출판사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33-4 영화빌딩 504호 / 02-2275-3892

화재의 신간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 페이지 / 정가 50,000원

최근 이혼률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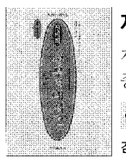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周易의 神秘 육효학 핵심비결
神과 靈이 통하는 학문, 육효학을 알면 운명이 바뀐다.
육효학은 음과 양 二元의 원리, 즉 주역을 본바탕으로 사상팔괘, 육십사괘, 삼백팔십사효를 응용하여 우리생활에 직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육효학이란 동서고금을 통하여 점서(占書)로서는 가장 적중률이 높은 학문이다. 이 책을 점하는 모든 이는 불론이요, 운명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이는 보배 중 보배가 될 것이며 허전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송월스님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 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譯註圓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金允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흉가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김용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上)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3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우영재 지음/정가 18,000원
24 21C 천문만세력 4*6배판/정수홍 지음/정가 35,000원
25 실전 명리학 첫걸음 신국판/정수홍 지음/정가 15,000원
26 적천수 형의(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7 정설 사주공부 신국판/양장본/일현스님 지음/정가 20,000원
28 新 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정가 9,000원
29 풍수학논법 신국판/양장본/성재권 지음/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 (26) 메난드로스왕의 질문과 승려 나가세나의 변증

그리스 논리와 불교의 지혜가 만나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격과 자아를 오온의 객관(法)으로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이 무아(無我)의 오래된 설법은 특히나 우리네 현대인들을 당혹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불교가 전파되던 초기, 이를테면 그리스나 중국의 합리적 전통은 이같은 해체적 논법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불교가 이들 합리적 사고를 어떻게 설득해 나갔는지 한번 볼까요. 두 세계의 만남은 문명사적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밀린다팡하(Milindapanha)>라는 경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역으로는 <나선비구경(那先比丘經)>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의 박트리아 왕국,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방과 예전의 간다라 지방을 통치하던 그리스계의 지배자 메난드로스(Menandros)가 있었습니다. 라틴 이름은 메난데르(Menander)인데, 밀린다(Milinda)는 그 팔리어식 이름입니다.

이 지방에서 출토된 동전들을 보면, 법륜이 그의 얼굴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로 보건대, 그와 불교와의 인연은 의심할 수 없어 보입니다.

<밀린다팡하>, 혹은 <나선비구경>

그가 불교 승려 나가세나(Nagasena)와 나눈 문답이 팔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그동안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해서, 남방불교에서는 삼장에 넣어주지도 않았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그 경전의 중요성을 인정한 사람들에 의해 편집과 번역이 활발해졌습니다. 이책은 리스 데이비스(Rhys Davis · 1890)와 호너(I. B. Homer · 1963)에 의해 두 번 번역되었습니다.

전자는 <밀린다 왕의 질문들(The Question of King Milinda)>이라는 이름으로, 후자는 <밀린다의 질문들(Milinda's Questions)>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독일어로도 두 번 번역되었고, 불어 번역본이 하나, 일본어 번역본 몇 권, 그리고 우리말 번역본도 두 개는 확인했습니다.

이 경전은 불교의 중요 논점들에 대해 메난드로스 왕이 묻고 승려 나가세나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를 개략 열거하자면, '자아의 본성에 대하여' '올바른 토론방식' '불안과 고통' '열반의 특징에 대하여' '신체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업(業)과 불평등', '윤회와 공덕', '윤회' '극락과 지옥' 그리고 '다섯 가지 덕성(五力)의 수행, 즉 계율 믿음 정진 정념(正念) 선정에 대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불교의 '지혜'에 대하여 묻고 대답했습니다.

만남과 대론(對論)의 분위기는 도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 주변을 소묘한 다음, 오온의 분석과 무아의 지혜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려 합니다.

지상과 영원의 두 지배자가 만난 인연과 무대에 대하여

메난드로스는 기원전 155년에서 130년 무렵, 박트리아를 지배한 권력자입니다. 강력한 분석적 지혜와 높은 교양을 자랑하는 그는 당시의 지도적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기를 즐겼습니다.

뛰어난 현자들, 학식이 많고, 경건한 존경받는 사람도 메난드로스의 소크라테스적 공세를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왕의 날카롭고 근본적인 질문 앞에 다들 침묵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로서 그들이 딛고 선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지가 드러났습니다.

"박트리아에는 천상의 도시 사아갈라가 있었습니다.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아름다운 강과 호수들,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 공원과 잘 가꾼 정원들을 웅장한 성채가 둘러싸고 있고, 그 위에는 감시탑이 있는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경전은 이어, 그 도시 안에 집과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꽃과 향수, 공예 등 사치와 문화를 즐기는 시민들이 있으며, 귀족과 전사들, 그리고 종교적 정신적 수련자들이 한데 어울려 있는 질서와 번영의 도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 연극의 한 장면처럼 왕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왕은 시종 데메트리오스로부터 나가세나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탁발 수도사가 이 도시로 오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도 80,000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지금 가까운 근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정신적 종교적 문제를 놓고, 그의 뛰어난 대화와 변증을 시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500명의 호위병을 이끌고 호화찬란한 수레에 올랐습니다.

곧 수많은 수행자들이 자욱하게 모여 있는 천막이 시야에 들어왔고, 왕은 잠시 아찔하여, 시종에게 저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시종이 나가세나와 그 추종자들이라고 말하자, 왕은 충격에 휩싸여, 머리털이 곤두섰고, 생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시종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나가세나인지 말하지 말라, 가리키지 않아도 알겠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왕은 곧 나가세나를 알아보았습니다. '갈기 달린 사자처럼,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당황하거나 흔들림 없는' 그를 보고, 왕은 자신이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리고 격렬한 논쟁을 겪었지만, 지금과 같은 공포를 느낀 적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패배할 것 같다.' 그는 나직하게 신음했습니다.

둘은 인사를 나누고, 조금 거리를 두고 조용히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메난드로스가 예의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나가세나는 메난드로스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조용하고 거침없는 어조로, 심오하게 핵심을 짚어주었습니다. 메난드로스는 나가세나에게 다음날 자신의 왕궁에서 더 많은 얘기를 차분히 나누고 싶다고 했고, 나가세나는 그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날, 나가세나와 몇 십 명의 그의 동료들은 왕의 처소로 안내되었습니다. 나가세나는 영예롭게 지정된 상석에 가서 앉았습니다. 왕은 맛난 음식을 대접했고, 모두에게 새 옷을 선물했습니다. 왕은 나가세나 앞에 공손히 앉아 존자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섬세한 지성의 대화는 몇 날을 계속했고,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갔습니다. 지금 <밀린다와의 질문들>에 남아 있는 것은 그 일부입니다.

그들의 긴 대화가 끝났을 때, 천지는 여섯 번을 진동했고, 번개가 번쩍였으며, 바다는 으르렁거렸고, 신들은 대지에 꽃비를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논리가 불교의 지혜를 만났다!" 먼지 없고 흠 없는 다르마 진리, 한때 나가세나를 뚫고 지나갔던 그 진리가, 지금 메난드로스에게로 흘러넘쳐 갔습니다. "무엇이든 일어난 성질의 것은, 모두, 멈추게 되어 있다."

왕은 기쁘게 붓다와 지혜, 그리고 유전연기(流轉緣起)의 멈춤을 끌어안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사람의 문명사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입니다. 이때 승려 나가세나는 지상의 지배자인 메난드로스에게 '왕자(王者)의 방식'이 아닌 '현자(賢者)의 방식'으로 토론하고 대화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현자의 방식이란 다름 아니라, 힘과 권력으로 윽박지르거나 복종시키지 않고,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요즘 유행하는 어투로 하자면, '계급장을 떼고' 대론(對論)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혜가(487~593)스님: 중국 선종의 제2조. 어려서 향산사 보정선사에게 출가 했으나 나이 40에 달마를 찾아가 전법을 받았다. 득도후 만행하며 자유자재의 삶을 보였다.

네티즌 교리문답

'할'과 '방'은 무슨 차이인가요?

문 선승들이 법문 끝에 소리를 갑자기 지르는 것을 할이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선사가 주장자와 죽비로 제자를 내려치는 방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둘 다 제자들의 공부상태를 점검해주거나 깨침을 독려하는 경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IP 불학자)

답1 : 할과 방은 그 자체가 완전하고 완결된 법문이자 고향소식이며 본지풍광의 노출입니다. 그러므로 양자간에 본질적인 차이점이란 없습니다. 선지식들이 쓰는 무장애한 권도 방편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또 그래서 '제자들의 공부상태를 점검해주거나 깨침을 독려하는 경책'은 결코 아닙니다. 설사 선지식이 간절한 노파심에서 제자를 일깨우기 위해서 사용할지라도 '경책'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경책은 경책이 아니라 그 이름이 경책일 뿐이겠죠. (토출용궁)

답2 : 할은 고성으로 제자의 그릇된 견해와 집착을 깨우쳐 주기 위해 질타입니다. 언어와 사려가 미치지 못하는 경지를 보이는 수단인 셈입니다. 방장이나 조실 스님들이 법문을 마칠 때 갑자기 터져 나오는 할 소리에 어안이 벙벙해지는 경우를 말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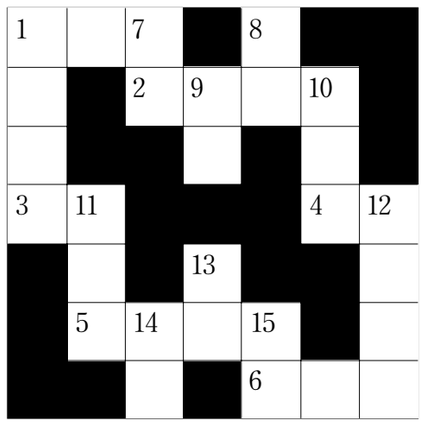
선문에서 할을 사용하게 된 것은 마조도일 선사가 제자 백장에게 쓰면서부터 입니다. 백장 선사는 훗날 자신의 황벽희운 선사에게 "불법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지난날 마조 대사의 두 번째 할을 듣고 즉석에서 삼일간 귀가 먹고 눈이 멀었다"고 회상할 정도로 할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미혹함을 일깨우는 선가의 경책법입니다. 결국 깨달음의 경계를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선사들의 할과 방은 찰나와 영원을 관통하는 단 일회의 행동을 나타내는 방법이지요.

때문에 할과 방은 삶의 진실을 단 한 찰나의 움직임으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선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선의 실존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할과 방은 분명히 선의 기민한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너무 방만하게 사용하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제 선사는 "체험으로서 연마하여 인생의 진실을 밝히는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지 할과 방은 그 정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지요. (불학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신문이나 잡지가 한 해를 보내면서 그해 마지막으로 발행하는 호 2.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고사성어로,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면 성취할 수 있음을 뜻하는 말 3. 전라남도의 남서부에 있는 도서(島嶼)로 된 군으로, 앞바다에서 해저유물선이 발견돼 유명 4.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 5.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재물을 아낌 6. 연초에 근무를 시작하며 갖는 식.

세로 1.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함 7. 많은 비(雨) 8. 위치나 자리를 옮김 9.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 10. 산으로 올라가는 목의 첫 머리 11.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한 애국지사로 아명은 안응칠 12. 소식이나 연락이 전혀 없는 상태 13. 요구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양하여 물리침 14. 수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검사하는 일 15. 약한 시력.

과학자 두 명과 예술가 한 명의 만남. 첫 느낌부터가 낯설다. 각기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왜 만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선다. 하지만 '황우석, 최재천, 김병종' 이란 이 시대 걸출한 학자들의 이름을 꺼내놓으면, 의심은 금세 호기심으로 바뀐다. 도대체 이들이 만나서 '무엇' 을 이야기했을까?



나의 생명 이야기
황우석 최재천 김병종 지음 | 1만1천원 | 효형출판



평생의 화두로 잡아온 '생명'. 최재천, 황우석, 김병종 교수(사진 왼쪽부터)는 '자연과 인간' 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한다.

세 과학자와 예술가 따로 또 같이 걷는 생명의 길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배양에 성공한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개미 제국의 발견' 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생물학자로 꼽히는 최재천 서울대 생물과학부 교수, 베스트셀러 <화첩기행>을 내놓은 김병종 서울대 미대 교수가 '생명' 을 주제로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 <나의 생명 이야기>다. '1953년생 촌놈 동갑내기' 들의 생명을 향한 열정, 또 그것이 이들의 학문적 화두라는 것을 고스란히 담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풀어내는 방식이 다르다. 황 교수와 최 교수는 인생역정의 고백과 함께 과학자로서 시대적 양심을 외쳤고, 김 교수는 이들의 글에 그림으로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럼 세 사람에게 생명이란 무엇일까? 국내 최초로 복제소 영롱이를 탄생시킨 황우석 교수의 생명관은 어릴 적에 키운 '소' 에서 비롯된다.

'내게 생명이란 우리 집에서 키우던 소의 순한 눈망울, 봄이면 샛노란 솜털이 개나리보다 탐스러운 병아리, 암탉이 막 낳은 따뜻한 달걀, 그런 자연에 기대에 살아가던 내 부모형제와 이웃들…. 생명은 그런 것이다.'

이처럼 황 교수에게 생명은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다. 우리 곁의 구체적인 존재이다. 때문에 황 교수의 생명과학 연구의 바탕은 '자연과 사람' 이다. 그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인간에서 출발하고, 인간으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심산(心山)' 이란 법명이 말해주듯 황 교수는 어릴 적부터 '마음의 산' 을 키우는 지혜를 소에게 배웠다. 마치 변함없이 한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산처럼, 그는 우직한 소를 닮으려했다. 대전고 첫 시험에서 480명 중 400등을 했을 때 곧바로 친구들과 '등 안대기 클럽' 을 결성해 졸업까지 방바닥에 등을 대지 않고 공부에 매진했던 것도, 의대에 진학하라는 선생님에게 뺨까지 맞아가며 수의대를 택했던 것도, 소년 시절 가난했던 온 가족의 목숨줄이자 친구였던 소와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 교수는 이처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제 일감에서 눈을 떼지 않는 '찍소 정신' 을 실천했다. 열악한 국내 연구 환경에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자, 하늘을 감동시키자"며 세포복제 연구에 성공,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 길을 열게 했다.

하지만 황 교수의 이런 연구에 대한 열정이 환영만 받은 것은 아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복제인간을 만들어내 환자 치료가 끝나면 그 복제인간을 죽이는 길을 열 것"이라는 오해와 비난을 듣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인간복제가 아닌 세포복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연과 신문지면을 통해 알렸다.

황 교수는 그럼에도 진정한 생명윤리를 고민했다. "복제연구는 난치병 치료의 열쇠를 제공해 고통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사회비용을 줄이는 진정한 생명윤리"라며 그는 "줄기세포 연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생명공학 연구가 21세 '바이오 코리아' 를 향한 거대한 출발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그간 '감자바우' 촌놈이란 걸 은근히 자랑으로 여긴 최재천 교수. 그는 졸지에 진짜 촌놈(?)인 황 교수와 나란히 글을 쓰려니 홀연 자괴감이 든다고 엄살을 피우며 얘기 보따리를 풀어헤친다. 자칭 문학 소년이 생각 없이 이과로 편성돼 재수 끝에 동물학과에 2지망으로 턱걸이해 붙은 사연 등 공부와 담쌓고 살던 그가 하루살이 권위자였던 미국 교수를 천사로 맞이하게 되면서 동물사회학자로 태어나는 계기가 흥미롭다. 1주일 넘게 미국인 교수의 조수가 돼 전국의 개울들을 뒤진 청년 최재천. 미국 교수가 돌아가기 마지막 날 엉뚱한 질문을 던진다.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오셔서 관광도 한번 못하시고 물에만 첨벙거리고 가시나요?"

"하루살이를 연구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당신 나라는 백두 번째 나라입니다."

그 순간, 최 교수는 무릎을 꿇어야 했다. '참 팔자 좋게 놀고먹는 영감님도 있구나' 했던 생각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단다. 이후 그는 어려서 멱을 감던 고향 강릉비행장 옆 냇물로 '귀소본능' 이 느끼게 됐고, 생명 그 자체였던 강릉을 향해 다시 대관령을 넘었다고 술회한다. 그리고 그는 "알면 사랑한다"며 "자연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자연을 사랑하게 돼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한없이 행복한 촌놈"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김병종 교수는 선적(禪的)인 단상들을 붙여 생명에 대한 회화들을 대거 책에 실었다. "생명있는 것들은 저희들끼리 삶을 노래한다. 차별이 없고 사람은 들을 수 없는 노래를" 등 생명의 의미를 곱씹게 하는 그림과 짧은 글을 담아 가슴으로 전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내게 생명이란 우리 집에서 키우던 소의 순한 눈망울, 봄이면 샛노란 솜털이 개나리보다 탐스러운 병아리, 암탉이 막 낳은 따뜻한 달걀, 그런 자연에 기대 살아가던 내 부모형제와 이웃들 … 생명은 그런 것이다.'

전문가 서평



내 인생의 사과나무
김성주 지음 | 9천원 | 더북컴퍼니 펴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친숙한 과일 중 하나가 사과일 것이다. 신화나 동화는 물론 과학, 정치에 이르기까지 사과는 꿈과 희망의 상징으로서 고르게 등장한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고 한 스피노자의 말이나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고 한 어떤 가수의 노랫말도 사과가 현재 보다는 미래, 어둠 보다는 빛의 입자를 함유한 향기로운 과일이기 때문이다.

흙냄새라고는 맡아 볼 수 없는 회색도시에 때 아닌 사과 향기가 진동한다. 절망과 좌절, 시련과 역경을 자양분 삼아 아름답게 익은 사과들이 <내 인생의 사과나무>라는 한 광주리의 책에 담겨 나왔다. 병충해가 극심한 마천루의 골짜기에서 소음과 분진을 먹고 자란 사과들이기에 그 향기가 더 달콤하다.

"사랑의 사과나무, 나눔의 사과나무, 도전의 사과나무, 희망의 사과나무, 모양은 제각각 달랐지만 자갈밭이거나 콜타르를 덕지덕지 칠한 아스팔트에서 자라난 사과나무"였기에 그 열매는 더욱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사과 꽃처럼 감미로운 감동을 전한다.

매주 토요일 9시45분에 방송되는 MBC 텔레비전의 <사과나무>를 진행하는 김성주 아나운서가 <사과나무>에 출연했던 17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묶은 <내 인생의 사과나무>는 휴머니즘의 승리를

회색도시에 퍼진 희망의 사과향기

엮은 각색 없는 원문이다. 김성주 아나운서는 그 자신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6전7기의 꿈을 이룬 도전의 사나이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악착같은 생의 근성보다는 봄에서 가을까지 사과가 익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땀 냄새가 묻어 나온다. 그는 "자신만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그리고 희망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의 이야기가 씨앗이 돼 자라나기를 바란다"면서 책을 썼다.

이 책은 필자 자신의 이야기인 '나의 사과나무, 어머니' 로부터 <사과나무> 첫 출연자로 말기암 환자인 서옥경씨 이야기, 그리고, 고통 받는 전 세계 어린이의 어머니 김혜자, 정치인 노회찬, 산악인 염홍길, 목숨 같은 시를 쓰는 돌시인 박진식씨에 이르기까지 등장인들은 힘들고 지칠 때 마다 기대고 의지해온 '내 인생의 사과나무' 를 소개하며 희망과 도전의 정신을 북돋워 주고 있다.

"김훈씨의 사과나무는 '밥' 이다. 그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고, 그 힘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고, 글을 쓴다. 그렇게 나온 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밥이 되어주었을까." <칼의 노래>의 소설가로 '밥벌이가 지겨운 사내' 라고 자신을 일컫는 김훈을 소개한 글이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즐겁게 읽히고, 오래 그 여운을 음미하게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과나무를 찾다가 보니, 어느새 그 자신이 사과나무가 된 김성주 아나운서의 맑고 때 묻지 않은 '사과 향기' 가 배어 나오기 때문이다.

말기암 환자로 남편에게 미역국 한 그릇을 끓여주고 싶어 했으나, 고통 속에 그대로 죽어 간 서옥경씨의 사과나무는 '미역국' 이며, 히말라야 15좌를 완등한 산악인 염홍길의 사과나무는 그 산에서 죽어간 동료들이다. 온갖 병충해와 재해에 시달려 때로 낙과로 뒹굴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밭에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으려는 착한 사람의 노력이 우리시대의 우울모드를 희망의 모드로 바꿔준다.

■**장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위기를 기회로’ 자구책 마련 힘모아

협회 창립, 본말사 도서관 설치 · 필자 공동개발 등 추진
선 열풍으로 수행서 · 큰스님 법문집 출간 · 판매 늘어
명상 · 요가서 꾸준히 인기 … 어린이 책도 줄줄이 나와

2004 불교출판 결산

장기화된 불황과 출판시장 위축으로 고사위기에 빠진 불교출판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활로 모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올해 들어 출판사당 대여섯 권도 채 출간하지 못할 정도로 위축된 불교 출판사들은 불교출판의 현실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7월 ‘불교출판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0여 명의 출판 관계자들이 모여 불서읽기운동과 교구본사 도서관 설치, 도서공급창구 일원화 등 불황 타개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출판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발족으로 이어졌다. 9월에 창립된 불교출판문화협회는 1992년 출범했으나 활동이 저조했던 불교출판협회가 확대 재편된 것으로, 20여 개 불교 출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불교출판문화협회는 앞으로 본 말사 도서관 마련, 필자 공동개발, 공동 유통망 형성 등의 사업을 펼침으로써 불교출판 활성화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출판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시도로 불서읽기운동도 전개됐다. 지난 10월, 불교계 출판 불황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돼왔던 ‘책 안 읽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붓다와 떠나는 책 여행’은 지난해 출범한 ‘종이거울 바로보기 운동’과 함께 불교계에 독서문화 형성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불황 속에서도 올해 일어난 선(禪) 수행 열풍을 반영하듯 불교 출판계에는 선을 주제로 한 책들이 속속 발간됐다. <불교 수행법과 나의 체험> <禪 너는 누구냐> <불교수행법강의> 등 선원장 법회와 담선법회 등의 물결을 타고 수행 관련서들이 출간돼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큰스님 법문집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큰스님의 열반과 열반 1주기 맞아 스님들의 법문집이 다양하게 선보였고, 이 중 지난해 말 입적한 청화 스님의 법문을 담은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와 지난해 출간된 <가장 행복한 공부>는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비구니 스님들의 출간도 활발했다. 미국 보스턴 서운사 주지 서광 스님이 <알몸이 부처되다>와 <문제는 항상 부모에게 있다>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를, 하버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소운 스님이 <하룻밤에 읽는 불교>와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를 각각 펴냈다. 초기불전연구원장 대림 스님이 펴낸 <청정도론>도 불교출판계의 큰 수확이다. 이 밖에 텐진 빠모 스님의 <마음공부> 지율 스님의 <지율, 숲에서 나오다> 대안 스님의 <사찰음식 다이어트> 등이 눈길을 끌었다.



장기화된 불황과 출판시장 위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불교출판계는 지난 7월 ‘불교출판 현실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출판문화협회를 결성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3~4년 동안 베스트셀러였던 명상 · 요가 서적은 올해 ‘웰빙’ 열풍을 타고 그 맥을 이었다. 달라이라마의 <용서>와 <365일 명상> <달라이라마 삶을 이야기하다>를 비롯해 틱낫한 스님의 <마음모음> <아! 붓다> <틱낫한 스님의 금강경> 등이 책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으려는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요가 관련 서적으로는 도서출판 여래의 <요가의 세계> <쿤달리니요가>를 비롯해 직장인 · 임산부 · 어린이를 위한 요가실용서 등 30여 권이 넘는 책이 발간됐다.

지난해부터 운주사와 솔바람 등이 앞장서 온 어린이 불서 출간도 계속됐다. 운주사는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불교우화 41가지>를, 솔바람은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와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을 펴냈다. 이 밖에 <마음속의 샘물> <졸참나무처럼> <거미줄> <손오공의 보물> <행복해지는 거울> 등 일반 출판사가 펴낸 어린이 불서도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소개될 불서로 <지눌의 선사상> <선가귀감> 등 4권이 선정됐다. 하지만 불교가 우리 전통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정수임에도 선정된 책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

올 한해 협회 창립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불교출판계가 수행열풍으로 높아진 독자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출판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절수행 체험서 ‘오체투지’ 1위

2004 베스트 불서-여시아문 집계

2004년 불교출판계에서 무엇보다 주목받은 것은 ‘선(禪)’으로 대표되는 불교 수행 관련 책이었다.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이 집계한 ‘2004 베스트 불서’ 목록에는 큰스님들의 법문집과 수행관련 서적이 대부분이었다.

집계에 따르면 올 한 해 불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책은 동양화가 한경혜씨의 절수행 체험을 기록한 <오체투지>. ‘절’을 수행으로 삼아 뇌성마비를 극복한 한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생활 속의 수행법을 정리한 실용서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불자의 가족사랑과 기도법> <백일법문> <생활 수행 이야기> 등 수행의 길잡이 역할을 해 준 책들이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법회’의 법문을 정리한 <선 너는 누구냐>도 주목을 받았다.

<스님이야기>는 스님들이 들려주는 스님이야기라는 독특한 글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켰고, ‘비구니 하버드 박사 1호’인 소운 스님의 <하룻밤에 읽는 불교>와 법정 스님이 5년만에 펴낸 수필집 <홀로 사는 즐거움>은 출간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달라이라마와 틱낫한 스님의 책은 지난해에 비해 인기가 주춤했다.

■ **2004 베스트 불서** ■

1. 오체투지/한경혜/반디미디어
2. 불자의 가족사랑과 기도법/김현준/효림
3. 홀로 사는 즐거움/법정 스님/샘터
4. 하룻밤에 읽는 불교/소운 스님/랜덤하우스중앙
5. 가장 행복한 공부/청화 스님/시공사
6. 생활 속의 기도법/일타 스님/효림
7.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청화 스님/이른아침
8. 백일법문/성철 스님/장경각
9. 스님이야기/지묵 스님 외/여시아문
10. 생활 수행 이야기/법상 스님/불광
11. 기도/일타 스님/효림
12. 禪 너는 누구냐/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13.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성우 · 지현 스님/민족사
14. 선방일기/지허 스님/여시아문
15. 불교의 이해와 신행/조계종포교원/조계종출판사

한국불교 맥 이어온 선사들

시대별 고승 · 선사 80여명 수행일화 · 가르침 담아

“책을 통해 법맥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열한 수행과 올바른 가르침으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선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이 중생의 빛이 되고 ‘죽비’가 되고 길잡이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삼국시대 이 땅에 발을 들인 불교는 지금껏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 한국불교의 맥을 이어온 선사들의 삶과 그 법맥의 흐름을 정리한 책이 나왔다. <불맥(佛脈)-한국의 선사들>은 영남일보 김신곤 · 김봉규 기자가 각 시대별 고승과 선사 80여 명의 수행일화, 가르침 등을 기록한 책이다.

한국불교의 법맥을 중심으로 고승들의 치열한 수행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이 책은 6~7년 전 영남일보에 연재됐던 ‘불맥’ 시리즈를 엮은 것으로, 올해 초 지은이들이 한국언론재단의 연구 · 저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1년 동안 사진부 이지용 기자와 함께 자료 수집과 사진 촬영을 위해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판 결과물이다.

책의 주요 내용은 고승과 선사들의 삶과 가르침이다. 지은이들은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다양한 사상과 가르침이 어떻게 펼쳐지고 맥을 이어 흘러왔는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조계종 스님들의 중심 수행법인 간화선(看話禪)의 선맥(禪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특히 선사들의 출가과정과 목숨을 건 수행과정, 깨달음과 그 이후 그들이 보여준 삶과 가르침 등에 관한 상세한 소개는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지은이들은 “최근 불자들 사이에 중국 선법이 최고인 양 중국의 선 관련 번역서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짙다”면서 “지나친 중국불교 의존은 자칫 우리 불교의 독창성을 스스로 망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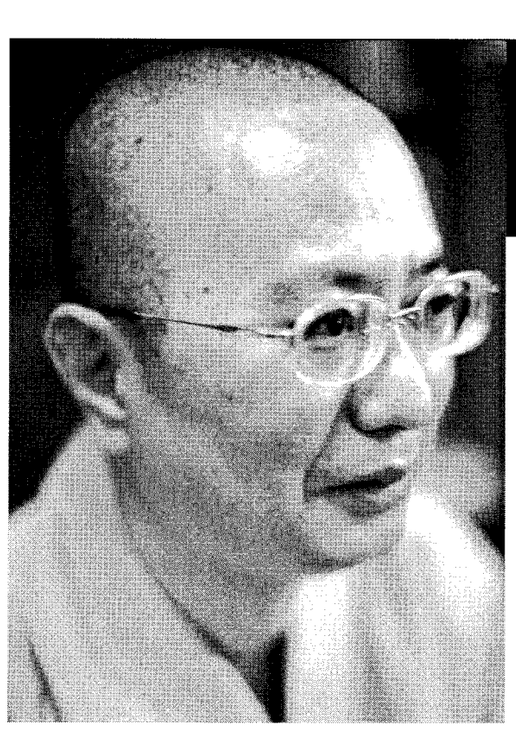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여러 고승들과 오도송, 열반송 등 선사들의 시와 법문들이 많이 추가됐고 고승들의 법맥(法脈) 계보인 불조선맥도와 구산선문 법계도를 함께 실었다. 직접 발로 뛰며 법맥을 좇았던 이들은 “일부 법통은 인맥 중심으로 흐르게 되고, 이는 폐쇄적인 문중의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법맥을 위한 법맥이나 인맥 중심의 법맥이 아닌 진정한 깨달음의 맥이 힘을 발휘하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맥(佛脈)-한국의 선사들
김신곤 · 김봉규 지음
우리출판사 | 1만2천원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체증을 통쾌하게 씻어주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난장판 세상에 떨어진 불벼락 같은 책”



이판사판 화엄경

출간 2주 만에 교보 베스트 10위권 진입(종교 부문)!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총체적으로 난장판인 세상의 판을 바꿔 장엄한 세계로 이끄는 인류 최고의 행복 지침서!
본질에서 벗어난 정신없는 세상인 사판을 통째로 바로 잡고 이판의 지혜를 일깨우는 화엄의 죽비 소리!
어그러진 삶을 사는 동시대 모든 이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는 성법 스님의 사자후!
배꼽 잡으며 읽다가, 촌철살인 같은 지혜의 불벼락을 맞고 이판사판으로 삶을 바꾸게 되는 엄청난 책!



이판사판 화엄경 - 재미있고 혁명적인 화엄경 게송 풀이
성법스님 지음/신국판/값 11,000원/정신세계원 출판국

이판사판理判事判 : 본래 화엄경에서 나온 말로 세계의 두 가지 차원을 일컫는다. 이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 대한 판단이라면, 사판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에 대한 판단이다. 삶의 진실과 행복은 이판과 사판의 조화 속에 있다.

언론이 주목한 2004년 최고의 지혜서!

삶과 수행의 백과사전인 화엄경을 쏙쏙 들어오게 풀이했다 - 중앙일보/ 부끄러운 한국 불교의 자화상을 난타하는 책 - 조선일보
한 편의 에세이를 읽는 듯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 경향신문/ “보시는 투자가 아니다, 어리석음은 독” 등 현대인을 위한 삶의 지혜서 - 헤럴드 경제
첨단 과학 이론까지 접목시켜 흥미롭게 설명한 책 - 한국경제/ TV에 방영돼 쟁점이 된 〈영원한 대자유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 - 한겨레
바로 읽는 불교 경전. 상투적 해석을 개탄하며 초기 불교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 문화일보/ 화엄사상이 그의 손을 거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 세계일보
‘인간은 욕심으로 꽉 찬 욕계(欲界)에 머문, 형편 없는 꼴찌’라고 갈파하며 화엄경의 지혜를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 현대불교신문

성법 스님 : 1957년 태어나 중동 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부처골 용화사 주지, 국내 최대 인터넷 불사佛事 「불교경전총론www.sejon.or.kr」 운영자. 20년 동안 경전 읽기와 수행에 전념했으며, ‘소원성취 보험회사’로 전락하는 현실 불교 개혁론을 펼치고 있다.

www.mindvision.org 정신세계원
tel.02.747.7033 /fax.02-747-7034

송년 가볼만한 공연 · 전시 2題

김은희 무용단의 '산해경' 달오름 극장, 12월 30일

탐욕 · 번뇌 날려버려라!

중국 경전을 모티브로 동양적 감성 · 불교사상 가득



역동적이고 빠른 춤사위가 관객들을 압도하는 김은희 무용단의 '산해경'.

가는 해가 아쉽다. 하지만 속절없이 가는 세월을 어찌 누가 막겠는가. 얼마 남지 않는 2004년. 역동적 몸짓언어인 무용과 오방색 짙은 그림에 몸과 마음을 맡기며 한해를 마무리 하면 어떨까.

국립극장은 달오름극장에서 12월 30일 저녁 7시 30분 김은희 무용단의 무용극 '산해경(山海經)'을 무대에 올린다. 김은희 무용단은 국내무용계에서는 드물게 학연과 지연을 거부하고 춤에 대한 열정과 실력만으로 작품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 단체이다.

중국의 경전인 <산해경>에서 모티브를 따온 이 작품은 김은희 무용단의 감각적이고 세련된 동양적 감성 특히 불교적 사상이 내포된 수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 주제는 인생의 덧없음이다. 무한한 자연에 비해 유한한 인생의 모습을 표현했다. 역동적인 몸짓 속에는 탐욕도 번뇌도 다 날려버리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실려 있다. 우리네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할 수 밖에 없다는 진리가 극의 곳곳에 녹아 흐른다. 그래서 올 한해를 보내면서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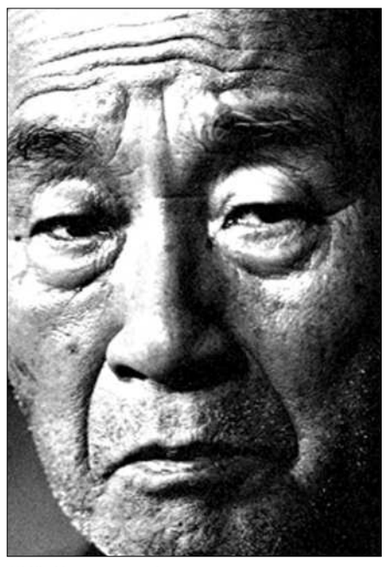
특히 숨막힐 듯한 격렬함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무용수들이 선보이는 역동적인 춤사위는 현대무용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희 씨의 안무 지도에 의해 손예란 양화정 이강미 박재원 이재준 장인선 등 6명의 국내 정상급 무용수들이 무대에 오른다. (02)2280-4115

박생광과 샤갈의 만남 부산시립미술관 (내년 2월 15일 까지)

두 색채 화가의 운명적 만남

생전 만나고 싶었던 두 사람 20년만에 작품으로 꿈 이뤄



박생광(1904~1985).



마르크 샤갈(1887~1985).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박생광(1904~85) 화백은 생전에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 러시아의 화가 마르크 샤갈(1887~1985)이었다.

빨강과 파랑 등 오방색의 색채 화가라는 점에서 샤갈과 공통점이 있었던 그는 그림이 좀 잘 된다 싶으면 "내가 샤갈의 적수가 될까?" 하는 말을 자주 던졌다고 한다.

1985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국미술특별전'에 초대받은 박생광은 샤갈과 만날뻔 했었다. 하지만 운명이 두 화가를 갈라놓았다. 샤갈이 85년 3월에 먼저 세상을 떴고 박생광도 뒤따르듯 7월에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 만남의 꿈을 이루지 못한 두 거장이 지금 20년 만에 작품으로 만나고 있다. 부산시립미술관(관장 김용대)에서 특별기획전으로 열리고 있는 '박생광 전'(2005년 2월 15일까지)과 '마르크 샤갈 전'(2005년 1월 16일까지)이다.

미술관 3층 전시실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화가의 초상화 옆에는 '생전의 약속, 사후의 만남'이란 글 한 줄이 붙었다. 박생광은 '열반의 청담 대종사' '전봉준' '명성왕후' 등 80년대에 그린 대표작 16점을, 샤갈은 39년작 '굿모닝 파리' 등 114점을 벽에 걸어 놓았다. (051)740-4241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禪의 눈으로 발견하는 대동화엄"



<열린시학>겨울호 오현스님 시 조명 특집

승려시인 오현 스님(신흥사 회주)의 시 세계가 집중 조명됐다. 시 전문지 <열린시학>이 최근 간행된 2004년 겨울호에서 오현 스님의 작품과 시세계를 조망한 평론을 실은 것.

1966년 시조문학의 추천으로 등단하여 78년 시조집 <심우도>를 낸 이후 <산에 사는 날에>(2000년)와 시화집 <절간 이야기>(2003년)등을 낸 오현스님의 시세계를 문예지가 다룬 것은 2001년 <불교문예> 여름호 이후 두 번째다. <열린시학>의 특집에 나선 평론가는 이선이(경희대) 교수와 김용희(평택대) 교수, 문학 평론가 이호씨 등.

이선이 교수는 "조오현의 시는 삶의 도처에 깃들어 있는 불성을 포착함으로써 삼라만상이 장엄한 화엄생명의 실현임을 시적으로 증언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즉 "마음의 길과 세속의 길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일원상을 시적으로 구현하는 도정에 놓여 있음"을 포착 한 것. 이 교수는 오현 스님의 선적 인식이 "존재와 삶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열림의 언어를 지향"하고 있으며 "자기부정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점에서 깊은 울림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교수도 "오현 스님의 시조와 시들은 해탈의 삶을 누리고 또 누리기 위한 창조적 언어 형식을 찾아가는 선시의 취향을 드러낸다"는 점에 천착했다. 그래서 오현 스님의 시 세계를 불가적 시각으로 한정시켜 보는 시각을 거부하고 "불교적 관념의 도구를 내려놓고 시적 상상력과 인간 보편 존재에 대한 시인의식에 주목해야 한다"며 "거대한 존재의 휴식, 무로서의 순간적 현실에 도달하고자" 하는 내밀한 세계를 짚었다.

문학평론가 이호씨는 4성제 즉, 고집멸도의 주제를 통해 오현 스님의 시세계를 조망하며 "자유로움에서 펼쳐지는 대동화엄의 세계"를 들여다보았다.

임연태 기자

■ '직지(直指)' 문양 수놓은 여성정장 선보여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直指)'의 문양을 새겨 넣은 손뜨게 여성정장(사진)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세열 주성대학교 학술지원팀장은 직지 활자를 창의적으로 형상화 해 수놓은 여성 상의와 치마를 개발 제작하고 12월 10일 열린 청주 서원대 주최 '직지와 자본' 학술회의에서 '직지문화상품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옷을 선보였다.

하얀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진 이 옷을 직접 입고 나와 발표한 이씨는 "세계적 문화유산인 직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문양을 옷에 직접 수놓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며 "동양적인 문양과 현대적인 패션 감각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돼 부담없이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 머루와다래 3집 앨범 출시

노래하는 포교사 머루와다래(본명 김정안 · 52)가 찬불가요 3집 앨범을 출시했다. '우담바라'를 타이틀 곡으로 실은 이번 음반은 '석가여래 부처님' '만다라' '사박걸음으로 가오리다' '아미타 48대원' 등 20곡이다. 이중 '우담바라'와 '우리모두 성불합시다' '아미타 48대원' '사박 걸음으로 가오리다' 등 네 곡은 머루와 다래가 직접 작곡한 신곡. 특히 '우담바라'는 3천년만에 한 번피는 우담바라의 꽃향기로 부처님 세상을 만들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한편 머루와다래는 이번 앨범 출시를 기념하고 '천안 부처님 마을 불사 기금 마련'을 위한 전국 투어 콘서트를 내년 1월 보현 스님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1월 6일 영주 시민회관 △1월 8일 진주 문화예술회관 △1월 15일 부산 상공회의소 대회의실 △1월 22일 진안 군민회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011)331-7199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20명 한정 (현재 8분) 안내 :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카주라호-아그라-상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두

■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 1월 13일)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 12월 28일, 1월 14일)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 델리-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라-바이샬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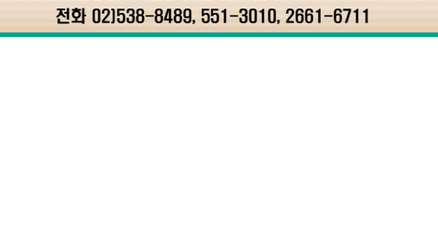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원적외선 사찰 난방
원적외선 웰빙 난방으로 구도에 정진하세요 !



특 징
1. 원적외선 복사열로 바닥과 내부의 공기까지도 봄날의 따뜻함을 드립니다.
2. 바닥이나 벽면의 기존시설을 손대지 않고 바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3. 기름값 대비 50% 가까이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4. 원적외선 난방으로 공기가 탁하지 않고 깨끗합니다.
5. 전자파가 없고 부분난방이 가능하며, 화상과 화재위험이 없습니다.
6. 유지관리 비용과 A/S도 거의 불필요한 제품입니다.
7. 환경 친화적 소재이며 반영구적 수명인 차세대 난방 시스템입니다.
8. 불시 신축, 증축, 개축시 난방공사 상담 환영합니다.

설치장소
사찰, 포교원, 수련원, 기도원, 강당, 문화재관리실, 방갈로, 펜션, 오피스텔, 아파트베란다, 기숙사, 고시원, 황토방, 찜질방,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음식점, 치료 및 입원실, 콘테이너하우스, 숙직실, 옥탑방, 전원주택....

시 공 처
통도사 백운암(법당, 요사채), **변산반도 월명암**(법당), **정선 불암사**(요사채), **대구 청계사**(요사채), **서울시 문화재 2호 봉황각**(수련원), **유교문화원**, **서울 불광사**(다향원), **북한산 삼봉사**(주지실, 요사채, 공양실), **포천 장안사 천도교 서울 총구 수련원**(서울문화재 36호), **가평 불광사**(요사채)

고정협찬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웰빙코리아 http://www.wbkor.co.kr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33층 3304호 H·P 011-719-9716
전화 02)538-8489, 551-3010, 2661-6711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3>



사람이 먼저다

알라위 지방에 살고 있던 한 가난한 농부는 자기 마을에 부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일을 끝내고서 부처님을 뵈러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일한 재산인 황소가 간밤에 고삐를 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농부는 먼저 소부터 찾아야겠다고 생각하여 소를 찾아 온 들판을 헤매었습니다.

농부가 이처럼 소를 찾아 헤매는 동안 그 지방의 한 신자 집에 머무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양을 모두 끝마치셨습니다. 공양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설법 시간이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그날은 어쩐 일인지 부처님께서 묵묵히 앉아 계실 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농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간신히 소를 찾아 마굿간에 매어놓은 농부가 헐레벌떡 부처님 계신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신자들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 집주인에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남은 음식이 있소? 있다면 이 사람을 우선 좀 먹여야겠소."

일어나서 설법하는 곳으로 오려 했다가 황소를 찾아 온종일 헤매었을 터이니 얼마나 피곤하였겠고, 또 얼마나 배가 고팠겠느냐? 비구들이여, 이 세상에서 배고픔처럼 견디기 어려운 고통도 없느니라."(<법구경> 203게송의 인연이야기)

몇 해 전 어머니와 서울 영등포의 한 공원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마침 바로 옆 지하철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근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었지요.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그 공원을 거쳐야했는데, 구청에서는 사람들의 통행을 위해 길을 만들고 보도블럭을 깔끔하게 깔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좀 빙 돌아서 가야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그 길을 무시하고 자연스레 난 잔디밭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잔디밭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려고 밧줄로 경계를 쳐놓았지만 백이면 백 사람 모두 다 그 밧줄을 넘어서 집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 깔끔하게 마련된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녀야 그게 길이다."

불교의 장점은 세상에 본래부터 있어왔던 이치를 부처님께서 밝혀내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었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종교계에서는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보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갈등과 폭력, 그리고 무관심이 가득 찬 이 사회에서 종교인들이 팔을 걷어붙였다는 점은 참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칫 "우리 종교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므로 그에 따라서 이 문제를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강요할까봐 좀 두렵습니다. 그러다가는 자칫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위한 사람이 될 것만 같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연스레 지나다니는 길을 구태여 막아버리고 "왜 새 길을 걸어가지 않느냐"고 강요하면서 옛 길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허물을 씌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식은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기 위한 덫일 뿐이며, 자신들의 이론과 방식(길)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폭력일지도 모릅니다.

배고픈 농부에게 법보다 밥을 먼저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람이 먼저'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배고픈 농부에게 밥을 먼저 주신 이유는 어떤 교리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뜻

농부는 부처님 덕분에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밥을 다 먹고 오자 그제서야 부처님은 차례로 법을 베푸셨습니다. 그 법이란 바로, 계를 지키는 것, 보시 공덕을 짓는다는 것, 좌선 수행, 그리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는 것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농부와 그 집주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수행자가 도달하는 작은 깨달음의 자리'에 도달하였습니다.

설법이 끝나고 부처님과 비구들은 제타바나 수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기 전에 농부의 식사를 먼저 챙겨서 먹인 것은 좀 뜻밖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너희들의 말은 옳다. 하지만 나는 그 농부가 이제 진리를 받아들일 인연이 무르익었음을 알았기에 그곳까지 찾아갔던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가 여래의 법문을 듣다가 배고픔을 느낀다면 그는 배고픔 때문에 여래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래는 먼저 그의 배고픈 고통부터 해결시켜 준 것이다. 그 농부는 아침 일찍부터



지상 백고좌

자연은 그대로 부처,

월운 스님

(서울 보문사 주지)



월운 스님은 예불문이나 반야심경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바른 신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불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부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고, 법당과 길거리에도 있고, 마음속에도 존재합니다. 결코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불자들은 딴데서 찾을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게 뭔 말인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어떤 그 속에는 큰 의미가 들어 있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상시에 하는 예불문이나 반야심경의 뜻만 알아도 바른 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는 불교의 심오한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그저 경구를 입으로만 중얼거리는데 만족하지요.

그러면 예불문을 풀어봅시다.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삼계도사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끌어주시는 스승이란 말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중생들이 윤회하면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사생자부는 중생이 태어나는 네가지 방식인 난생 습생 태생 화생으로 난 중생의 자애로운 아버지를 뜻합니다.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불타야중'을 살펴보면 시간과 공간, 땅과 물 어디에든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은 존재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부처가 아닌게 없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이같은 원리를 알면 계율이나 수행을 말하기 이전에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른 신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염되지 않으면 부처님입니다. 우주 자연은 그대로가 부처입니다. 그러나 때가 묻으면 중생이 되는거지요. 우리가 중생인 이유는 불성에 무명이라는 때가 묻었기 때문입니다. 불성이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지수화풍 사대로 형성된 우리 육신은 감각을 느끼는 오관을 갖고 있는데,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좋은 향을 맡으려고 하고, 또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찾아 다닙니다.

경제 급성장에 정신적 성숙 못따라가 난관 봉착 청빈을 최고 가치로 여긴 선조들의 지혜 배워야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반야심경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모르고 열심히 독송하거든요. 한자로 된 경전이다보니 지나치듯 읽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불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스님이나 학자가 아니고서야 누가 한자경전을 알아보겠습니까. 불교를 믿고 싶어서 절에 처음 찾아온 초심자에게 계송으로 된 법문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한달에 한번 법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참선하라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불교의 현실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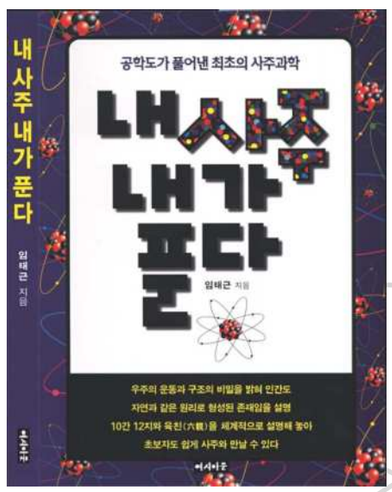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신개발의 정도를 표현하는 단위는 1900년대 초반부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IQ(지능지수)를 사용했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EQ(감성지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SQ(영성지수)와 NQ(인간관계지수)가 새로운 척도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반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40년만에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 물질이 풍요로워졌지만, 범죄형태는 갈수록 악독해지고 기본적인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족해지는 일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공황이라는 예기치 않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마치 방향감

공학도가 풀어낸 최초의 사주과학

서울대 출신의 공학도가 풀어 쓴
사주의 새로운 개념서

· 음양에서 오행이 발생하고 10간 12지로 발전하는 순환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
· 오행의 원리도인 하도와 낙서는 우주의 흐름도
· 인간의 성정과 적성에 맞는 직업도 알 수 있는 육친의 자세한 해설
· 용신의-통일장이론인 중화용신에 대한 확실한 해석



임태근 지음 /46배판 / 336면 / 12,000원

천리마도 때를 못 만나면
소금수레를 끈다.
역사에 족적을 남기고자
한다면……

저자약력 : 임 태 근(林泰槿) 본명 : 임우간(林佑侃)
1956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였다.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박도사'로 알려진 제산선생으로부터 사주 감정을 받고부터 사주에 관심을 갖게 되어 20여 년 동안 사주학을 연구했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음양오행의 원리가 현대물리학의 일반상대성(음양이론)이론과 양자역학(황극작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밝혀 놓았다.
현재는 프리랜서 자바 프로그래머로 웹 사이트와 메신저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代) Fax : (02)737-0696 http://www.buddhapia.com 불자의 긍지 현대불교신문사

때 묻으면 중생



불교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월운 스님은 복짓는 불교, 육바라밀의 실천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화목한 가정은 살기좋은 세상 만드는 지름길
재물보시 보다 따뜻한 마음 나누는 것이 더 중요

각을 잃고 방황하는 돛단배 같습니다. 빠른 경제성장에 정신적인 성장이 발맞추지 못하고 뒤쳐져 있는 탓입니다.

좋은 것만 느끼다가 어려움에 부딪치면 꺾이고 마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좌절을 맛보고,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오관이 원하는대로 살아가려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습성 때문입니다. 이런 때 불교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무소유는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입니다. 무소유는 아무 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넘쳐나는 요즘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이 바로 이 무소유 정신입니다. 청빈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옛 선인들의 지혜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요즘 정치권의 모습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따지고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양극에 있어서는 화합과 상생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지요. 부처님은 중도로써 이미 그 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르침이지요.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는 것만으로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실천이 뒤따라야 해요. 큰스님 찾아다니면서 듣는 법문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듣는 이가 실천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회때 가족 중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남편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들 "남편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탓할 것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남편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것처럼 남편도 믿으세요. 부처님에게 지심으로 절을 하듯 남편에게도 절을 해 보세요. 자신이 달라지면 자신의 주변이 변합니다. 내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웃이 화합하게 됩니다. 행복으로 가는 방향을 알면서도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회도 건강할 수 없어요. 가정은 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이기 때문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가족간에 서로를 위해주고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화평한 가정을 가꿀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마음을 나눔으로써 얻을 수 있는 셈이지요. 마음을 조금만 나누면 평화가 거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찾지 않습니다.

육바라밀의 첫 번째 덕목은 보시입니다. 재물을 보시하는 것이 다는 아니예요. 오히려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악업은 참회로도 다 갚지 못합니다. 참회로 갚아질 것 같으면 아침에 죄 짓고 저녁에 참회하면 된다는 말인데, 불교는 결코 그런 비상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생을 거치면서 쌓여온 악업은 보시로써 갚아야 해요. 나쁜 일을 했으면 마땅히 좋은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복을 많이 지으세요.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입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뜻으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갚는 방법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복 짓는 불교 하자는 것도 육바라밀을 실천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육바라밀은 불교를 이 땅에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부처님은 다 일러주셨는데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발심과 하심이 필요합니다. 큰 원력을 내지 않고 나를 낮추지 않으면 육바라밀 가운데 한 가지도 행할 수 없어요. 은산철벽의 의단으로 발심하고 하심으로 정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정리=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인터넷 활용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발맞춰 가며 포교 매진

월운 스님은

불자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전하기 위한 스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월운 스님. 스님은 불교가 사람들에게 어렵게 인식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스님들의 잘못된 교육에 있다고 지적한다. "스님들이 책이 모자라 공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공부를 안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은사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엄격한 스승이다.

월운 스님은 자기계발을 위해 인터넷으로 세상을 만난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스님의 신세대식 공부 방법이다. 스님이 세상의 냉혹함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은 병원을 운영했던 경험에서 비롯됐다.

1980년 서울 망우동에 불교종합 반야병원을 개원했던 월운 스님은 다른 종교를 가진 의료진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불자들의 무관심에 적지않은 상처를 받았다. 게다가 개신교에서 설립한 병원의 공격적 마케팅과 반야병원 의료진에 대한 회유가 계속돼, 스님은 86년 반야병원의 문을 닫아야 했다.

스님은 요즘 불교를 접하기 어려운 이들을 찾아다니는 일에 열심이다. 형편이 어려운 불우가정과 무의탁 노인, 군부대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간다. 불교가 사람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서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1936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월운 스님은 1965년 합천 해인사에서 화봉 스님을 은사로 정식 출가했다. 1953년 영천 은해사에서 응준 화상으로부터 사미계를 가수계한지 12년만의 일이었다. 1978년 서울에 자리를 정한 뒤 월운정사, 보문사를 창건했으며,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중앙호법원 부원장, 제도개혁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적음 스님 (下)

김천 부근에 이르렀을 때 뉘엿뉘엿 해가 기울었다. 붉은 노을이 너른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다. 노을 비낀 허공에 까마귀 몇 마리 서천(西天)을 향해 까악까악 울며 날고 있었다. 걸음을 멈추고 노을 비낀 허공을, 들판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가까이 시가지가 있었고 여기 저기 농가들도 보였다.

인심 좋은 어느 농가에 들러 저녁도 얻어먹고 하룻밤 잠자리도 얻어볼까 하다가 그만 포기했다. 심신이 지치기도 했지만 혹여 그의 청을 들어주지 못할 경우를 상정해서였다. 그리되면 그 자신이나 그 농가가 얼마나 난처할 것인가. 어두워가는 저녁녘에 찾아 온 길손을 먹여주고 재워주지 못하는 농가 주인이나 그 농가를 뒤로 하고 떠나는 길손의 뒷모습은 또한 어떠할 것인가.



그림 · 문병성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나 둘씩 불빛이 켜지고 있는 농가의 봉창들 뿐 아무것도 없었다. 저녁 바람결에 일렁이는 드넓은 보리밭이 시야에 들어왔다. '옳지, 됐다. 오늘 밤은 저기 저 보리밭에서 일박하면 되겠구나.' 성큼성큼 보리밭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음이 푹 가라앉았다. 아주 편안했다. 그 때 뒤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스님, 이리로 나오십시오."

뒤돌아보니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일순 무슨 나쁜 짓을 하려다 들킨 아이처럼 주춤 부끄러움을 탔으나 이내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자취를 하고 있는 그 학생의 방에서 따서운 밥을 얻어먹고 얘기를 나누었다. 그 학생은 적음 스님과 동갑이었으며 처립새는 같지 않았으나 도반이었다.

이튿날 아침, 공양까지 따스하게 얻어먹은 적음 스님은 학생과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것을 운운(云云)하고 굳은 악수를 나누고 작별했다. 좋은 밤이었다. 보리밭으로 걸어 들어가 여름밤의 초롱초롱한 별들을 쳐다보며 지친 육신을 쉴 작정을 했는데 착한 학생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하룻밤을 잘 보내고 나니 참으로 몸이 가뿐했다.

산중에 있다가 모처럼 보는 시가지는 낯설었다. 번잡스럽고 어리둥절하고 숨 막혔다. 그런 거리와 골목을 오고 가며 목탁을 두들겼다. 탁발을 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 자재보살…

쌀을 한 웅큼 주는 이도 있고, 동전 한 닢을 주는 이도 있고, 지폐 한장 주는 이도 있고, "우린 교회 믿어요."이러면서 내치는 이도 있었다.

어느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이르러서였다. 목탁을 두드리며 반야심경을 외자 조금 있다가 문이 열렸다. 앳된 여자 보살이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대청마루엔 젊은 남자가 앉아 수박을 먹고 있었다. 갓 혼인한 신혼부부 같았다.

그들은 그에게도 수박을 권한 뒤 재미있다는 듯 이것저것을 물어 댔다. 잠시 땀을 식힌 뒤 그가 일어서자 신혼부부는 몇 장의 지폐를 그에게 전한 뒤 대문까지 나와 배웅했다. 더울텐데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면서 그를 배웅했다.

스님들에게 있어 만행은 꼭 필요하다. 될 수 있으면 자주 만행을 행함으로써 세간의 이모저모를 살필 수 있어 좋고 하심(下心)할 기회가 생겨 좋다. 그것은 수행자에게 알게 모르게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의 약' 삼아 떠나는 만행길에서 하심배워

스님은 저녁녘에 쌀집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눈에 잘 띄지 않아 역 앞에 찾아들었다. 식당이라면 쌀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쌀집을 찾을 필요가 없을 터였기 때문이었다. '서울식당'이란 그 식당.

땀에 젖은 후줄근한 몰골로 그가 식당에 들어서자 주인 여자는 선풍기를 돌려주고 물수건과 찬 보리차를 갖다 주었다. 시주 받은 쌀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따로 깨끗한 방을 내어 그를 묵게 했다. 여섯 살인가 일곱 살 쯤 되었을 법한 주인 보살의 이쁜 딸도 금방 그를 따랐다. 그는 행복했고 노독(路毒)을 잊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는 황악산 직지사 일주문을 들어서며 그는 황홀했다. 대웅전 뒤 하늘을 찌를 듯 가늘게 솟아 있는 소나무들 위로, 안개 뿌우옇게 휘돌린 그 위로 흰 학들이 선경인 듯 날고 있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는 이른 아침의 황악산 직지사. 안개 뿌연 소나무들 사이로 흰 학들이 날고 있는 직지사.

스님 생애 만행의 한 가운데 점처럼 찍혀있는 그 때 그 여름의 기억들을 잊지 못하겠노라고 그는 되뇌었다. 그 때, 객실에서 만난 속리산 법주사 원주 스님. 그이와 함께 보은읍 장터 좌판에서 참외와 막국수 등을 사먹던 일. 법주사 일주문 못미쳐 있는 개울 옆의 수정암, 저녁 공양을 앞 둔 어린 비구니스님들이 개울에서 깔깔거리며 장난치던 모습들. 그것들이 아직도 그의 뇌리에 살아남아 있다. 그것들이 아직도 살아 그를 먼 기억의 오솔길로 내 몰고 있다. ■ 봉화 청량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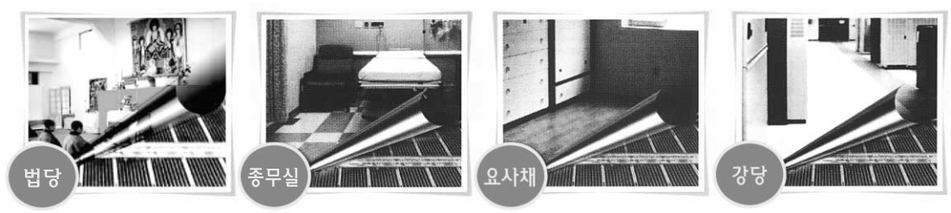
법당 난방 걱정 끝!

배관난방이 아닌 면상발열체 난방시대.

원적외선 복사열 난방필름 [10평 기준 월 3만원대 - 1일 8시간 30일 기준]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산속 사찰에서 도심 포교당까지)

설치장소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기숙사, 병원, 별장, 콘도 등



경제적 난방!! 간편한 시공!! 반영구적 설비!!



세계 7개국 발명특허를 획득한 수입완제품.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면상발열체 난방시스템으로 21세기 사찰 난방의 새로운 역명을 한국전자난방이 만들어 갑니다.

난방 종류별 단가 비교표

구 분	심야전력(축열식)	전기판넬	도시가스	보일러등유	LPG	한국전자난방
가 격(원)	31.24(kwh)	71.5원	500원(㎥)	650원(ℓ)	950원(kg)	71.50원(kwh)
연료소비량(월)	192(kwh)	167(kwh)	13(㎥)	17(ℓ)	12(kg)	43.2(kwh)
난 방 비(평당)	5,998원	11,941원	6,500원	11,050원	11,400원	3,088원
단 가 지 수(%)	194	386	210	358	369	100
10평 난방비(원)	59,980원	119,410원	65,000원	110,500원	114,000원	30,880원

음이온 시험 성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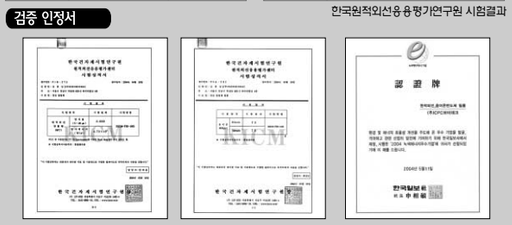
시 료 명	음이온(on/cc)	발급번호
발열필름	158	kfim-236

원적외선 시험성적서

방 사 율	방사에너지	발급번호
90.3%	3.64×10²	kfi-403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 시험결과

검증 인정서



(주)한국전자난방 본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6-5번지 고려빌딩 4층 • 설치 및 전국문의 : 080-017-0100, 지역문의 : 043)221-6006

지는 구나 2004 뜨는 구나 2005 새해엔 꼭…

해돋이 명소에서 함께 축제를



포항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2005'에서는 청사초롱 전통무용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사진은 일출에 맞춰 염원 올리는 선녀들(위)과 호미곶 축제의 성화점화.



2005년에는 일출을 보며 새해 새다짐을 해보면 어떨까. 사진은 경주 문무대왕릉 해맞이 대축제에서 만날 수 있는 장엄한 일출. 사진제공=경주시청

2005년 해돋이는 축제와 함께 맞이하자. 2004년을 마무리하고 2005년을 맞이하는 해넘이 해돋이 축제가 전국 해돋이 명소에서 일제히 열린다.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2005는 경북 포항 인근 호미곶에서 열린다. 이맘 때 최고의 먹거리인 과메기 축제도 같이 하고 있어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질 전망이다. 고성에서는 통일기원 범종타종식으로 2005 고성 해맞이 축제의 해돋이 향연이 벌어진다. 실향민이 참여하는 소원성취기도 행사, 대북공연, 소망풍선 날리기, 군악대 공연 등도 마련된다.

양양 낙산사에서는 소망기원 연등달기, 범종 타종식, 해맞이 대법회가 양양 해맞이 축제 2005의 일환으로 성대하게 열린다. 낙산해수욕장에서는 동해신묘제례 봉행과 소망기원 풍선 및 연날리기, 모닥불 밝히기, 송구영신 기원 멀티미디어 불꽃쇼, 새해소망 떡국 나누기, 선박퍼레이드가 열리고, 설악산 대청봉에서는 등산객을 위한 해맞이 행사가 진행된다.

국태민안 기원 독경과 바라춤으로 막을 올리는 2005년 경주 문무대왕릉 해맞이 대축제는 만파식적 등 국악공연과 폭죽쇼, 해룡 모형 이벤트, 관광객 노래자랑,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 해상불꽃놀이, 소원성취 기원제, 대북 타고식, 연날리기, 가훈 써주기, 특산물 전시판매장 개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기다린다.

일출로 유명한 여수 향일암 일출제는 여수시 돌산읍 임포마을에서 12월 31~1월 1일에 개최된다.

일출을 동해에서만 만끽할 수 있다는 편견을 버리자. 서해안에서도 다양한 해돋이 축제가 준비중이다.

충남 당진의 왜목마을로 널리 알려진 왜목해뜨고 지는 마을은 청소년 댄스, 관광객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 연날리기, 짚풀공예 등 민속놀이 재연으로 해돋이 축제를 준비했다. 태안군은 안면도 황도항, 근흥면 연포해수욕장, 근흥면 채석포항, 근흥면 안흥항, 근흥면 원안해수욕장, 근흥면 안흥외항, 남면 마검포항 등 7곳에서, 서천군은 마량포구에서 해넘이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

한편 철도청은 12월 31일 무박2일로 신년해돋이열차를 운영한다. △정동진 해돋이 △해금강 외도 해돋이 △한려수도 삼천포 선상일출 △홍도 선상일출 △경주 감포 문무대왕수중릉 해돋이 △해운대해돋이 △태백산등산 해돋이 등 7종의 상품을 마련했다. 요금은 공사출범 기념 10% 특별할인이 적용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축제가 열리는 곳

축제명	내 용
포항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2005	과메기 축제, 난타 공연, 청사초롱 전통무용, 불꽃놀이, 외국인 장기자랑, 영호남 신랑신부 결혼식, 떡국만들기 체험행사
2005 고성 해맞이 축제	실향민이 참여하는 소원성취기도 행사, 통일기원 범종타종식, 대북공연, 소망풍선 날리기, 군악대 공연
양양 해맞이 축제 2005	낙산해수욕장에서는 동해신묘제례 봉행과 소망기원 풍선 및 연날리기, 모닥불 밝히기, 송구영신 기원 멀티미디어 불꽃쇼, 새해소망 떡국 나누기, 선박퍼레이드를, 낙산사에서는 소망기원 연등달기, 범종 타종식, 해맞이 대법회, 설악산 대청봉에서는 등산객을 위한 해맞이 행사
강릉 '2005년 새희망! 새출발! 해돋이 축제'	시청앞 전야제, 경포호수호반알몸달리기, 콘서트 불꽃놀이, 진또배기(솟대) 소원빌기, 바다안기 수영대회, 연예인 초청 콘서트
정동진 해맞이	모래시계공원에서 1일 0시 모래시계 회전식, 신년 카운트다운, 불꽃놀이, 진또배기 소원빌기, 연예인 초청 콘서트.
성산 일출제	제주 성산 일출봉 일원에서 12월 30~1월 1일 새해맞이 일출제, 올해로 11회째.
속초시 해맞이 축제	'을유년 새해 아침 속초시에서 힘찬 새출발을' 닭띠 관광객 대상 무료 가훈써주기, 한해 운세풀이 행사, 대북공연, 전통무용, 공감음악회, 어선 선상 퍼레이드, 테마가 있는 불꽃놀이, 희망촛불나무 만들기, 설악해맞이공원 촛불기도와 해오름 합성행사, 떡국 포기 맛김치 순두부 등 무료시음.
희망 2005년 동해 해맞이 축제	망상과 추암에서 길놀이,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송구영신 기원 33발의 폭죽, 해상 선박 퍼레이드, 모닥불 추억만들기, 촛불페스티벌, 새해 소망기원 불꽃놀이, 소망풍선 날리기, 연하장 쓰기, 무료 떡국 나눠먹기, 두타산 시산제와 대화합 한마당 잔치
삼척 '새해 새희망! 힘찬 새출발'	1일 오전6시부터 해맞이 콘서트와 불꽃놀이, 사물놀이, 합창단 공연, 해맞이 징치기, 신년축하메시지, 소망기원 풍선날리기, 새해건강기원 걷기 대회, 라이브콘서트
2005년 경주 문무 대왕릉 해맞이 대축제	국태민안 기원 독경, 바라춤, 만파식적 등 국악공연, 폭죽쇼, 해룡 모형 이벤트, 관광객 노래자랑,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 해상불꽃놀이, 소원성취 기원제, 대북 타고식, 연날리기, 가훈 써주기, 특산물 전시판매장
여수 향일암 일출제	12월 31~1월 1일, 여수시 돌산읍 임포마을.

전시

서양미술 400년, 푸생에서 마티스까지

4월 3일까지 한가람미술관

서양미술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 '서양미술 400년展 푸생에서 마티스까지'가 12월 17일 시작돼 4월 3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근대회화의 시조 푸생에서부터 현대미술의 거장 마티스까지, 17~20세기 서양미술의 흐름을 화가들의 진품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17세기 바로크와 고전주의, 18세기 로코코, 19세기 낭만주의와 신고전주의, 인상주의, 20세기 야수파, 큐비즘 등 서양 미술 400년 흐름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번 전시에는 다비드, 앵그르, 들라크루아, 모네, 르누아르, 고갱, 마티스, 뒤피, 피카소, 들로네 등 88명 서양 화가들의 원화 119점이 출품된다. 작품들은 프랑스의 랭스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에서 빌려온 진품들.

시대별로 나뉘어 전시되는 작품 가운데 오랫동안 프랑스 랭스미술관 수장고에 있던 고갱의 미공개 판화집은 이번 전시회에 특별히 초대돼 한국 일반 대중에게 전격 공개된다.

엽서 한 장 크기보다 작게 그려진 르누아르 유화 '대본낭독'은 여인의 코발트 빛 옷과 장밋빛 혈색이 생생하게 표현돼 있다. 도난 위험 때문에 해외에서 전시된 적이 없었으나 이번에 특수 액자를 제작해 한국에서 첫선을 보인다. 입장료 일반 10,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 www.arthistory400.com, (02)2113-3477

강지연 기자



프랑스혁명의 세 거두 가운데 하나였던 마라의 암살장면을 그린 '마라의 죽음'. 1793년 다비드 作.

'옴'과 '한일자'가 만났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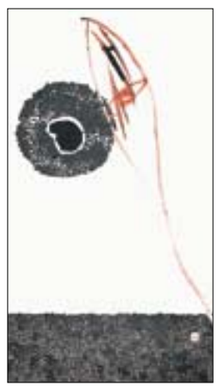
선진 스님과 서예가 노상동 선생 만남展

11년동안 옴자만을 일관되게 써온 진언행자 선진 스님과 30년간 한일자만을 고집하며 수행해 온 한일자 노상동 선생의 만남 전 '옴 그리고 한일자' 전이 대구에서 열린다.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대구시 남구 대명2동 불교전문갤러리 '목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선진 스님이 붓을 들어 옴을 찍고, 노상동 선생이 한 일자로 장엄한 작품 31점이 선보인다. 옴은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언어이자 깨달음의 언어, 허공이라고 선진 스님은 말한다. 또 반야심경 파자로 일자를 표현한 노상동의 반야일자는 무상무아 연기법적 법신의 모습이라고 했다.

선진 스님은 "관음의 가호지묘력과 신심과 원력으로 옴과 한일자 만다라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선진 스님과 노상동 씨가 공동작업한 '옴과 한일자 26'.

공연

체호프의 '세 자매' 무대에

1월 2일까지 설치극장 정미소

올해는 러시아의 문호 안톤 체호프(1860~1904)의 사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셰익스피어와 함께 후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극작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고전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체호프. 그 가운데서도 러시아 초연 이래 모스크바예술극장의 중요 공연 작품으로 꼽히고 있을 만큼 가장 인정받고 있는 작품 '세 자매'가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막을 올린다.

'세 자매'는 극단 애플시어터(대표 전훈)가 2004년 한 해 동안 야심만만하게 내놓았던 '체홉의 4대 장막전' 가운데 4월 동국대 예술극장의 '벚꽃동산', 7월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의 '바냐 아저씨', 10월 정동극장의 '갈매기'에 이어지는 네 번째 작품이다.

19세기 말의 러시아, 지방의 소도시에서 일어나는 세 자매와 주둔군 장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했다. 러시아 국립 쉐프킨 연극대에서 공부한 러시아 유학파 1세대 전훈 씨가 연출을 맡아 원작을 직접 한국말로 옮기고 배우들과 연습을 통해 대사를 다듬었다.

조민기, 정원중, 이호성, 류태호, 김정난 등 쟁쟁한 출연진이 돋보인다. 1월 2일까지, 설치극장 정미소. (02)741-3934

강지연 기자



19세기 말 러시아 소도시의 한 가정을 그린 연극 '세 자매'의 출연진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민기, 정원중, 류태호, 이호성, 이경선, 김정난, 유지연 씨.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연꽃목어조각 목탁



벚나무로 만든 수공예 연꽃목어 조각 목탁이 나왔다. 오동나무상자 포장으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했다. 목탁의 사이즈는 3.5치(20만원), 4치(26만원), 4.5치(34만원), 5치(40만원), 5.5치(50만원) 등이다. 목탁 양면의 조각이 각각 다르게 조각되어 수공예목탁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02)732-1520

게시판

공부합시다

부석사 영어학교 서산 부석사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1월 4~13일 부석사 영어학교를 개최한다. (041)662-3824

겨울방학특강 인천 계양도서관이 12월 28~30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영어, 논술, 퀼트 등 7개 강좌를 무료로 개최한다. 강좌별 20~30명씩 선착순 모집할 계획. 교육은 내년 1월 10일~2월 4일이다. (032)555-6427

청소년자원봉사교육 양정청소년수련관은 1월 24~28일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한다. △자원봉사 이해 △자원봉사 활동, 장애체험 △자원봉사홍보 애니메이션 제작체험 및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051)868-0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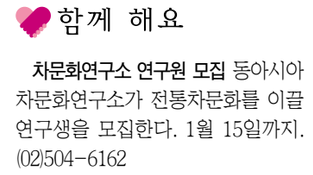
함께 해요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모집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가 전통차문화를 이끌 연구생을 모집한다. 1월 15일까지. (02)504-6162

'친구야 놀자' 캠프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친구사귀기 프로그램 '친구야 놀자' 캠프를 1월 24~26일 개최한다. 참가비는 8만원. www.wangtta.com, (02)795-8000(내선 320, 321)

초등학생 겨울환경캠프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환경캠프를 개최한다. 1월 17일부터 2박 3일간 남해갯벌생태학교에서 열린다. (051)465-0221

재즈댄스 등 수강생 모집 인천 만수종합복지관이 12월 31일까지 유아·초·중생을 대상으로 미술, 재즈댄스, 레고닥터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별로 10~15명씩 선착순 모집. 교육은 내년 1월 3~31일이다. 수강료 3만~4만원. (032)463-8161



100인의 작은 기념비전(사진) 100인 조각가의 작은 기념비전이 1월 14일까지 선화랑에서 개최된다. 국내 조각계의 다층적 구조를 들여다 볼 있는 특색있는 전시. 최근까지 작품활동이 왕성한 대표작가들이 총 망라됐다. (02)734-0458

청소년 비전 캠프 성남 서현청소년수련관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21C 리더를 꿈꾸는 청소년 비전 캠프를 1월 20~22일 수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내 안의 진정한 나를 찾아서, 내 삶의 로드맵 설계, 셀프 리더를 넘어 슈퍼 리더로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031) 781-6183

겨울 스포츠 학교 해양소년단 통영고성거제연맹은 1월 19~21일 지산 리조트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겨울스포츠 학교를 연다. (055)646-8082

즐겁게 떠나요

월정사 눈꽃여행 옛돌 답사여행은 1월 8일 오전 7시 30분 오대산 월정사 눈꽃터널 기행을 떠난다. 오대산 월정사 눈꽃터널~상원사~적멸보궁~정선~아우라지~꼬마열차(정선역-증산역) 등을 둘러볼 이번 기행의 회비는 일반 43,000원, 정회원(중·고생) 40,000원, 어린이37,000원 등이다. (02)953-1313

20면 상식 퍼즐 정답

송	년	호		전		
구		우	공	이	산	
영			중		어	
신	안				귀	감
	중		사			감
	근	검	절	약		소
		수		시	무	식

신행수기

줄탁의 인연에 대한 기억 〈하〉

한인숙 (원주시 가현동)

난 그 속에 홀로 존재했다. 무용수가 공연끝자락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 이런 것이었을까. 그러나 내게 한 사람, 나 자신에게 배반당했다는 그 분열된 생각 속에서 나를 지켜준 이, 어머니가 있었다. 오직 어머니만이 내가 그곳에 혼자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현실로 끌어내려 줬으나, 받아들일 수 없었던 현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다. 현실이란 그런 것이었다. 내가 갈 수 있는 국립대 중에 나를 받아줄 만한 4년제대가 없다는 것, 내가 눈 여겨 봐둔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상황.

그럼에도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언젠가 받아놓았던 상장을 들고 공주대 사범대에 특차를 지원하겠노라 했다. 어이없어 하는 선생님의 시선을 뒤로 하고 원서를 받아들고, 새별열차를 타기 위해 나간 기차역에서 기차표를 받아들었다. 끝내는 갈 수 없었던 기차 시간 앞의 절박함, 그런 불확실함 속에 발길을 돌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다.

내 방황이 '카타르시스'라 해도 그 느낌 소중히 안고 살아가리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기위해

돌아가야 했던 치욕스러움, 그 새벽이 나의 현실이었다.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잠시 실수를 했고 그래서 원래의 자리를 잃었지만, 나 자신만 확실히 믿으면 다시 길이 보일 거란 말을 해주지 않았다. 가난을 대신하기 위해 악쓰던 자존심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듯이 나를 내려다보는 시선 속에 짓밟힐 뿐이었다.

그렇게 과부의 몸으로 아들하나 딸 여섯을 홀로 키우신 어머니- 헌금이 아까우셔서 그 어떤 신에게도 끝내 의탁하지 않고 홀로 걸어오신 어머니- 밑에서, 다섯째 딸인 나는 이렇게 불교문턱에 서서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어머니의 말뚝이 되었음을 나 또한 가슴 깊숙이 담아야 했다.

세 번째 기억

"불과 세 시간이었어. 눈을 감고 있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난 그때 분명 태어날 때부터의 순간이 지나가기 시작했다고 믿어- 내가 살아온 22년의 결코 짧지 않은 날들이 하루하루 스쳐가는데, 그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 물론, 22년의 시간에서 중요한 것만 지나갔겠지. 근데 난 세 시간 만에 진짜 22년을, 1년 365일이라는 법칙성에 따른 22년을 살아버린, 아니 산 어떤 애를 내려보았던 거야. 그 순간 눈물이 그렇게도 날 수 있는 것일까 싶게끔 많이 울고 '아! 이 사람의 인생이 참 가엾구나.' 싶으면서 심장에서 따뜻한 피가 쏵 퍼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 내가, 내 인생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부터 나는 그저 한 아이의 인생을 보는 듯하고 앉아있는 또 다른 내가 내려다보이는 듯싶었어. 법당이 밝아지는 듯했고, 나에게서 빛이 나는 건 아닐까를 생각했지. 그리고 법당에서 나올 때는 나뭇잎 하나 하나에 연민이, 매달리는 거야.' '가련하구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가련하구나.'

나는 사실 이 때의 경험을 얘기하면 말하는 순간 날아가 버릴 듯하여 없었던 일들로 돌변할까봐, 말이라는 게 그렇게 허무해 꼭꼭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었다. 그러다 얼마 전 내 친한 언니에게 털어놨던 것이다. '유체이탈'이란 말을 썼지만 이것만으로 어찌 내 경험을 말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여름방학 때 나는 절에 갔다. 대학을 2년 다녔고, 그 기간동안 사랑을 했고 떠나버린 사랑에 아파했고 그렇게 절에 가서 쉬고 싶었다. 난 사실, 사랑은 한낱 인생의 한 부분일 거란 생각을 했었다.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들- 너무나 확신에 찼던 나에 대한 믿음들- 그러나 나의 사랑이 떠나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때로는 인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건 또 하나의 세계이고 사랑이 떠난 건, 그 세계의 파괴라는 것을 말이다. 대학을 올 때도 그토록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내가 살아온 세계의 파괴된 현장을 인정하지 못했던 나 자신에게 있었음을. 당시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도망쳐버린 것이다.

알에서 깨어났을 때, 다른 세계가 펼쳐짐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었던- 독화살을 맞으면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 독화살이 날아와 왜 내가 맞아야 했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그렇게 나의 세계는 파괴되고 나는 죽어가고 있었음을 몰랐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까지의 시간이 바로 2년이 지난 지금이다. 도망쳐버린 현실에서 나는 한사람의 가슴속에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했고 의지하려 했기에 결국에 그 무게에 눌려버릴 집을 지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피한다고 도망간 그 자리가 무너져 내려앉은 날, 나는 아직 내가 열 아홉 살 이후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음을 깨달아야 했다.

나는 그제야 내 주위에는 깨져버린 달걀 껍질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아가기 위해 내 안에 다시 집을 짓기 위해 절에 왔었다. 단절된 공간에서 깨끗이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선택한 것이 절이었다.



그림 · 문병성

고3때 만난 스님에게 부탁해 절에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엔 단절이 아닌 제한된 인간관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내 세계는 커녕 자꾸만 과거에 가졌던 그 세계를 그리워하게 돼버렸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던가. 저녁에 법당에 앉아있다 나는 이 경험을 했다. 그리고 나를 세운다는 것이 또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았다 -내가 파괴된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들이 깨어지는 걸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 그렇게 나는 내 안의 집을 짓지 않고도 평온을 되찾아 돌아와 사람들 틈에 서 있다. 그리고 그 때의 경험에 대한 미련으로 학교로 돌아와 불교철학사를 공부하고 있다. 지금껏 내 파괴된 세계를 마주할 때마다 의탁했던 그 세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다.

그리고 내 경험을 누군가 그건 울고 난 후의 카타르시스라고 말해도 그 때의 느낌을 소중히 안고 살아가려 한다.

"줄탁의 인연", 줄이란 병아리가 알 속에서 다 자라 세상 바깥으로 나오려고 알 껍질을 쪽쪽 빠는 것을 말하고, 탁이란 어미닭이 그 순간을 알고 바깥에서 알을 탁탁 쪼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어느 시인의 수필에서 읽은 글이 생각난다.

이제 내게 있어 불교와 맺어졌던 그 순간들에 대한 세 가지 기억이 풀려있다. 말할 수 있으면 상처는 낫는 것이란 생각을 한다. (끝)

릴레이 수행일기



전병롱
위강원한의원 원장

수행은 육진 경계에 이끌리지 않아야 되고 간절하게 염염이 상속되게 염불하면, 모든 경계가 고요해지고 마음이 텅 비면 자성이 저절로 나타나는 법이다. 초심자들은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고 들이 쉬고 내 쉬는 호흡에 공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 한숨 끊어지면 저승이니 사대육신이 흩어지는 그 순간 한없이 큰 고통이 오고 업장의 큰 물결이 휘몰아쳐도 정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이런 수행관은 깊은 잠에 빠져도 생시와 같이 여여해야 공부가 잘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이 공부가 익어져 극락정토 연꽃에 화생해 무생법인 이루고 보살의 몸으로 모든 중생 제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한다. 그것이 바로 '바른 수행의 길'이고 '수행자의 삶'이라고 믿는다.

이처럼 수행에 확신을 들기까지는 항상 염불삼매에 들어 오로지 정토를 발원한 청화 스님의 영향이 지대했다. 말세 중생들에게 "가장 수승한 수행문이 염불이야"라고 염불선을 강조하던 스님의 말씀은, 젊은 날 내가 출가의 꿈을 갖도록 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은 출가의 원력을 접게 했다. 그리고 난 출가의 한없는 아쉬움과 사무치는 눈물을 흘리며 눈 쌓인 태백산을 내려왔다.

청화 스님 권유로 염불수행에 매진 상기병 등 장애극복… '몽중일여' 노력

이후 난 출가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세속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곧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열심히 수행을 했다. 그러나 상근기의 원력 보살이 아닌 이상 세속에 장애를 받고 끄달리게 됐다. 간절했던 신심도 약해지고 오욕에 조금씩 물들어 갔다.

그러던 중, 지난 1991년 초겨울 쯤. 성철 스님과 인연은 그런 나를 바꾸게 했다. 온몸에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이 멍청한 놈! 정신 안 채리고 뭐 하노"하며 난 스님에게 크게 호통을 받았다 삼배를 올리니 쳐다보시지도 않고 등을 돌렸다. 너무도 큰 충격이었다. 순간 십년의 삶을 깊이 참회하며 수행의 고삐를 죄게 하는 찰나였다.

이후 난 청정계와 법명을 주신 스승 봉암사 서암 스님을 찾아뵙고, 본격적으로 수행을 했다. 화두를 받고 좌복위에서 열심히 정진했다. 하지만 번뇌망상 상기병은 극복됐으나, 무기공 단계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스님을 찾았으나 대책이 없었다.

그러던 순간, 홀륭한 선지식을 못 만나면 경전이나 정통 조사의 어록에 의지해 수행하라 했던 옛 선사들의 말씀이 떠올랐다. 특히 1989년에 사 두었던 청화 스님의 책은 가슴에 뭉친 응어리를 풀리게 했다.

중생의 무지한 아집과 법집으로 보낸 20년. 그 긴 세월을 돌이켜보면, 수행에 진전이 없이 '헛되게 기나긴 세월을 보냈구나'하는 안타까움에 다시 출가의 원력을 세웠다. 그러나 청화 스님은 세속에서 불법을 펴라는 당부의 말을 내게 주셨다.

난 신명나게 수행을 했다. 우주의 대 생명인 진여불성(자성)을 이치적으로 먼저 깨닫고, 진리가 생명이란 마음으로 일념으로 마음공부를 했다. 무엇보다도 아미타불의 청정무비한 적광을 간절하게 관했다. 또 정혜를 균등하게 해 삼매에 쉽게 들 수 있도록 했다.

오랜 염불수행은 세속에서 수행하기엔 쉽고 공덕이 제일 크고 확실하게 성불할 수 있는 길이란 확신이 들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난 염불수행을 해오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지만, 깨달음을 향한 원력만큼은 절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항상 불법을 가슴에 새기고 정진해나갈 것을 맹세해본다.

당 하(茶)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관절과 연골에 글루코사민 포르테

관절염 치료제 BDX-1(특허 제0429595호)

BDX-1은 200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총 10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자하고 중소기업청이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카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활성평가 연구실에서 30여 차례 이상의 효능 및 독성실험 등 임상 실험을 거쳐 완료된 관절염 치료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입니다.
2004년 4월 국내 특허를 획득(특허 제0429595호 : 생약추출물을 포함하는 관절염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하였습니다.

- 골관절염
- 통증을 감소 및 활동성 향상
- 관절손상 보호
- 항염증 작용
- 혈액과 관절에 쉽게 흡수되어 항염증, 진통작용
- 활동성을 향상
-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결석, 사고등으로 인한 관절계통의 상처 치유



관절과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포르테정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900mg 60정×2

"글루코사민 포르테"를 1개월만 복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2~3개월만 복용하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주)제이팜제약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

東熙스님
梵唄 作法 特講

● 일정: 1月 3日 ~ 22日
(첫날은 오리엔테이션)
● 장소: 동희범음회 연구소 및 慈忍寺
● 위치: 4호선 성신여대역에서
아리랑 고개 방향
도보로 5분 거리
(영화의 거리 테마공원 옆)

문의전화
02)923-8180 / 017-396-1644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초급, 고급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임상실습
▶ 개강 : 2005. 1. 3.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암침술학회
장소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

효당 스님 탄신 100주년

견성 이르는 가르침 계승하자


12월19일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열린 '효당 최범술 대종사 탄신 백주년 기념 추모 차담회'에는 스님을 기리는 차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반야로 차도문화원의 공수선차 시연 모습.

▶자연스럽게, 몸 마음 가지런히

근현대 우리 차문화의 맥을 이은 효당 최범술 스님(1904~1979)을 기리는 차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차 한잔을 공양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반야로 차도문화원(원장 채원화)은 12월 19일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효당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추모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로 차인 아인 박종한(대아 중고등학교 설립자)씨와 대회장 목정배(동국대 명예교수), 집행위원장 김상현 교수(동국대), 한국차인연합회 박권흠 회장, 윤병상 교수(연세대) 등 효당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차인들을 비롯해 스님의 차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반야로 차도문화원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효당 스님은 초의선사 이후 일제시대를 거치며 사그라져가던 우리 차문화의 맥을 이어 놓은 차인이다. 독립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으며 명성여자학교와 다솔사 불교전수강원, 해인대학 등을 창설한 교육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8·15 광복 후에는 제헌국회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일선에서 물러나 다솔사에서 불교와 다도 연구에 전념했고, 73년 <한국의 차도>를 펴내 차생활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채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효당 스님은 우리나라 근대 차문화의 중흥조"라며 "만년에는 교학 복원과 연구에 힘쓴 스님의 사상을 되짚어 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효당 스님에 대한 헌향과 헌차에 이어 문도들의 추모글 헌증, 공수선차와 말차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반야로차도문화원은 효당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추모글을 모아 책으로 발간해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02)763-8486

글·사진=여수령 기자

▶차 만드는 법

덖고, 띄우기 반복하는 증차 유명

효당 스님은 제차법 중에서 증차(蒸茶)를 만드는 법을 전수한 것으로 유명하다.

증제차는 봄에 새순을 따서 생잎 자체를 가마솥에 넣고 100도의 끓는 물에 데쳐 꺼내어 비비다가 다시 솥에 넣어 데쳐내어 물기를 빼서 덖고, 띄우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증차 만드는 법은 생잎을 가마솥에 찌고 꺼내어 비비다가 다시 구수하게 덖는 부초차(釜炒茶) 보다 훨씬 섬세하고 까다롭다. 그러나 부초차와는 달리 자극성이 없어 위를 상하게 하지 않고 색, 향, 미가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반야로차도문화원은 이러한 증차법으로 만든 차를 '반야로'라 이름하고 전승하고 있다.


반야로차도문화원 채원화 원장이 증차를 만들고 있다.

▶효당 스님의 차 정신

현대 차도 부흥위해 한평생

효당 스님의 차정신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차도무문(茶道無門)과 차도용심(茶道用心)이 그것이다. 차도무문이란 직업이나 나이,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느 장소, 어느 때에도 차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차도무문 수행의 중심에는 차도용심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차도용심은 차생활을 하는데 있어 다기(茶器)를 다루는 행위와 그 때의 마음자세를 포함해서 일컫는 말이다. 즉, 차를 마시는 일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용하되, 그 가운데 몇 가지 유념할 규범이 있다는 것이다. 효당 스님은 차를 다루는 자세와 행위가 자연스럽고 검소하고, 차가 간이 맞아야 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하고, 때와 장소에 어울려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를 대할 때 마다 이러한 몸가짐과 마음자세를 가지라는 것이 효당 스님의 차정신이다.

스님은 저서 <한국의 차도>에서 "선차란 차 마시는 일상적인 일을 도에 붙여 이른 말로, 차 마시는 일을 통해 직관적인 선의 경계에 가 닿는 일을 말한다"며 "차를 달여 직접 혀끝에 올려 쓰고, 떫고, 시고, 짜고, 맵고, 단 육미를 음미하여 자신의 존재와 우주의 일체감을 체득하는 것이 바로 차선의 견성(見性)"이라고 강조했다.

■<초의선사 장의순>


(김영무 지음, 학영사, 전2권, 각권1만원)

우리나라 차의 중흥조라 할 수 있는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의 일대기를 소설화 한 <초의선사 장의순>이 2년여 간의 집필 끝에 선보였다.

'차(茶) 선(禪) 묵(墨)의 대가'라 불렸던 초의선사는 시, 글씨, 그림은 물론 범패, 탱화, 단청, 바라춤에 이르기까지 두루 능했던 다재다능한 선승(禪僧)이었다. 지은이는 초의선사가 깨우침을 얻은 영암 월출산과 오랫동안 지관 수행을 했던 해남 일지암 등을 직접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지은이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초의선사의 어린시절과 출가 후의 행적이 오롯이 되살아난다.

1부 '출가'에서는 15세의 나이로 출가하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한 필체로 그리고 있다. 2부 '득도'와 3부 '만행'에서는 운흥사 벽봉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깨달음의 길을 걷게 되는 과정과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와의 교우를 담고 있다. 4부 '귀의'는 대흥사 일지암에서 세수 80세로 입적하기까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성우 스님(불교TV회장)은 "초의선사가 한자를 깨우쳐 가는 장면과 다선일미(茶禪一味)의 경지를 터득하는 장면 묘사가 절묘하기 이를 데 없다"며 "문화적 성숙기에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거인(巨人)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고 평했다.

작가 김영무씨는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희곡으로 등단했으며 현재 (사)한국문인협회 희곡분과회장과 계간 <극작에서 공연까지>의 주간을 맡고 있다. 한국희곡문학상(85년)과 행원문학상(2002년), 한국문학상(2003) 등을 수상했다.

■전통다례교실 수강생 모집

(사)청년여성문화원은 2005년 1월 5일부터 열리는 전통다례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다례교실은 3개월 간 매주 오전 10시~12시까지 북촌전통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6만원. 수강신청 전에 강좌 견학도 가능하다. (02)796-6644

■예명원, 계절학기 개강

사단법인 예명원(이사장 손민영)은 제35회 예명계절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예명계절학기는 10일간 총 50시간 동안 한중일 다도와 전통예절, 생활예절 등을 배우게 된다. 2005년 1월 3일~14일, 1월 17일~28일, 1월 31일~2월 11일, 2월 14~25일 총 4차에 걸쳐 진행된다. (02)722-3767



유학파들 귀국하며 당 다풍 전파

후삼국시대 ①

번성했던 신라문화가 마지막으로 찬란한 꽃을 피우고 약간씩 정치적 불안상태를 나타낸다.

왕이 사찰이나 고승에게 다약(茶藥)을 보내고 불사를 많이 했다. 새로운 사찰을 건립하고 탑비를 세우는가 하면 입당 유학한 선비나 스님들이 귀국할 때 당의 다풍을 익히거나 그들의 차생활을 익혀와 퍼뜨리게 됐다.

890년 이후에는 견훤과 궁예가 등장해 세력 확장을 위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도 왕공귀족에서 문인에 이르기까지 차를 마셨다. 황실에서 법문사(法門寺)에 내린 다구는 지금도 지하궁에서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배휴, 온정균, 육구몽, 피일휴 등의 문인들도 차를 즐겨 많은 시와 기록을 남김으로써 차를 한 층 높은 차원으로 승화 발전시켰다. 특히 선가의 조주종심 같은 고승이 나와 차와 선을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 놓았다.

① 백제 때 세운 성주사에 문성왕이 향과 차를 보냈다. 성주사 유적 중에 '다향수(茶香手)'라 새긴 비문(碑文)이 있다.

② 최치원은 진감국사와 무염국사의 비문에서 차 얘기를 했고, 중국에 있을 때 부모를 위해 질 좋은 다약을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친다장(謝親茶狀)'이란 글에서는 차의 정신세계를 말했다.

③ 온정균(812~870)은 당나라 시인으로 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했으나 권세와 부귀를 탐하지 않았다. <채다록(採茶錄)>을 남겼다.

④ 당나라 황실에서 사용하던 다구들을 법문사의 지하궁에 두었던 것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 모양이나 구조가 육우의 <다경>에서 말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⑤ 당대의 시인으로 차를 좋아해서 '고인기다(故人寄茶)'라는 시가 있다.

⑥ 당대의 시인으로 차를 좋아했다. 그는 '고저산기'를 비롯해 많은 다시를 남겼다.

⑦ 조주종심(趙州從諗, 778~897)은 산동 조주 사람으로 속성은 학씨다. 조주지방의 관음사에 머물러 조주라 불렸다. 남전보원 선사의 문하에서 크게 깨달았다. 차를 즐겨 '차나 한잔 마시라'는 뜻의 '끽다거(喫茶去)' 화두로 유명하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시대별 연표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후삼국시대	850 성주사에 왕이 차와 향을 보냄 ① 857 최치원이 당(唐)에서 차를 보냄 <계원필경> 858 체증에게 왕이 차를 내림 860 보림사에 다약(茶藥)을 내림 865 도피안사 비로자나불 완성 869 김윤 등이 견당사로 감 870 김인 등이 견당사로 감 872 낭공(朗空)의 입당 873 황룡사 구층탑 수리 874 최치원이 당에 등과(登科) ② @ 수철화상(817~893)이 차를 즐김 880 보조선사 창성탑비 888 무염국사 입적, <삼대목> 편찬 892 후백제(견훤) 895 궁예가 칭왕(稱王)하다 898 차인(茶人) 도선(道詵) 입적	당대	852 배휴(裴休)가 전문사가 되다 두목(杜牧)이 죽다(다시 '다산 茶山') 856 선부경수록(양화) @ 온정균의 활동 ③ 873 희종(僖宗) 즉위 874 법문사에 다구(茶具) ④ @ 조업(曹業)의 활동 ⑤ @ 십육탕품(소이) 880 황소의 난 881 육구몽이 죽다 883 피일휴가 죽다 ⑥ @ 마은(馬殷) 제기 등이 활동 895 이극용의 등장 997 조주(趙州) 사망 ⑦	나라시대	898 우다왕(宇多王)이 현광사에서 차를 마심

"토르말린, 수정석, 맥반석 등의 천연광물이 뿜어내는 그 시원하고 후끈후끈한 열기,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

원적외선 불가마

형식승인번호(안전인증번호) : HU07305-2001A

5분 충전! ▶▶ 3시간 연속찜질!



딱 한번만 무료체험해 보십시오!
후끈후끈한 원적외선 열찜질!
몸 속 깊이 침투하는 그 시원함!
정말 놀랍습니다.

설날효도선물 목초수액시트 30매 증정
특별가 13만원

● 불과 5분 충전으로 3시간동안 연속찜질 OK!
● 전원차단으로 무선찜질, 유해전자파 걱정 NO!
●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는 편리성 YES!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성도 그만!

◎ 제품의 특성
● 최신 특수공법에 의한 견고한 제품
● 수많은 실험으로 안전성, 기능성 확보
● 인체공학적 설계로 몸의 어느부위에도 밀착성 우수
● 내부 발열온도 135℃, 표면온도 60~70℃
● 원적외선과 음이온 다량발생
(원적외선 방사율 약 90% 음이온 182/cc)

◎ 주요 용도
● 노약자 보온용 및 무릎, 어깨, 관절 찜질
● 여성의 아랫배, 손발을 따뜻하게
● 학생이나 직장인의 목, 어깨 찜질 또는 베개대용
● 아픈곳이나 다친 곳의 찜질
● 낚시, 등산, 야영, 야외 작업시 보온용
● 춥고 습기찬 곳에서의 보온용

■ 자매품 : 청즙(3g 30포) 45,000원, 크로렐라 (200ml 1600정) 75,000원

www.bb21.com ● 상담실 : 02)969-8080



좋은 책, 향기로운 삶
월간 다도 과월호를 판매합니다
과월호의 권당 가격은 5,000원
문의전화 | 02)722-7777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자기 뿌리를 믿고 하나하나 넘어가 보세요!

공부해도 어려움에 부딪쳐요

문 선원에 나온 지가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일 주일에 한 번씩 법회에 참석하면서 스님 법문을 듣고 오면 그 다음 주에는 일할 때도 즐겁고 맘이 착 가라앉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주일이 빨리 갑니다. 그런데 선원에 다녀왔는데도 어려운 일이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답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요?

그게 공부할 수 있는 재료를 제시하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배워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재료를 하나씩 던져 주는데 그 재료를 받아서 넘길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재료가 오든지 그냥 그저 탁탁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그리고 지켜보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새로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로 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생각을 하면 뭐가 돼서 또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수 있는 재료를 던져 주는 거지 정말 그렇게 되나와서 던져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모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겁부터 벌써 덜컥 나죠. 그러다 보면 잘못돼서 고생을 하게 될까 봐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러는 동시에 자꾸자꾸 지혜가 넓어지고 자꾸자꾸 공부가 익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걸 공부의 재료로 삼고 모든 것을 그저 거침없이 하시도록 하세요.

업보를 언제 받게 되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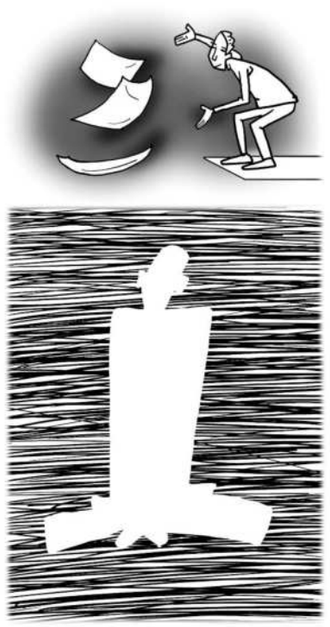
문 선업과 악업을 몸속에 가지고 있고 그 선업과 악업대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저희들이 살면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선업과 악업이 다음 생에까지 연결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전생에 익혀온 선업과 악업에 의해서 이생을 살고 있고 이생에서 지은 선업과 악업은 내생에서 받게 되겠지요.

답 어저께 누구 따귀를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이름 부득부득 갈고 있다가 그 이튿날 와서 아주 직살나게 팼다면 그것도 과거에 지은 것대로 현실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받고 현실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자체, 과거도 오늘이요, 미래도 오늘입니다. 연방 연방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지은 것은 알고 받게 마련이고 모르고 지은 것은 모르고 받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팔자 운명이 그렇게 주어져 있지만 선업은 감사하게 놓고 악업은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 의해서 선업으로 돌리면 모든 오간지옥이 무너진다 이 소립니다. 오간지옥이 무너지고 유전성이나 영계성이나 업보성이나 세균성이나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무너진다 하는 것은 컴퓨터에 입력이 된 데다가 새 거를 자꾸 넣으니까 앞서 입력했던 것이 다 없어진다 이겁니다. 앞서 넣었던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 자꾸 입력이 돼서 들어가니까 새로 입력된 대로 하나하나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나오는 대로 다시 또 놓으니까 어저께 넣은 것이 다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니까, 현실에 생각하는 대로 넣고 그러니까 그릇에 잔뜩 담겨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 거를 자꾸자꾸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잘된 거든 잘못된 거든 잔뜩 차 있는 데는 아무리 좋은 게 닥쳐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자꾸 비워서 잘못 입력된 거를 제거시키고 새롭게 잘 입력해라 이겁니다.

자꾸 울게 됩니다

문 스님이 들으시면 웃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참선을 하다보면 자꾸 울게 됩니다. 삼라만상을 보면 가슴에 닿아서 울게 되고, 올지 말


그림 · 최주현

끊는 게 더 어려운데…

문 불교에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집착을 끊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집착을 끊는 게 더 큰 고통으로 이끄는 것은 아닌가, 모습 있는 나를 고집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그 고집을 끊는 게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생사문제 해결이라든지, 집착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불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답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도(道)도 있는 거고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죠. 또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 안 죽었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다 아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거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깐 죽어야 너를 본다고 말을 한 겁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죽어야, 껍데기인 내가 죽어야 보는 거고, 육안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는 거고, 또 내가 죽어야 부와 자가 만나고, 과거 자기하고 현재 자기하고 만나면 그게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면 그때서야 자기를 만날 수 있다, 또 자기를 불안(佛眼)으로 볼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깐 자기 주인공을 믿고 모든 걸 무조건 걸림 없이 그냥 맡기라는 얘기죠.

> "자기 주인공을 믿고 모든 걸 무조건 걸림없이 그냥 맡겨야 합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애, 아무개야!" 하고 자식을 부르면 그 자식이 대답을 하죠? 또 "아빠!" 그러고 부를 때에 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순간순간 그렇게 바뀌면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없이 사는 것이고 함이 없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고통이 더 있다면 그건 어리석다고 봅니다. 그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됐으니깐 그렇게 됐을 뿐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나가서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고 고집을 한다면 괴로울 것이고 그 나마저도 벗어나서 모두가 공생 공심으로 공식함을 믿고 그렇게 행을 한다면 굳이 생사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물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문 물질 최초의 창조와 그 창조된 물질이 최후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대과학에서도 아직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꼭 풀려야만이 우리 인류평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항시 그 문제를 화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스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하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 물질이 어디로 가느냐고 그러는데 물질이 뭘 어디로 갑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 자리로 갔다가 그 자리에서 또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지 딴 데로 가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리를 딴 데로 옮기거나 그런 것은 화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 자리로 갑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그 자리요, 보이더라도 그 자리인데 그것이 화해서,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는데 저녁에 잠을 자는 거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산해서 낮에 그 에너지로 인해서 살게끔 돼 있습니다. 과학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요. 허나 불교의 법으로서는 우리가 없다고, 몽땅 다 없다고 봐야죠. 없는 데서 그냥, 즉 말하자면 하나의 생각을 지었다 이럴 때는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묘법이 아닌 가 하는 겁니다.

불자로서 추구해야 할 목표

문 수행을 해 나간다고 하면서도 기실 마음공부의 대상이 어떤 사사로운 이익에 제한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기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고통과 고난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자로서 진정 새롭게 추구하고 또 바래야 될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가르침 주셨으면 해서 글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또 가정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칠 때 자기에게 이익 되는 것에만 너무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마음자리에 두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림 · 최주현

답 지금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한다면 풀 한 포기도 스승 아닌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강도짓 하는 사람을 보고도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강도질 하는 사람을 보면서 생각을 할 때도 있으니까 그 강도도 스승이요, 풀 한 포기 돌 하나, 물이 흘러가는 것도 스승입니다.

그렇게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모두를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그런 겁니다. 일체 만물만생, 또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삼심을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니까 주인공 하나만 생각하면 뜻으로다가 그냥 둥글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것저것 자꾸 생각하면요, 마음이 산란해서 진짜로 곧장 들어갈 것도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데 모아서 말기시고 지켜보는 그런 참된 선(禪) 수행자가 되세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여러분이 좀 어리석게 사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면서 사람이 안 온다고 하는 문제들을 보면, 이(利)가 부진하다는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이러는데 진짜로 믿는다면, 오든지 가든지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거기다가 턱 말기고 진짜로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한다면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돈이 많이 벌려도 걸림이 없고 돈이 안 벌려도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기 때문에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까닭에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지어서 하게 되니 괴로울 수밖에요.

간단히 생각을 하세요. 돈을 수억을 번다 하더라도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 혼자 갖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번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가질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걸립니까? 내가 또 많이 번다고 하는 '내가'라는 생각으로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지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서 본다면 일체가 다 나 아님이 없는데 구태여 왜 거기 걸립니까?

그러니까 선지식들은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죽인 사이가 없고, 깨치지 못한 자는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살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증득해야 알아져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을 믿고 일체를 맡겨 놓으면서 지켜보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욕심을 내서 한다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십억의 의식들이 한데 모여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내가 변해야 상대도 변합니다

아야 될 텐데 남이 언짢은 걸 봐도 울고 남이 좋지 않아서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나도 울게 됩니다. 이렇게 우는 것을 좀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로부터 거죽으로 왕래가 되기 때문에 해동이 되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아주 얼고 언 나라가 봄이 오려면 한정 없이 얼음이 녹아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업보가 녹느라고, 그 얼음덩어리가 녹느라고 여러분의 눈을 통하고 혈맥을 통해서 그 얼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지옥고가 무너지느라고 그럽니다. 추운 겨울날이 지나 봄이 오느라고 그럽니다. 해동이 되어 꽃이 피니까요.

그렇다고 그냥 아무 데서나 울지 마시고 '아무 데서나 눈 퉁퉁 붓게 울도록 해동을 시키면 어떡해? 아무도 없을 때나 좀 그러지.' 그렇게 관하세요. 그러면 절대 누구 있는 데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이 공부가 얼마나 좋은 공부인데요. 정말 자유스럽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뿌리를 믿고 하나하나 넘어가 보세요.

그러니 나부터 알고 나부터 믿으세요

요.

어떤 분들은 장사를 하거나 회사에 다니거나 또는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남과 같이 돈을 벌어야 살 수 있고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데 다 놓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느냐고 생각하시지만, 한번 뒤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절에 걸어오실 때에 그냥 서서 걸어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걸어오긴 했는데 발자취를 하나도 짊어지고 온 게 없죠? 생각해 보세요. 돈벌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발자취를 걸머지고 다니십니까? 걸어오긴 틀림없이 걸어왔는데 걸어온 사이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짊어지고 온 게 아니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온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되 자기가 했단 말 하지 마라,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두가 공용으로 했다고 생각하라 이겁니다. 주인공에서 모든 것을 공용으로 한 것이지 자기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

☞30면으로 계속

일체를 거기다 맡기고 편하게 사십시오

☞29면에서 계속

니지 않습니까? 그런 동시에 우리가 걸음을 걸어 왔는데,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떼어 놓고 걸어오긴 했는데 걸어온 자취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혼자 걸은 게 아닙니다. 여럿이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왔지 아마 몸속에서 위 공장 하나만 그냥 파워가 일어나도 다리도 떼어 놓지 못하고 걸어오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만 놓고 보더라도 혼자 뭘 했다는 게 없는데 하물며 가정이나 직장에서야 말해서 뭐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공심으로 공생하고 공용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 거다 이거죠. 어떤 걸 하더라도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엔 걸림이 없습니다. 그게 참 묘하죠. 말로는 할 수 없는 묘한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삼합에 대해서

문 『한마음 요전』에 보면 삼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불씨와 육신과 마음',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나온 자리를 모르고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소와 달구지, 달구지를 탄 사람의 비유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소와 달구지와 마부 삼합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소와 달구지, 달구지와 달구지를 탄 사람, 달구지를 탄 사람과 소 이 모두를 한 생명으로 묶어 보아야 옳은 것인지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불씨는 우리 원소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씨는 마음을 내게 할 수 있는 활동력이 있죠.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지면 불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바탕이 바로 원소 자체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불씨라고 합시다. 불씨가 없으면 마음을 낼 수 없고 마음을 낼 수 없다면 육체가 움죽거리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삼합이 동일하게 하나가 돼서 지금 움죽거리고 말을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로 소를 타고 피리를 분다 이 소리와 똑같습니다. 지금 소를 타고 달구지를 끌고 다닙니다. 즉 말하자면 마부는 마음이요, 육신은 달구지요, 소는 자기의 주인공, 바로 자기 조상입니다. 과거에 살던 자기, 현실에 사는 자기는 달구지요, 과거에 살던 자기는 바로 소입니다.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마부는 그 소를 쳐야지 달구지를 잘 끌고 가지 않느냐. 달구지에다가 모든 걸 다 실었는데 어떻게 달구지를 치느냐? 지금 기복으로 나가는 게 달구지를 치는 법이요, 바로 지금 마음법을 가르치는 게 소를 치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삼합이 같이 동일하게 움죽거리고 가는 것을 바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 '나'이면서도 내가 공(空)해서 쉴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 화해서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써 주인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소는 과거 자기, 달구지는 현실 자기, 마부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으로써 그냥 무조건, 달구지가 깨지든지 말든지 그냥 치는 마음이냐, 잘 다스려서 잘 이끌어 가는 지혜로운 다스림이냐 이거죠. 마부는 마음이니 마음으로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구지를 치느냐 소를 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맡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바깥으로 빌어야겠습니까? "네 뿌리가 네 나무를 돕지 어느 누구가 돕겠느냐." 하고 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깥으로 지금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찾는 건 제 뿌리를 제가 찾는 것이요, 바깥으로 찾는 거는 남의 뿌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안을 치느냐, 바깥을 치느냐에 달려 있죠. 바깥으로, 달구지를 치면 절대로 안 갑니다. 소가 가질 않죠. 그러니까 소를 쳐야 달구지를 끌고 가죠.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안의 소를 쳐야 바로 소가 작용을 하고 작용을 하니까 제도가 되죠. 작용을 하니까 일체가 다 제도가 된다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그대로 통신이 되면 어느 한 부분에만 통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을 치면 누진으로 통신이 돼 가지고 사대로 통신이 되는데, 그게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안을 치면 바로 사대, 즉 말하자면 세계로 친다면 세계가 다 통신이 되는 거와 똑같죠. 이 몸뚱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도 통신이 되니까요.

그렇게 통신이 되면 어떻고 어떤 건가를 전부 다 알게 돼요. 통신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 통신이 돼서 다 알고 자꾸자꾸 내 마음이 들이 아니게 돌아가다 보면 들이 아니게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돼서 '위로는 일체가 둘이 아닌 줄 알고, 아래로는 둘이 아닌 도리로 제도해서 자꾸 안을 치면 그 소가 달구지를 끌고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제도가 된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니라. 위로는 부처를 모시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이런 겁니다.

어떻게 나를 찾아서 벗어나는지?

문 스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나 자신이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인과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사회와의 상호 연관적으로 생활이 연계돼 있어서 나는 벗어나고자 하더라도 내 주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그때는 제가 어떻게 나를 찾아서 벗어나야 되는 건지요.

답 불교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생명들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금끼리 모이고 깡통은 깡통끼리 모여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깡통끼리 만나서 살고 있다면 서로 말만 해도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만이 당신을 알지 딴 사람 제삼자는 모릅니다. 그러니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스스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세요. 누구나 제각기 자기 근본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깐 없다 있다 이런 투정 할 필요도 없이 나부터 금이 돼 가면 주위 사람들도 서서히 나를 닮아 가게 돼 있으니까 말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자꾸 관하면서 무르익어가 보세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신도 집에서 며느리가 피가 멎질 않아 죽게 됐다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엘 갔는데도 영 멈추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전화도 없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사흘 됐나? 피가 멎고 정신이 들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면서요.

그러니깐 그게 뭡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부처님의 뜻은 항상 화하는 겁니다.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항상 화해서 이걸로도 화하고 저걸로도 화하고 그러니깐 어떻게 여기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여기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생각에 따라서 자꾸 화해서 변해야만이 나나 상대에게 필요한 거를 주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만 그 사람한테 필요한가를 봐서 응해 주는 겁니다. 모두 찰나찰나 바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자기도 있는 겁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모습과 자기 과거 불성은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항상 둘로 보는 겁니다. 둘로 보기보다도 둘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가 다 결국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있어서 보이는 모습은 그 참자기를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꼭 자기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믿지 않으면 무엇을 결정지을 수도 없고, 뭐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도 모르고 살게 됩니다. 꼭 반드시 진짜 자기를 믿고 일체를 나온 거기에다 돌려놓는다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지금 이 육신 껍질은 없어지지만 자기 근본은 남아서 또 새 옷을 입고 재생을 해서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체를 거기다 맡기고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내가 변해야 상대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알고 나부터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걸 공부 재료로 삼아 모든 걸 그저 거침없이 하도록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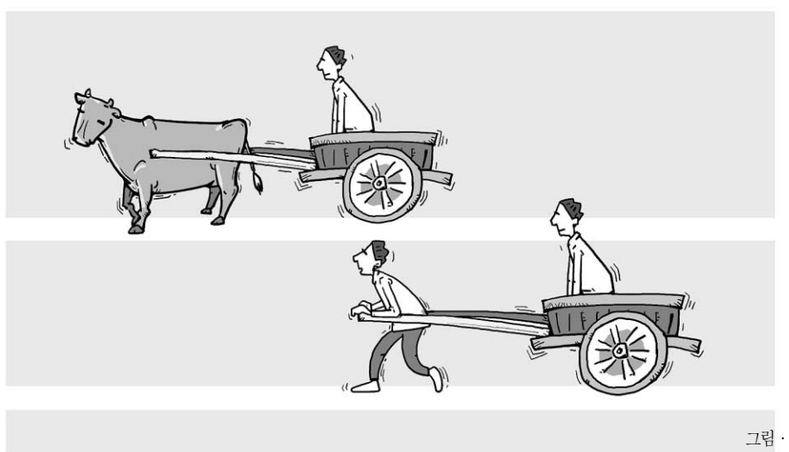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권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각종누비
- 면누비(먹물)
- 모직누비
- 물실크 누비
- 무명누비
- 손누비 (명주, 무명...)

동 복
- 고급모직
- 무명
- 각종 먹물, 면

장삼, 가사, 조끼 몸빼, 셔츠



대구 고속터미널 ←중간→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 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 에서는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을 교육하고자 2005년 신입생을 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총 2년 과정. 대한민국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 강사 : 경허 상진스님 (영산재 보존회 회원)

❶ 학년 과정
- 사 물 : 목탁.요령다루는법
- 송 주 : 도량석.종성등
- 예 경 : 향수해례.사성례.칠정례.오분향례.각단예불
- 권 공 : 사시불공.삼보통청.퇴공.각단불공등
- 재의식 : 49재 및 천도의식.시달림등
- 시 식 : 관음시식.상용영반.화엄시식.구병시식.일반시식등

❷ 학년 과정
- 상주권공 : 할향.등게.합장게.고향게.개게.세수게.복청게.사방찬.참회게.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39위).상단권공.중단권공.관음시식.봉송회향(49재 및 일반천도의식)
- 비라춤 : 요잡(막바라).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 나비춤 : 도량게.다게.운심게.육건이(옴남).사방유신
- 사 물 : 태징.북.요령.목탁(전통의식타법)
- 특 강 : 향화계착복.가지게.쾌불이운.종사이운.점안의식 등

2. 개강일시 : 2005년 3월중 (1학년 매주 목요일 오후2시~6시까지 2학년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편입가능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입학금10만원 (교재비 포함), 월10만원
5. 강의장소 :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1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8. 접수기간 : 2005년 2월 25일까지
9. 연 락 처 : 053)622-3702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패 교육원

2차 성 명 서

무속인이 사암의 간판을 달고 불상을 모시고 굿당을 하고 있다. 무속인은 신명과 영신이 있다. 사암에서는 스님들께서 수계하고 불상을 모시고 수행정진하는 것이다. 무속인이 사암을 사칭하여 사월초파일에 등을 달고 하는 것은 불법이며 탈법이다 이점 인식하시고 무속인들께서 부처모신 불상을 치우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개신교 측에서는 불교를 미신이라고 타파한다. 불상을 모시고 신명으로 굿을 하니까 개신교 측에서 미신이라고 한다. 무속인은 본연의 행사를 하시고 부처님은 절의 스님들께서 모셔야 한다.
무속인들께서 이에 답변을 요망한다.
불교발전연구협의회 일동은 현재 미래에 문제점을 풀어가야 한다.
3차성명서에서는 이에 화답이 없을 시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다.

대 표
상산 혜광 법광 혜만 법상 혜우 법행 우애
011-9836-9561 (번호 수정하여 다시 게재함)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권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만삼달인 물(만삼 생것 10kg · 황기 · 잔대 · 삼지구엽초 · 생강 · 대추 · 감초)
● 1Box (60포 : 20만원) ● 2Box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 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사찰음식 송년모임
맛·건강 '브라보'

불자들을 위한 색다른 '포트럭 파티' 즐기기

버섯·야채 등을 이용한 영양 식단 준비

얼마 남지 않은 2004년. 술과 고기가 빠지지 않는 연말 모임이 매일같이 이어진다. 돈은 돈대로 깨지고 체력은 체력대로 축나는 연말이지만, 송년모임은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도는 이들이 많다.

이 같은 소모성 회식 대신에 '사찰음식 포트럭 파티'는 어떨까? 포트럭 파티란 파티에 초청된 회원 각자가 한 가지씩의 요리를 마련해와 다양한 맛과 멋을 함께 나누는 것. 파티식단을 사찰음식 중심으로 꾸민다면 불자들의 이색적인 송년 파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찰음식 전문가 홍승 스님은 "파티 식단은 파스타나 스테이크 등 서양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맛과 영양 · 장식면에서 사찰음식 또한 파티음식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무슨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홍승 스님은 메인요리로 '표고버섯야채탕수이'나 '버섯야채 팔보채'를 준비하고 '시레기나물밥' 혹은 '곤드레나물밥'을 곁들이면 좋다고 말한다. 후식으로는 차가운 모과차 · 유자차 등과 함께 다식이나 곶감말이 등을 함께 올릴 것을 추천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사찰음식의 조리법을 살펴본다.

강신재 기자

■ 표고버섯야채탕수이



▲준비할 재료 ½⅓

마른 표고버섯 100g, 당근 1개, 오이 1개, 브로콜리 1개, 청 • 홍피망 1개씩, 배추잎 2장, 파인애플 통조림 1개, 감자전분 5큰술, 식초 3큰술, 설탕 3큰술,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튀김용 기름 넉넉히, 은행 ⅓컵

▲만드는 법

1. 표고버섯은 깨끗이 씻어 불려 꼭지를 따고 물기를 꼭 짜서 참기름, 소금, 후추를 넣어 밑간을 해놓는다.
2. 준비한 야채와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놓고 브로콜리는 살짝 데친다.
3. 은행은 소금을 넣고 은근한 불에서 장갑을 낀 채 손으로 문질러가며 볶아내 껍질을 벗겨낸다.
6. 밑간을 해뒀던 표고버섯을 감자전분 가루를 개어 마른 가루로 옷을 입혀서 튀겨낸다.
7. 파인애플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놓고, 국물은 탕수이 국물을 만들 때 사용한다.
8. 파인애플 통조림 국물에다가 물을 약간 붓고 녹말가루 풀어놓았던 것을 국물에 넣어 걸쭉하게 만든다.
9. 준비해 놓은 야채를 잘 안 익는 순서부터 집어넣는다.
10. 야채가 너무 익지 않도록 한소끔만 끓으면 불을 끄고 튀겨 놓은 표고버섯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국물을 끼얹는다.

■ 곤드레나물밥



▲준비할 재료

쌀 3컵, 곤드레 300g. 들기름 • 소금 약간씩, 양념장(집간장 3큰술, 청 • 홍 고추 1개씩, 통깨 1큰술)

▲만드는 법

1. 쌀은 밥짓기 30분 전에 씻어서 건져 놓는다. 곤드레는 끓는물에 소금을 넣고 데쳐 물에 담가 쓴맛을 잠시 우렸다가 물기를 꼭 짠 후 송송 썬다. 여기에 들기름, 소금을 넣고 나물조물 무친다.
2. 쌀과 물의 양을 1:1.1 비율로 앉혀 밥을 한다. 묵은 쌀인 경우 1:1.2 비율로 물의 양을 좀 더 늘린다. 나물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보다 밥을 고슬하게 짓는다. 쌀 위에 양념이 밴 곤드레를 얹고 밥을 짓는다. 뜸이 다 들면 주걱으로 고루 섞어 밥그릇에 담는다.
3. 분량의 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같이 낸다. 참기름을 먼저 넣으면 양념이 고루 섞이지 않으므로 참기름을 맨 나중에 넣어야 한다. ■자료제공:<선재스님의 사찰음식> (디자인 하우스)

■ 녹말다식



▲준비할 재료

녹말1과 ½컵, 꿀 3큰술, 오미자국물 2큰술, 참기름 적당량

▲만드는 법

1. 오미자를 하루쯤 우린 후 고운 천에 받아 오미자국을 만든다.
2. 녹말가루에 꿀과 오미자국물을 넣어 고루 반죽한다.
3. 다식판에 참기름을 엷게 바르고 녹말 반죽을 밤톨만큼씩 떼어 꼭꼭 눌러 박아낸다.

■자료제공:홍승 스님의 <녹차와 채식> (불일 출판사)

발아현미, 내가 직접 틔운다

표면에 세균 성장 우려 물 자주 갈아줘야

발아현미 첨가 우유 · 즉석밥 등 현미에 싹을 틔운 '발아현미'가 인기다. 조리가 복잡하고 소화가 어려운 현미의 단점을 보완한 발아현미는 싹이 트는 과정에서 영양 성분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영양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렇다면 발아현미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밥상에 道가 있다>, 등의 저자 정세채(경북과학대학) 교수는 최근 출간된 <밥상이 동의보감이다>(모색)에서 가정에서 손쉽게 발아현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접시에 1분도 현미를 고르게 편 후 현미를 살짝 덮을 정도의 물을 채우고 △접시 위에 랩을 씌워 송곳 등으로 적당한 수와 크기의 구멍을 여러 개 뚫은 뒤 △실내 창가 등에 둬서 따뜻한 볕을 쏘인다. 발아하기 시작하면 쌀에서 조금씩 잿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3~4회, 겨울에는 2회 정도 물을 갈아줘야 한다. 현미 표면의 세균이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싹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벼 씻는 것은 곤란하다.



물을 갈아주기 번거롭다면 소쿠리를 이용해도 좋다. △촘촘한 소쿠리에 현미의 두께가 1㎝ 이하가 되도록 손으로 골고루 편 후 △깨끗한 물을 골고루 뿌려 흠뻑 적셔준다. △면보자기를 덮은 채로 따뜻하고 그늘진 곳에 두고 △6~8시간마다 면보자기를 열고 물을 뿌려주는 것을 반복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약 24시간 정도 지나 싹이 1.5㎜ 자랐을 때가 가장 적당하게 자란 길이다. 한번 씻은 뒤 수분을 제거해 건조한 채로 냉장고에 보관하면 된다. 강신재 기자

(34)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 끝

어떤 오일이 마사지에 좋은가

코코넛-찬 성질로 발진·화상등에 효과
아몬드-피부 건조 막고 머리카락 탄력 유지
카스터-변비·복통 등 복부 질환에 치료제로

코코넛은 어떻게 좋은가?

코코넛 오일은 주로 화장품이나 비누의 주 성분으로 많이 사용된다.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생산되며 전세계 식물성 기름 사용량의 8%를 차지하는데, 쉽게 고형화되어 운송이 편리하다. 이 기름은 달고 비교적 가벼우며 매끈매끈하고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피타가 왕성한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피부 발진, 화상, 종기, 염증, 습진, 곰팡이, 감염증 등에 사용한다. 무기질, 단백질, 탄수화물, 고포화 지방산과 올레인이 많이 함유돼 있으나 엽록소 성분은 없다.

예로부터 인도 여성들은 건강하고 윤택한 머리결과 함께 머리칼을 빨리 자라게 해주어 코코넛 오일을 즐겨 사용했다.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열이 있거나 머리를 식히고 진정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특정 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코코넛 오일을 식용으로 쓰면 카파 기운을 증가시킨다. 겨자유처럼 카파가 왕성해 점액이 많은 사람이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코코넛은 또한 성적 흥분시 동반하는 열을 식혀 준다.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정력과 생식력을 높여주고 조루증을 치료할 수 있다. 피부를 탄력 있게 하며 쉽게 흡수되는 특성상 선탠 오일로 사용하면 좋다. 더운 기후에 사는 사람에게 적당한 오일이다.

아몬드 오일은 어떤 성분을 가졌는가?

마사지에 더없이 좋은 오일이지만 가격이 비싼 게 흠이다. 맛은 달고, 매끈매끈하고 열을 내기 때문에 카파가 우세한 체질에 사용하면 좋다.

예로부터 아몬드 오일을 40일 동안 갈색 빛깔의 유리병에 담아 햇볕에 놓아 두었다가 사용하면 근심 걱정, 비관을 없애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피를 맑게 해준다고 했다. 또한 숨을 참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몸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 마사지 오일로 사용할 경우 근육과 인대를 튼튼히 하고 피부의 화상을 치료하고 정력과 생식력을 강화시킨다. 피부 건조를 막고 머리카락에 탄력을 주며 뇌에도 좋다.

마지막으로 카스터 오일.

이 오일은 달고 쓰고 떫은 맛을 내며, 무겁고 기름지며 열을 낸다. 바타가 왕성한 사람에게 사용하면 적당하다. 피부 건조를 막아주고 탄력을 가져다 준다.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알카라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치유와 영양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먹을 경우 하제처럼 정화 작용을 한다. 변비, 장내 가스, 복통, 궤양과 같은 복부 질환에 치료제로 사용 가능하다.

■ 포천 중문의대

신년부터는 아주대학교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 의학 산책' 연재가 시작됩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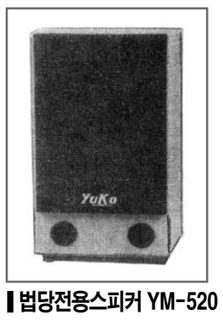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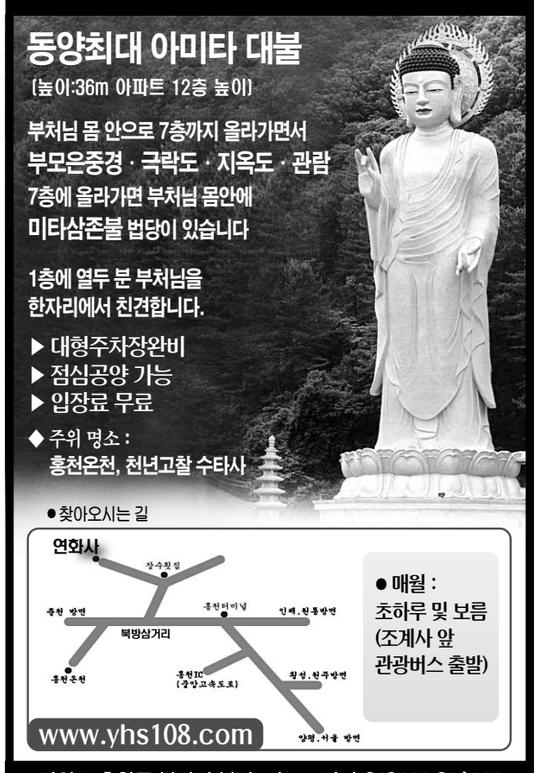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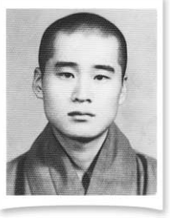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홍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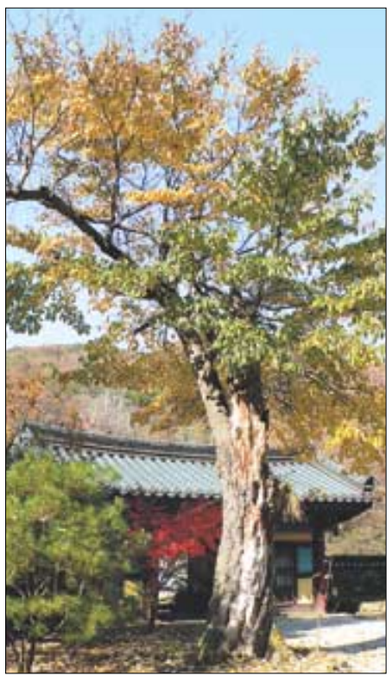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엽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현대인의 성인병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빕니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나,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절재등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출가 이후 오래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의 지중한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버릴수가 없어 오랫동안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그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던중 **本草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효한 치료법**을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축농증, 소아알러지, 신장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임상에서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탕제로 만들어 전국의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인연없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시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꼭 한번 래원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글을 올립니다.

경기 오산시 원동
TEL. 031)376-2748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장


청룡사 층층나무.


청룡사 대웅전 기둥.


은적암 주변 조릿대 군락.


등산로 쓰레기.

자연과 사람의 공존 '설법'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33) 안성 서운산 석남사와 청룡사

금북정맥의 첫 머리에 앉은 경기도 안성 서운산은 노년기의 산이지만 경기도와 충북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천안 광덕산이며 청양 일월산이며 예산 가야산이 모두 이 서운산의 아우들이다. 서운산은 해발 6백 미터를 넘지 못하지만 일찍이 명산 소리를 들어온 것은 역시 이 품속에 청룡사와 석남사가 화룡정점(畵龍點睛)으로 앉아있기 때문이다. 청룡사는 고려 공민왕 때 나옹화상이 지금의 이름으로 크게 중창했다고 전한다. 조선 중기에는 억울하게 죽은 영창대군의 넋을 보듬어 안았고 조선말에는 갈 곳 없는 남사당패들을 안아주었다. 사적비가 있는 개울 건너 오른쪽 골짜기가 바로 남사당패들이 숨어살던 불당골이다.

청룡사

경내에 들어서면 늙은 층층나무 한 그루가 노란 단풍을 황금눈물처럼 떨어뜨리고 서 있다. 이토록 나이든 층층나무는 우리 절집에 따로 없을 것이다. 층층나무는 탑을 연상케 하는 나무이다. 줄기 중간 중간에 나무 가지가 층층이 뻗어져 나간 모습이 탑을 많이 닮았다. 그러나 이 층층나무는 너무 늙어서 젊은 날의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다. 근래 새로 복원한 요사채의 기둥들도 무늬가 드러나는 자연목을 그대로 써서 옛 것과 새 것의 '어울림'이 예사롭지 않다.

청룡사 주변 숲에는 남생이무당벌레가 많다. 이름 그대로 동글납작하게 생긴 것이 기온이 떨어지면 햇볕 좋은 요사채로 슬슬 모여든다. 그리고는 따뜻한 마루틈이나 기둥틈을 찾아 몇 마리씩 모여서 겨울을 난다. 어떤 녀석은 방안에까지 기어들어와 능청스럽게 겨울을 나기도 한다. 청룡사에서 산내암자인 은적암까지는 등산로를 따라 한 시간 거리이다. 등산로 옆에 자리한 습지와 묵논은 양서류와 수서곤충에겐 극락이다. 늦가을 네발나비는 색깔이 유난히 진하다. 이것은 햇볕을 더 많이 받기 위함이다. 눈바람이 닿지 않는 큰 바위나 고목나무의 갈라진 틈바구니에서 꼼짝도 않고 겨울을 난다.

교목 · 임산 초본 등 어울려 튼튼한 숲 이뤄
은적암 주변 조릿대 군락 산사태 방지 역할

서운산은 노령의 산이라 가파른 급경사도 없고, 험한 암봉도 없는 평범한 산이다. 은적암을 지나 정상에 이르는 숲길은 안성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등산 코스이다. 등산로 곳곳에 함부로 모아둔 쓰레기들이 눈에 밟힌다. 각자가 쓰레기를 갖고 내려오는 시대도 이미 지났다. 이제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등산시대이다. 이 구간의 숲은 교목과 아교목과 관목과 임상 초본들이 한데 어울려 비교적 튼튼한 층위구조를 보여준다. 숲의 역사를 말해주는 늙은 갈참나무가 한 그루 넘어져 있다. 수백 년을 뜬 눈으로 장좌불와해온 갈참나무, 죽어 꺾여서야 비로소 육신을 지상에 뉘었다. 나무 속은 부후현상으로 터널처럼 텅 비었다. 나무도 열반이 가까우면 저렇게 속을 비우고 사는가 싶다.

은적암 아래는 조릿대가 넓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조릿대는 땅속뿌리[地下莖]를 갖고 밀생하기 때문에 산사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나무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조릿대가 넓게 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은적암은 이름이 주는 느낌과는 달리 이 골짜기에서 가장 양명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객들이 중간 기착지가 되었다. 등산로 주변 여기저기에 밤나무가 흩어져 있다.

정상 부근에 상수리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은 흔치 않은 현상이다. 정상에서 서운산성을 돌아 석남사까지는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이다.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리면 석남사까지는 걸어서 30분가량이다. 개울을 따라 인적 없어 더욱 호젓한 길이 나 있다. 석남사가 가까워질수록 물빛이 붉은 것은 철분이 많은 토양 때문이다. 개울가에 잘 자란 은사시나무 몇 그루가 서 있다. 청룡사 뒤 골짜기를 비롯해 서운산 자락에는 곳곳에 우람한 몸집의 은사시나무들이 관찰된다. 석남사 절 앞 감나무에 큰오색딱다구리 한 마리가 붙어서 나무줄기를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다.

석남사

는 좌우를 둘러싼 산세도 그렇거니와 사하촌을 거느리지 않아 세속과 뚝 끊어진 산중절이다. 그래서 절맛이 남다르다. 산문이 따로 없는 석남사에서 산문 노릇을 하는 금광루를 들어서면 경내는 대각전 영산전 요사채 공간 등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세 구역은 자연미가 베인 가파른 계단길로 연결되어 있다. 보물로 지정된 영산전은 해체수리 공사에 들어가 있다. 대각전은 석남사의 본전이다. 제멋대로 생긴 내부의 대들보는 자연미가 물씬 풍긴다.

석남사에 오면 꼭 돌아봐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통해우소이다. 관청에서 수세식으로 지으라는 것을 회주이신 정무스님이 고집해 얼마 전에 전통해우소로 다시 복원한 것이다. 절집의 해우소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시스템으로 분뇨를 처리한다. 송광사나 선암사처럼 낙엽이나 톱밥 등의 매질(媒質)을 변조에 뿌려서 건분(乾糞)을 만드는 방법과 변조칸의 분뇨를 발효시켜서 액비(液肥)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석남사 해우소는 흔히 '푸세식'으로 불리는 후자의 경우이다.

몇 년을 곰삭은 액비는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갓 떨어진 배설물은 자연적으로 액비 위에 뜨게 되어 있다. 액비에는 인산과 각종 미네랄과 염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채전밭에는 더 없는 보약이다. 내부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앉아있어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 '특수용해시설이 되어 있으니 휴지나 그 어떤 것들도 함부로 버리지 마시오'라는 글귀가 칸칸이 붙어 있다. 하지만 특수시설이라는 것이 변조칸을 깊이 파고 햇볕과 바람이 들도록 살창과 구멍을 많이 낸 것이다. 분뇨들이 썩지 않고 발효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전기와 물을 낭비하고도 수질을 오염시키는 수세식보다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환경시대에 본보기가 될 만한 해우소이다. 석남사는 해우소 말고도 '생태사찰'이라 불릴 만한 좋은 점 몇 가지를 지니고 있다. 심야보일러를 사용하는 석남사에서는 잔열을 지키기 위해 하루 종일 이불을 깔아둔다. 겨울에는 연료를 아끼기 위해 대중들이 큰방에서 예불을 지낸다. 사중 식구가 다섯에 불과한데도 꼭 죽비를 치고 대중공양을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법회 때를 제외하고는 공양칸에서 세제를 쓰지 않는다. 화장지를 쓰는 데도 대중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세제를 낭비하고 전기를 많이 먹는 세탁기는 가능한 돌리지 않는다. 웬만한 채소는 유기농으로 직접 길러서 먹는다. 벌레 먹은 채소들이 밥상에 오르는 것은 예사이다.

제멋대로 생긴 대웅전 대들보 자연미 물씬
해우소 시스템 · 유기농 등 생태사찰 모범

석남사에서 서운산 정상까지는 1.8킬로미터이다. 계곡을 따라 두 줄기의 등산로가 나 있는데, 한 줄기는 열두구비 산길이며 다른 한 줄기는 개울을 따라 난 등산로이다. 개울 주변으로는 신나무 복자기 물푸레나무 왕버들 미류나무 쪽동백 떼죽나무 노간주 굴참나무 층층나무 개암나무 산벚나무 당단풍 느티나무 등이 능선까지 어울려 있다. 개울 등산로 가까이에 고려말에 조성된 마애불이 있다.

벽면 곳곳에 회색 석이(石耳)버섯이 돋아나 있다. 일명 돌버섯이라고 불리는 석이버섯은 석이속(屬)의 지의류(地衣類)이다. 겉모양과는 달리 공기가 비교적 청정한 산중의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엽상지의(葉狀地衣)이다. 건조한 겨울철에는 죽은 듯이 납작 붙어 있다가 습기찬 여름철이 되면 다시 왕성하게 부활해 후손을 퍼뜨린다. 마애불 주변에 몇 그루의 노송들이 있지만 활엽수들의 등쌀에 노후가 편치 못하다. 너무 늙어서 자식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주위의 활엽수들을 쳐서 경관미라도 얻었으면 싶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석남사 해우소.


석남사 큰딱다구리.


마둔저수지와 은사시 나무.


석남사 마애불.

정토사 건립 불사 一千佛殿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세계가 이루어 진다.
卍 무량수경 卍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 여래불께 귀의하여 크나큰 가르침 깨달으며 불자님들과 함께 법연을 맺어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성불하여지이다.

귀의 삼보하옵고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과 마음마다 불보살님의 가피속에 보리반야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 두립니다.오늘도 고통의 그늘 속에서 몸과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채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불연을 만나고도 무상한 마음을 터득하지 못하며 탐, 진, 치 어두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을 서원하는 염불만일회 삼각산 정토사는 이 땅에 불국정토를 이룩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불심이 깊은 불자들이 한마음의 자재한 법을 배우고자 모여 들었으나, 도량이 협소해진지라 충분한 수행공간과 부처님 도량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싶은 바람은 모든 대중의 마음속에 한결 같았습니다. 이에 정토사에서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만민의 기도도량과 교화의 도량으로 면모를 일신하고자 법당 중창 불사의 원력을 세웠습니다. 법당이란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고 삶을 가다듬는 곳이자 기도 정진에 임하며 자기의 신앙심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불사 동참을 권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때일수록 공덕을 짓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신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본래 불사란 인연 있는 이는 더욱 깊은 신심을 갖도록 하고 무연 중생에게는 인연을 맺어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복락을 누리게 하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불자님 한분 한분이 원력을 세워서 금번 불사에 동참한다면 이러한 인연의 공덕으로 무명의 업장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깨달아 성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불심이 지극하신 불자님들의 정성으로 이 중창 불사의 원만 회향을 기원하며, 아울러 동참하여 주신 분들의 인연과 공덕이 후대에까지 길이 길이 회향되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원하면서 다시 한번 불자님 가정에 불은이 충만하시길 축원올립니다.

나무 무량수 여래불 나무 무량수 여래불 나무 무량수 여래불
염불만일회 삼각산 정토사 주지 응천

● 정토사 중창불사 365일 특별 관음기도
· 입재 : 2004. 12. 5. 오전 10시
·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기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정토삼부경 강의
● 일천불 부처님 조성불사
1인 1불 30만원(분납 가능), 설판제자는 100만원 이상입니다.
● 법당불사 내역 : 대들보 (대 중 소), 주춧돌, 기둥, 문짝, 시멘트
● 불사동참 입금계좌
온라인 : 농협 204044-52-048294 (예금주 박창식)
※ 불사금은 분납 가능합니다

정토사 정기법회 안내
• 매월 초하루 · 신중기도 : (음) 1일 ~ 3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산신재일 : (음) 8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보름인등법회 : (음) 15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지장재일 : (음) 18일 오전 10시 30분

염불만일회 자성미타원 정 토 사 회주 박설산 주지 박응천 합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523-61번지
전화 : 02)396-3405, 379-5502